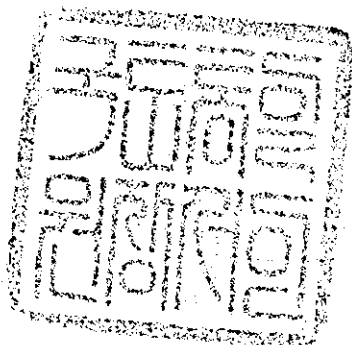


민주통일의 길 ②

국토통일에 관한 문예 작품집



국토통일원

발 간 사

국토통일원 장관 김 영 선



당원은 통일에 대한 국민의 참여의식을 높이고 국민계몽을 목적으로 「통일에 관한 작품」을 현상모집하고 있다.

작년(1회)에는 논문만 모집하였던 것을 금년(2회) 부터는 학생부 글짓기(초·중·고)와 시, 소설, 노래까지도 범위를 넓혀 모집한 결과 예상외로 1천편 이상의 주옥같은 작품들이 응모되어 크게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학생부 글짓기 작품은 소속학교에서 예심을 거쳐 추천된 것임으로 본선심사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여태까지 반공·승공만 외치던 학생들이 갑자기 통일에 대한 작품을 쓸려고 하니 방향이 아주 다른 것으로 오해했을지도 모른다. 물론 반공과 통일이 가지고 있는 뜻은 서로 다를지 모르지만 우리의 통일목표가 승공·민주통일인 이상, 승공·반공정신은 통일에 대비한 국민자세로서 첫째로 중요한 것이다.

대개의 내용들이 「승공·반공」 「자립경제달성」 「자주국방」 「북괴의 도발극복」등을 내세우고 있다. 바로 여러분이 내세우고 있는 이러한 요소들이 함께 어울려 튼튼한 나라의 힘이 되고 또 이 힘이 승공통일의 지름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다.

우리의 소망은 통일이다. 이러한 소망은 우리 스스로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렵고도 험한 길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자기 생활을 통하여 항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해야 함도 아울러 마음 속 깊이 명심해야 한다.

해마다 계속될 이 작품현상 모집에 대하여 더 많은 학생들의 참가와 더 좋은 작품을 기대하여 마지 않는다.

끝으로 본선 심사를 맡아주신 아동문학가 이종기선생, 어효선선생, 그리고 김요섭선생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1971년 9월 일

국 민 교 육 헌 장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력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에 뿌리박은 상부 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 정신을 북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 정신을 드높인다.

반공 민주 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 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 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1968년 12월 5일

차 례

초등부 <최우수작>

통일의 쉬운 길.....공 봉 택... 9

<우수작>

국토통일.....이 명	12
남북통일을 하는 길.....윤 승 구	13
달님이 들은 기도.....배 향 란	15
간첩은 못 잡았지만.....유 정 립	18
우리의 숙제.....안 말 심	20
통 일.....유 지 훈	21
그리운 얼굴.....김 혜 정	22
한 식 날.....백 기 응	24
영원한 자유를 위해.....엄 영 배	27
갈라진 대한민국.....박 종 원	29
국토통일.....채 동 진	31

중등부 <최우수작>

경희와 태극기.....강 선 민...37

<우수작>

국토통일과 민족충혼.....장 영 주	42
승공은 민주통일의 길.....유 용 진	47
스승이 된 오빠.....장 춘 지	52
국토통일.....이 재 출	57
국토통일을 위한 우리의 자오.....조 향 숙	61
민족통일의 필요성.....이 민 순	66
승공으로 통일하자.....구 소 회	69
국토통일의 길.....신 혜 희	73

고등부 <최우수작>

통일을 위한 민족의식 고취강 신 준·81

<우수작>

아버지의 소원양 미 경·88

다시 태극 깃발을.....박 용 이·92

승공 민주통일을 위한 노력의 생활화.....박 영 동·99

가즈

통일을 위해 우리가 할일곽 정 순·107

승공통일의 길한 상 남·112

가 로 수.....손 중 철·118

승공적 국민의 자세.....최 동 민·122

신념과 단결정 순 욱·128

<초등부글짓기>

심 사 평

국토를 통일하는 일은 가장 힘든 일이다. 그러나 꼭 우리 손으로 해내야 하는 일이다. 이런 <국토 통일>을 글로 쓴다는 일도 어려운 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전국에서 여러 어린이들이 열심히 쓴 글을 읽고나니 누구보다도 우리 어린이들에게 통일에 대한 글을 쓰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은 글이 되고 안 되고 간에 한결같이 통일을 꼭 우리 손으로 이루겠다는 신념이 글에 넘쳐있는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글은 괜한 기호의 나열이 아니다. 가슴에 넘쳐흐르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곧 글에 나타나게 마련인 것이다. 그러나 글은 어떤 신념만으로 잘 쓸 수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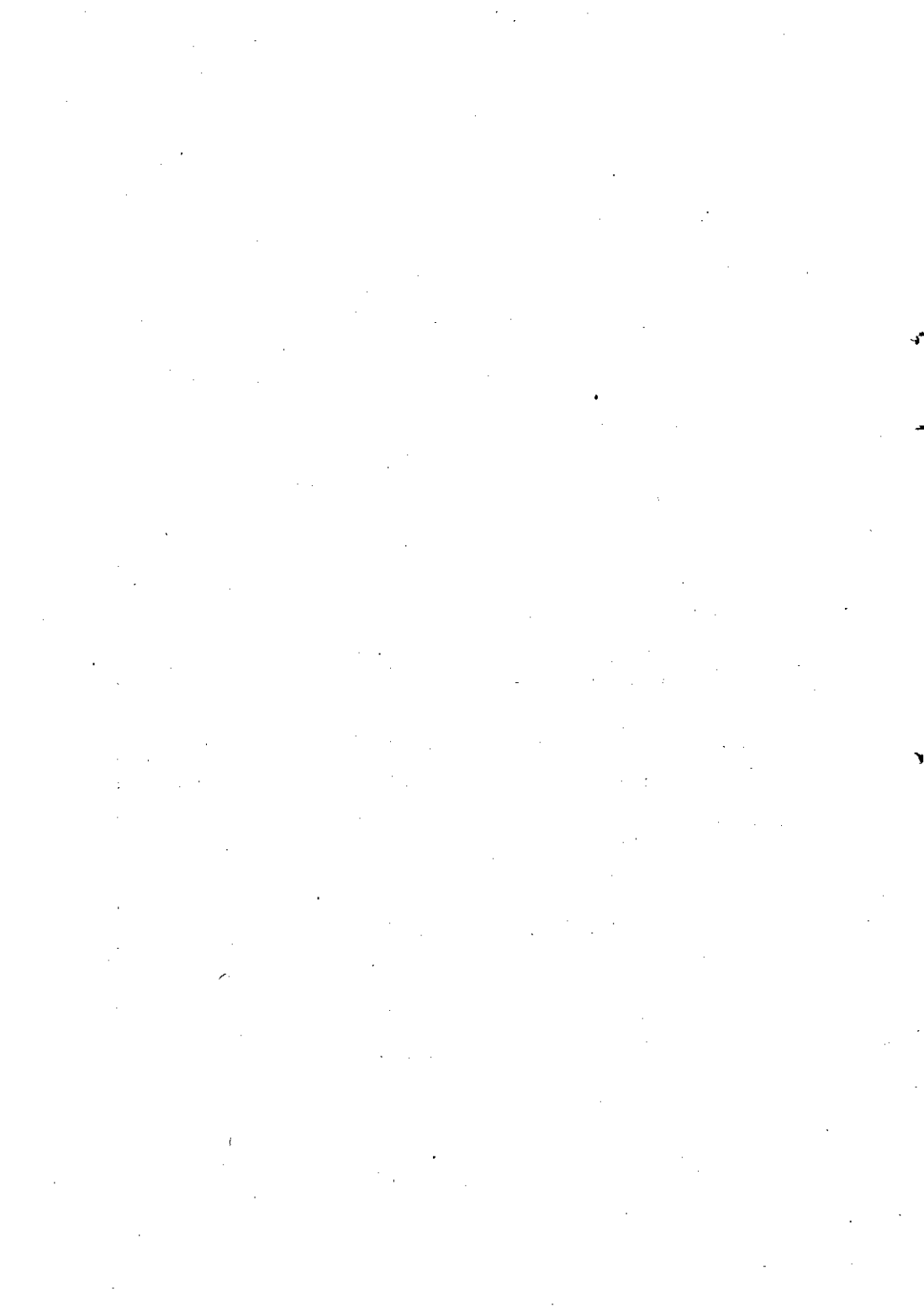
통일에 대한 바른 이해와 글은 신념이 자기자신의 것으로 (남에게 빌려서 하는 말이 아니라) 된 다음에 글을 잘 쓰는 기술의 힘으로 비로소 우수한 작품이 이뤄지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통일에 대한 글은 신념은 넘치고 있는데 그것을 자기에게 어울리게 만들지 못했고 또 글로 나타내는 방법이 걸치레만 꾸며대려는 글이 많았다. 그러나 최우수작으로 뽑은 공 봉택군의 글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은 뽑은이의 기쁨만이 아닐 것이다. 공 봉택군은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열심히 생각하고, 또 알아내고, 그리고 자신있게 사는 어린이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한 일을 자신있게 글로 옮길 수 있는 것이다.

통일은 이런 자신있는 힘이 없어서는 되지 않는다. 자신을 가지고 살 줄 아는 어린이가 자라는 가운데 자신있는 글이 나오고 또 우리 민족의 소원인 통일도 우리의 힘으로 이뤄질 것이라 생각한다.

작품현상모집(초등부)

이 종 기



<최우수작>

통일의 쉬운 길

공 봉 택

(전북 남원 중앙6-1)

국민교육헌장 시간이었습니다.

작년부터 들어온 「평화적 통일」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싶어 선생님께 여쭙어 보았습니다.

“허허, 그럼 봉택의 질문부터 대답할까?”

아이들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공부입니다.

작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박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으로 세계 사람들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어린이가 몰라서야 되겠습니까?”



나는 똑똑하게 의견을 내 세웠습니다. 그러자 선생님께서는 갑자기 박수를 치셨습니다.

아이들도 따라서 박수를 쳤습니다.

“똥택이, 정말 똑똑 하구나! 그래 설명 해 주지.”

아이들도 좋다고 찬성을 하였습니다.

선생님의 설명은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같은 동포끼리 죽이는 그런 전쟁은 그만두고 누가 더 잘 사는 좋은 나라인가 시합을 해서 우리 동포들을 행복하게 해 줄 수 있는 민주국가를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북한 공산당들이 그런 자신이 없어서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공산당들은 악독한 전쟁이 없이는 못사는 놈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나라와 가난한 사람들을 살살 피어내어 공산당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에는 무력 전쟁과 경제 전쟁이 있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가, 평화적으로 통일하자고 자신있게 나설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많은 발전을 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집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매일밤 술을 잡수시고 들어 오셔서 괜히 어머니와 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지금도 가난합니다.

아버지께 저금돈좀 달라고 하는 날엔 날벼락이 납니다.

가끔, 어머니께서 주신 학용품 값을 아껴서 저금한 것이 지금은 237원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통일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 집은 가난하고 불행한가 봅니다.

어느 토요일 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또 술이 취해 들어 오시자 잘못도 없는 어머니를 전드렸습니다.

어머니께서 통명스럽게 대답하자 또 싸움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누나와 나는 싸움을 말렸습니다. 그러다가 힘껏 밀치는 바람에 책상 모서리에다 허리를 다쳤습니다.

나는 조금 아팠지만 ‘엉엉’ 엉살을 부렸습니다. 정말 죽는 시늉까지 하였습니다.

어머니께서 놀라시며 나를 껴안고 울으셨습니다.

아버지도 속으로 놀래셨는가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아버지께서는

“봉택아, 괜찮으냐?” 하시며 따뜻이 물으셨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그러자 내 등을 만져 보시고는

“내가 너희들을 너무나 고생 시키는구나!” 하시며 길게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나는 ‘이때로 구나’하며 아버지께 술을 잡수시지 말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야기를 자세히 이야기 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봉택이가 제법 컸구나” 하시며 이제 술을 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술 잡수실 돈으로 저금돈을 더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야!”하고 깡총깡총 뛰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눈물이 글썽 글썽하셨습니다.

나도 울음이 나올려고 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젠 우리 집도 싸움이 없어지겠구나. 저금돈을 많이 주시고 한 푼도 헛되게 안쓰고 어머니를 주신다니, 머지않아 우리 집도 잘 살게 되겠지.’

공산당은 가난한 가정을 침범 한다는데...

나는 아버지가 무척 고마웠습니다.

발전하는 가정, 잘 사는 국민은 공산당을 쉽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 입니다.

<우수작>

국 토 통 일

이 명

(충남 당진 순성2-1)

우리 나라는 아깝게도 남북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한 핏줄을 가진 형제들 이면서 서로 싸우고 있으니 참으로 원통한 일입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지난 식목일에 하루빨리 통일이 되라고 통일동산을 만들었습니다. 꽃이 활짝 피는 날 통일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도 공산당은 간첩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는 간첩이 오는대로 모조리 신고하며 잡아야 겠어요. 그래서 공산당이 손을 번쩍 들 때까지 우리는 계속 열심히 일하고 공부합시다

<우수작>

남북통일을 하는 길

윤 승 구
(강원 고성 거진 6년)

지난 바론생활 시간에 무장공비 소탕작전에 대하여 설명하신 선생님께서 우리들에게 국토통일에 관한 질문을 하였다.

“자 이번에는 우리 나라가 남북이 통일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한번 발표해 보기로 하자.”

우리는 서로 꺾속말을 주고 받으며 응성 거리고 있었다. 질문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았다. 조금 있자니 반장인 성호가 손을 번쩍 들고 일어났다.

“우리 나라가 남북통일이 되려면 공비들을 다 때려 잡아야 합니다.”

모두들 때려 잡는다는 소리에 와아 하고 손뼉을 쳤다. 선생님은 빙그레 웃으시며 “공비들을 물론 때려 잡아야지, 그러나 공비들만 때려 잡는다고 통일이 될까?” 하고 고개를 갸웃뚱 하시었다. 이번에는 잘 까부는 종성이가 일어나더니 “이북에서 혼편받는 공비도 때려 잡아야 합니다”하고 성호가 이야기한 내용을 더 보태서 말했다. 그러자 여기 저기서 이야기가 터져 나왔다.

“피퇴군을 다 때려 잡아야 합니다.”

“아닙니다. 우두머리 김일성을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이북을 도와주는 중공이나 소련을 없애야 합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빙그레 웃으시며 적당한 대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표정 이었다. 나는 다른 의견을 생각해 냈다.

“저가 생각하기에는 그놈들을 다 때려 잡는 것은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김일성을 사형에 처하기 보다는 김일성의 검은 마음을 고쳐 놓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자 항상 남의 의견에 참견하기 좋아하는 길수가 일어났다.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김일성을 어떻게 마음을 고쳐 놓을 수 있니?”

이번에는 영수가

“그럼 김일성을 어떻게 잡니?”

하고 길수 의견을 참견했다.

선생님께서 조용히 하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셨다.

“김일성의 마음을 고쳐 놓아야 한다는 의견에 나도 찬성이다. 때려 잡는다는 것은 힘들고 또 때려 잡으려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은 좋은 것이 못된다. 마음을 고쳐 놓는다는 것은 힘든 일이다. 그러나 쉬운 일일 수도 있다. 여러분들도 조금만 노력하면 김일성의 마음을 고칠 수가 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쉽게 생각해 보자.” 우리들은 모두 생각 하는 눈치였다. 그러나 나는 아무리 생각해 김일성의 마음을 뜯어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생각이 나지 않은 모양인데 내가 한 가지만 설명하지, 가령 우리 나라가 매우 가난하고 아무런 힘도 없다면 김일성은 우리 나라를 침략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가 경제를 발전시키고 모두 국민이 잘 살게 되면 김일성은 감히 침략하려는 생각을 못할거야. 왜냐하면 우리 나라 국민은 잘 먹고 잘 지내는데 이북 동포들은 철벗고 굶주리고 있어서 힘이 없기 때문이야.” 나는 벌떡 일어났다.

“선생님 생각 납니다. 우리가 매주일 하는 저축은 우리 나라 경제 발전에 힘이 되니까 김일성의 마음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저

축을 많이 하는 것이죠?”

“그렇지 좋은 의견이다.”

그러자 다른 아이들의 의견이 여기저기서 튀어 나왔다.

“공부 잘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요?”

“우리 학교, 우리 동네를 깨끗이 청소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씩씩한 어린이”

“예절바른 어린이”

그 외에도 여러가지 의견이 나왔다.

선생님께서서는 다시 말씀하셨다.

“지금 발표한 여러가지 의견이 다 김일성의 검은 마음을 뜯어 고치는 방법이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경제 부흥을 위해 노력하고 또 향토예비군을 조직하여 우리 나라의 힘을 기르고 있는 것이란다.”

대통령 각하께서도 “우리가 남북통일을 하려면 경제 발전은 물론 자주국방으로 힘을 기르자는 의견을 말씀하시고 계시단다. 여러분도 이러한 것을 알고 꾸준히 노력하여 우리 나라의 부강에 보탬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아무 말도 없이 조용히 있었다.

<우수작>

달님이 들은 기도

배 향 란

(강원 정선 여량)

세상이 흰눈으로 덮혀 땅거미가 지기 시작할 때 오늘도 달님은 여느때와 마찬가지로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나 다 좋은 경치이며 귀엽게 자라는 어린이가 있는데 항상 가기 싫은 곳이 있

으니 그곳은 쳐다 보지 않고 부지런히 뛰어서 지나 가는 곳입니다.

오늘도 이곳을 부지런히 지나가다가 백두산 밑에 이르러 이상한 것을 보았습니다. 전에는 없던 것이 있었습니다. 달님은 “무엇일까?” 호기심에 끌려 내려다 보았습니다. 조그만 여자아이가 꿰어앉아 머리를 들고 두손을 모아 입으로 무어라고 중얼 거리고 있었어요. 눈을 비비고 보던 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땅 위에는 하얀 눈이 쌓여 있는데 소녀는 살이 다 나오도록 떨어진 옷에다 맨발로 꿰어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얼굴을 쳐다본 달님은 더욱 놀랐습니다. 창백한 얼굴이 햇빛을 전혀 보지 못한 사람 같았습니다. 눈이 동그해진 달님은 소녀가 무엇이냐 하나 들으려고 두 손을 귀에 대고 기우렸습니다.

“하나님 불쌍한 저의 어머니를 살려 주세요. 네! 아버지는 탄광에서 일하시다가 굴이 무너져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병들어 누워계신지 두 달이 넘었습니다. 제가 어머니 대신 집단 농장에 가서 일하고 있으나 어머니에게 드릴 약은 물론 배급타는 양식으로 죽을 쑤어먹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제 소원입니다. 꼭 살려주세요.” 말을 마친 소녀의 얼굴에는 눈물이 끝없이 흘러 내렸습니다. 내려다 보고 있던 달님의 눈에도 눈물이 피었습니다.

“고약한놈들 공산당은 왜 죽도록 일을 해서 추수해 놓으면 떼아가? 또 어린애들까지 강제로 노동을 시키고 있어?” 달님의 입에서는 화가난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소녀가 떨고 있는 것을 보니 달님은 자기가 입고 있는 털옷을 벗어주고 싶었습니다.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남쪽으로 향하여 가다가 바닷가 조그마한 마을에 이르러 노래소리가 들려오는 초가집 창문가에 머물

었습니다.

“넓고넓은 바닷가에 오막살이 집한채……” 노래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방안에는 어머니와 여자아이가 화로가에 둘러앉아 노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아이는,

“엄마! 북쪽에 있는 아이들은 지금쯤 무얼하고 있을까?” 하고 말했습니다. 감작스러운 질문에 어머니는 어리둥절했습니다. 한참있다가,

“글세다. 아마 지금쯤 배가 고파 울다가 지쳐서 잘지도 모르겠다.” 먼 허공을 쳐다보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엄마! 하루빨리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래야 북한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텐데……”

조용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엄마! 우리 북한에서 고생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네!”

“그래, 네가 기도해라.”

어머님의 말을 들은 아이는 눈을 꼭 감고 두 손을 모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집은 가난한 집이지만 따스한 방에서 배불리 먹고 자유스럽게 지내고 있습니다. 또 학교에 나가서 재미있게 공부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북쪽에 있는 아이들은 추운데서 고생하고 있다는데 빨리 남북통일이 되어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우리처럼 자유롭게 살게 해주세요……”

아이의 기도를 듣고 있던 달님은 무척 기특한 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소녀의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마음 속으로 빌었습니다.

<우수작>

간첩은 못잡았지만

유 정 립

(충남공주교육대학부속6-3)

지난 봄 방학 때 나는 서울 동작동에 있는 국립묘지에 갔었다.

<육군 중위 김한영 원통리 전사>라고 써 있는 묘에서 아파와
엄마 그리고 나는 두 손을 모아 외삼촌의 명복을 빌었다. 비석의
옆에는 또 하나의 돌 비석이 있었고 그 비석에는 다음과 같이 적
혀 있었다. “그리운 동생 이제 조국을 위에 영원히 잠들으리라.”
엄마는 그 글귀를 보고 눈물을 흘렸으며 나도 울었다.

나는 외삼촌을 까맣게 모른다. 그리고 6.25 동란도 책과 선생님의
말씀으로 듣는 옛날 이야기 같이 느껴졌다. 그런데 외삼촌의
무덤을 보고 또 많은 우리 국군 용사들의 묘를 바라보고 비르소
가슴이 뭉클해지고 공산당이 참으로 알미웠다.

우리 외삼촌을 죽인 공산 오랑캐, 외삼촌이 지금 살아 계시다면
나를 얼마나 귀여워 해주실까!

개나리 꽃이 향기로운 국립묘지의 뜰 앞에서 나는 지긋이 눈을
감고 <외삼촌> 하고 불러 보았다. 그러나 대답도 없는 고요한
오후의 시간에 어디서 들려오는지 서글픈 나팔 소리만 유난이 컸
전을 울렸다. 그 순간 나는 두 주먹을 쥐고 <내가 꼭 외삼촌의
원수를 갚겠다>고 외쳤다.

서울에서 내려온 며칠 후였다. 선생님으로 부터 공산 오랑캐의
만행과 이복 피뢰 간첩의 이야기를 해주시고 수상한 사람이 있으
면 파출소에 신고하라고 말씀 하시였다.

그러던 어느날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이상한 사람이 어

깨에서 카메라를 벗어 들고 <공주 고등학교> 정문에서 기웃거리더니 사진기를 눈앞에 대고 셔터를 누르더니 다시 기웃거린다. 나는 나도 모르게 이제됐다. <저 사람이 바로 간첩이다> 하면서 두 주먹을 쥐어 흔들며 파출소에 뛰어갔다.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 파출소 순경 아저씨들의 손에 잡혔을 때 그는 깔깔거리고 웃으며 “응 네가 나를 유난이 바라보더니 간첩으로 보았구나”하면서 신분증을 내 보였다. 그는 서울에서 온 <고적 연구가>로 고등학교 뜰에 있는 나무가 신기하여 촬영중이라고 말하였다. 순경도 웃고 그도 또한번 웃으며 “참 귀여운 꼬마구나. 그래야지 수상한 사람이 있으면 신고해야지”하면서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렇게 해서 간첩은 못잡았지만 나는 아빠하고 약속을 했다.

첫째로 일찍 일어나기 운동을 했다. 건강한 어린이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친구와 이웃을 돕기 위해 비를 들고 이웃 마당까지 쓸었다.

둘째로 저금을 많이 하기로 했다. 나는 누구보다도 만화를 잘 보는 편이었다. 그러나 서울에서 내려온 다음날 부터 돈만 모으면 저금을 했다. 내가 바친 돈이 나도 살찌게 하고 나라도 그 돈으로 공산당을 무찌를 수 있는 힘이 된다고 생각할 때 참으로 기뻐다.

세째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군경 아저씨를 도와 하루 속히 공산당을 없애기 위해 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월남에서 싸우는 아저씨에게 많은 위문품을 보내기로 마음 먹었다.

<우수작>

우리의 숙제

안 말 심

(전남 북포 중앙4-6)

숙제라는 것은 학교에서 “이것을 집에가서 하여라” 하고 내주는 문제만이 숙제가 아닙니다.

공부를 잘해서 훌륭한 나라의 일군이 되는 것도 숙제며 국토를 통일시키는 것도 우리들의 커다란 하나의 숙제입니다.

우리 나라는 지금 한 민족이 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휴전선이란 철조망으로...

이 삼팔선과 김일성은 우리 민족의 적이며 나라의 원수, 또한 국민의 원수입니다.

이 원수를 쳐부수고 헐벗고 굶주리는 북한 동포들을 구해서 국토를 통일하는 것도 아주 커다란 문제입니다.

이 일을 해결 못하시고 돌아가신 조상님의 뜻을 우리 자손들이 슬기를 모아 해결해야 합니다.

만약 영영 이 나라 삼천리의 국토를 통일하지 못하고 같은 피를 가진 한 민족끼리 적이되어 피를 흘린다면.....

· 아! 그것은 참으로 슬픈일입니다.

우리는 앞날을 생각해서 협동심을 기르고 우리 어린이들은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착하고 씩씩하며 공부도 잘하는 어린이가 되어 이 나라를 짊어지고 일하는 훌륭한 일군이어서되어 북한 피뢰 공산당을 무찔러 없애고 국토를 통일하는 문제를 해결한다면 민족의 희망은 얼마나 부풀어 오르고 또한 기쁨이야 말로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꿈을 가슴에 지니고 나라의 땅, 국토를 통일 해야겠

다는 신념으로 모두들 자기 할 일과 책임을 다해 충실이 일하는 민족의 슬기와 지혜를 모아서 이 나라를 더욱 건설하며 빛내도록 창조하고, 우리의 숙제를 빛내도록 해야겠습니다.

<우수작>

통 일

유 지 훈

(경북 대구 삼영4-6)

‘땡’ ‘땡’ ‘땡’

다음시간은 특활시간이다.

선생님께서 오늘 특활시간에는 재미있는 이야기나 수수께끼를 하겠다고 하셨다. 아이들은 “야”하며 좋아서 떠들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나와서 재미있는 수수께끼나 이야기를 하였다.

어려운 수수께끼가 나오면 꼼꼼히 생각해 보고 재미있는 이야기는 귀담아 들었다.

끝으로 선생님 차례이다.

선생님께서서는 수수께끼를 하겠다고 하시며 문득 이런 수수께끼를 내셨다.

“그대로 두면 두 개, 없애버리면 하나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시는 것이다.

아이들은 모두 꼼꼼히 생각해 보았다. 시간이 흘러도 답이 나오지 않자 선생님께서서는 우리 나라에 대한 일 이라는 힌트를 주셨다.

그러자 저쪽 분단에 있던 병철이가 손을 번쩍 들었다.

선생님께서 답을 말해보라고 하셨을 때 병철이는 ‘휴전선’이라고 말했다.

선생님께서

“맞았어요 우리 나라에 있는 휴전선을 없애면 우리 나라는 한 나라로 통일이 되고 그 휴전선을 그대로 두면 우리 나라는 남한과 북한의 두 쪽으로 갈라진 채 영영 통일이 될 수 없습니다”라고 하셨다. 선생님 말씀을 듣고 나는 하루바삐 우리 나라가 통일이 되어 백두산 꼭대기에 태극기를 꽂는 날이 와야겠다고 생각하였다.

<우수작>

그리운 얼굴

김 혜 정

(경북대구경북사대부속4-3)

우리 아버지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바쁘시고 어머니도 집안 일로 또한 바쁘시다. 이런 때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계시더라도 우리와 같이 놀아 주실텐데, 나에게서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계시지 않는다. 아니 계시지 않는게 아니라 지금은 북한땅 어느 곳에서 우리를 그리며 살아 계시는지 아니면 쓸쓸히 돌아가셨는지도 모른다.

우리 아버지는 6.25때 월남하셨기 때문에 나는 우리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얼굴도 모른다. 다만 제사를 지내는 것을 보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생각할 뿐이다.

오늘도 저 푸른 북쪽 하늘 아래 외로이 사시거나 아니면 돌아가신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생각해 본다.

지금까지 살아 계신다면 80이 넘었을 할아버지와 할머니.

내가 보고 싶듯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우리를 몹시 보고 싶어 하시겠지.

한번도 뵈지도 못했지만 언제나 보고싶은 그리운 얼굴.

이날 이때까지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부르는 손녀의 소리 한번 못듣고 돌아가셔야만 했던 불쌍한 할머니와 할아버지 만약 돌아가시지 않으셨드래도 자식, 손녀를 그리워 하며 죽음만 기다리셔야 하는 그립고 착한 분 할머니와 할아버지. 왜 이분들은 그리운 얼굴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셔야만 한단 말인가!

부모와 자식, 할아버지와 손녀의 사이에 크나 큰 담을 쌓은 것은 누구란 말인가!

그러니까 작년 가을 때의 제삿날이었다. 나와 언니는 음식에 정신이 쏠려 할아버지와 할머니 생각은 하지도 않았다. 제사가 시작되어 절을 할 때였다. 아버지 얼굴을 보니 무척 침울했다.

제삿날이면 흔히 이런 얼굴을 하셔도 별로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날 만은 아버지께서 왜 그러시는지 생각해 보았다. 그 이유는 할머니 할아버지 때문이다. 살아 계신지 돌아가셨는지도 모르는 부모의 제사를 지내야 하는 아버지의 울적한 마음, 나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제사가 끝나자 아버지께서는 곧 우리에게 웃으셨지만 나는 아버지의 침울한 얼굴이 잊혀지지 않았다. 아버지의 마음을 울린 것, 푸른 복한 하늘 아래의 자유를 없앤 것이 다 누구의 소행이란 말인가!

공산당!

이 공산당만 없었더라면 이렇게 비극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행복하게 지내는 이 순간에도 복귀는 죄 없는 복한 동포들의 자유를 빼앗고 있을 것이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만 해도 그렇

다. 만약 두 분이 돌아 가셨다면 그 무덤의 풀 한 포기 누가 뽑아
준단 말인가!

북괴 때문에 생긴 이 슬픈 일!

지금도 저 북쪽 하늘 아래는 불쌍한 북한 동포들이 자유의 손
길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우리들은 불쌍한 북한 동포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뻗히기 위해 하루 바삐 공산당을 없애고 통일을
하여야겠다. 저 푸른 북한 하늘아!

그 순간 까지만 이라도 그렇고 착한 동포들에게 희망을 전해다
오!

“이제 곧 자유의 손길은 북한땅 끝까지 떨어갈 것이다”
라고.

한 식 날

백 기 응
(경기 인천 산곡5학년)

지난 4월 5일 식목일이었습니다. 식목일 이지만, 학교에도 가
지 않고, 또 심을 나무도 없어, 쉬게 되는 기분좋은 공휴일이 되
었습니다.

아버지께서도, 이 날은 직장에 나가시지 않고 하여, 온집안 식구
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날이기도 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외출하실 생각도 없으신지, 신문만 열심히 읽고
계셨습니다.

그때, 어느 손님이 찾아 오셨습니다.

그때 밖에서 놀던 동생이 뛰어 들어오며,



“아버지 손님 오셨어요”하며 아버지께 달려 들었습니다.
 문밖을 나가시던 아버지께서는,
 “아유! 뭘어쩔 일이셔 잘오셨시다. 그렇지 않아도 심심해 하던
 참인데...” 하시며 무척 반가우신듯 아버지께서는 손님을 방으로
 모셨습니다.

나는 그 손님에게 공손히 인사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저씨께서는 “오! 미남이구나. 공부도 잘 하겠는데 몇학년이지?” 하시며 여러가지를 물으셨습니다.

그 손님은 전에 같은 직장에서 일하시던 아버지 친구분이셨습니다.

두 분은 무척 반가우신듯 이야기 꽃을 피웠습니다.

아저씨께서

내일 한식날은 시골에 있는 어머니 산소에 성묘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아저씨 말씀에 아버지께서는,

“나는 통일이 되어야 성묘를 가겠으니……”하시면서

“통일이 되어 고향에 가면 산소가 그대로 있을까?” 하시는 한숨 섞인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고향은 황해도 해주랍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산소가 북녘 땅에 있다는 것을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두분의 말씀을 듣고 ‘통일’이 그리워 졌습니다. 그리고 가보지 못한 북녘 땅의 ‘내고향’이 그리워 졌습니다. 같은 민족끼리 남과 북으로 갈리어서 부모 형제가 서로 헤어져 살아야만 되는 이 딱한 일은 누구의 죄일까요?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할 공산당 늑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김일성 괴수 하나로 말미암아 북한의 많은 동포들이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어요.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어요.

그래요. 이 겨레 살리는 길은 오직 통일 뿐입니다.

나는 ‘통일의 길이 무엇일까?’하고 혼자 곰곰 생각해 보는 때도 있었습니다.

‘힘이다, 승공의 힘’ 이렇게 다짐하며 두 주먹을 불끈 쥐어 보았습니다.

우리 어린이는 튼튼한 몸으로 공부 열심히 하여 장차 이 나라의 훌륭한 일꾼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국민이 맡은 일을 잘 하면 이 나라는 살기좋은 나라, 부강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더욱 부강해 지는 날 휴전선은 없어지고 삼천 리 강산에 태극기가 휘날릴 것입니다.

통일이 되면 그림던 고향 찾아가 할머니 산소에 허리가 아프도록 절을 하고 싶습니다.

<우수작>

영원한 자유를 위해

엄 영 배

(서울광희6-16)

우리 6학년은 요새 사회에서 우리 조상들의 빛난 일을 배우고 있다.

고조선시대 부터 조선시대 까지 우리 조상들은 우리의 국토를 더 넓히기 위해 피땀을 흘리시고 갖은 고생을 다했다.

그런데 그토록 애써 넓힌 우리의 땅을 못된 공산당들이 1/2씩이나 차지하고 있으니 조상들을 뵈면 면목이 없어진다.

그러므로 우리 국민이 단결하여 못된 공산당들을 우리 땅에서 내쫓고 우리의 옛땅을 다시 찾아야겠다.

지금도 북녘 어느 곳에서 나쁜 공산당들 때문에 몸과 마음을 시달리고 있는 불쌍한 우리 동포들이 많을 것이다.

자유가 뭔지 모르고 “죽기 아니면 일하기다.”

라고 생각하면서 일하는 우리 동포들이 눈앞에 선하다.

우리들이 좀더 공산당을 미워하는 승공사상을 가지면 아무리 지독한 공산당이라도 기세가 꺾어질 것이다.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반공도덕시간에 가끔 이런 말씀을 꺼내신다.

“우리 뒤에는 국군아저씨, 향토예비군 아저씨, 그리고 승공 사상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몸과 마음을 튼튼히 하고 공부만 열심히 하면 북녘의 죽음의 훈련을 하고 있는 어린이들을 이기는 것이다”라고…… 그리고 나는 김신조 아저씨께서 쓰신 ‘자유는 나의 영원한 강’이란 책을 읽었다.

그 책을 읽고 밤에 잠이 안왔다.

처음 들어본 이상한 훈련…… 그 훈련 속엔 죽은지 며칠 안되는 사람이 문힌 무덤을 파고 그 시체를 꺼내 아무도 모르는 곳에다 버리고 자기가 대신 그 무덤 속에 들어가 밤을 새우는 것등 말로는 표현 못할 몸서리 쳐지는 훈련들 때문에 수천명이 희생을 당했다고 한다.

어서 어서 우리 국민이 단결해서 다시는 그런 쓸데없는 훈련들과 쉬지않고 일을 하다가 죽어간 동포들이 더 생기기 전에 공산당을 무찌르도록 해야겠다.

그리고 라디오나 텔레비전, 신문등에서 요즈음 우리 나라가 할창 발전하고 또 경비도 심하고 해서 감히 우리 나라를 못쳐들어 온다고 한다.

그러므로 좀더 우리 나라를 발전시켜 선진국을 따라가게 된다면 북한괴뢰는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에 굴복하게 될 것이며 우리 땅에서 영원히 공산당이란 악당들의 뿌리는 없어지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영원한 자유를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어서 단결해서 자유의 손길을 기다리는 북한동포들을 구해주도록 있는 힘을 다 기울이자.

갈라진 대한민국

박 종 원

(서울 은석 5-1)

“북한 동포 여러분, 오늘도…”

오늘도 북한 동포들에게 보내는 방송이 시작되었다.

그때마다 나는 가끔 생각에 잠긴다.

‘북한 동포들은 얼마나 고생이 많을까? 텔레비전에서 자수한 간첩이 하는 말을 들으면, 노인과 어린이들까지 사정없이 노동을 시킨다던데! 그 뿐만 아니라 늦게까지 죽도록 일을 시키고, 무엇이 부족한지 밤에는 쉬지도 못하게 여러가지 회의를 연다니, 정말 공산당들은 눈물도 인정도 없는 것일까?’

공산당! 북한 동포!……

공산당! 북한 동포!

아무리 생각하도 공산당들은 사람이 아닌 것 같다.

‘북한에는 지하 자원도 많다는데, 혹시 중공에서 다 캐가지나 않았을까?……’

또 아시아에서 제일 큰 수풍 수력 발전소도 있다던데! 혹시 부수지나 않았을까?……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금강산도 있다던데! 어떻게 되었을까? 그래도 설마 양심이 있겠지! 아나 공산당들은 피 눈물도 없이 사람들을 마음대로 합부로 죽이기까지 한다던데!……

정말 답답하기만 하다.

나는 형에게

“형 우리는 왜 갈라진 이 조국을 다시 통일시키지 못하는 거야.

쳐들어 가서 통일을 시키면 되잖아”

하고 물으면, 형은,

“아직은 안된다. 우리 나라가 더욱 더 발전하여 더 잘살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을 합해서 일해야 한다”

라고 말하고는 더 말이 없었다.

이 말을 들은 나는 깊은 생각에 잠기었다.

‘나는 현재 공산당한테 이길 힘을 기르고 있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니, 지금까지 게으름만, 부리고,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은 것이 후회가 된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부지런 해져야 겠고, 열심히 공부해야 겠다고 생각되어, 매일 매일 한 일을 저녁에 반성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생활 일기장’이라고 쓴 나의 일기장을 ‘통일 일기장’이라고 이름을 바꾸었다. 나의 하루는 통일 할 수 있는 대한 국민으로써 부끄럼이 없는 나날이 되어야 겠다고, 생각하여 다음과 같이 일기를 썼다.

4월 16일 (금)

오늘은 우리 학교의 개교 기념일이다.

학교를 쉬게 되니, 여간 기쁘지 않았다. 나는 친구들과 어울려 밖에서 하루 종일 놀기만 했다. 집에 돌아오니, 내일 가져갈 숙제 걱정이 되었다. 몸이 노곤한게 공부하기가 싫었다.

그러나 안해 갈 수는 없어 몇 문제를 아무렇게나 해 나가다가, 문득 ‘통일 일기장’ 생각이 났다.

‘내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북한 동포를 구해 낼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을까? 만약 다른 친구들도 나와같이 게으름만 부리고, 있으며 어떻게 하나?’ 하고 생각을 하니,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나는 북한 동포를 머리에 그리며, 정성껏 숙제를 끝마쳤다.

<우수작>

국 토 통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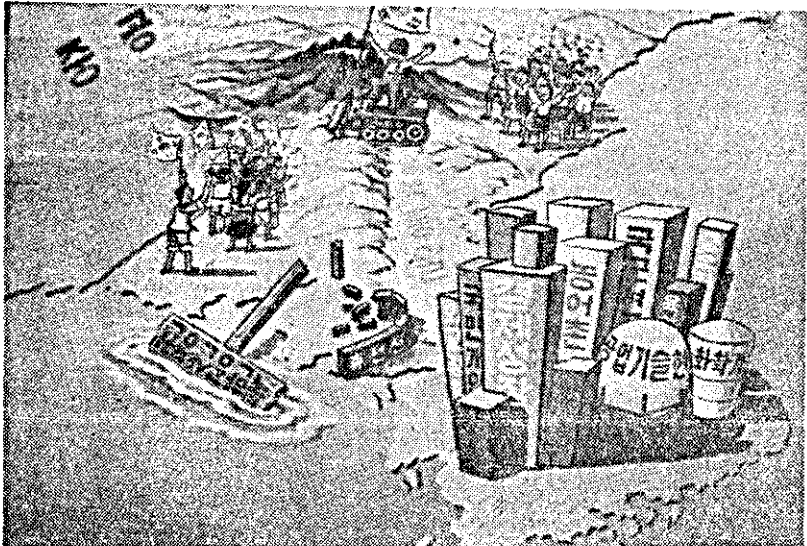
채 동 진

(서울용강 6-2)

통일은 우리의 숙원입니다. 우리의 가슴속에는 누구나 다 같이 바라고 있는 큰 생각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통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통일이 어서 오라고 노래도 부르며 꿈도 꾸어 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 생전에는 통일이 오지 못할 거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러나 저는 학교에서 우리 민족은 즐기차고 굳센 민족이라고 배웠습니다. 옛날에도 우리 민족이 갈라져서 서로 싸운 일이 있지만 결국 ‘삼국통일’이라는 위대한 일을 했던 우리 조상의 피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뿜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민족이 갈라져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공산당들



의 헛된 야욕 때문입니다. 통일이 어렵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아마 공산당들이 전쟁준비를 많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겠지요. 옛부터 금수강산이라 일컬어 오고 있는 삼천리 강산을 두더지같이 파헤쳐 땅굴을 파고 전쟁 준비에 눈이 뒤집힌 김일성 악당들을 생각할 때, 통일이 어렵다고 생각할만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우리 박대통령께서는 통일에 대한 신념을 발표하신 뒤에 국토통일원을 설치하여 좋은 생각을 널리 연구하게 하셨으며 우리가 북피에게 이기는 길은 우리의 발전과 부흥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먼저 힘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힘은 어디서 생기는 것입니까? 먼저 마음이 뭉쳐야 합니다.

‘우리는 자유속에서 살고 있으니 됐다’는 생각에서, 불쌍한 북한 동포를 구출해야 한다는 생각을 한 시도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번영을 향하여 달리고 있을 때 우리의 생각이 각각 흩어져 그저 자기만이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하겠습니다. 보다 큰 통일의 앞날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은 한결 단단히 뭉쳐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공산당들의 허위 선전과 은갖 수단을 물리쳐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간첩이나 허위선전이 발붙일 곳을 없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노력없이 가만히 앉아서 누가 통일을 시켜주리라는 생각을 버려야 하겠습니다. 내가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는 것도 통일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착한 일을 하는 것도 통일을 위한 것입니다. 나무 한 그루 정성껏 심는 것도 통일을 위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의 주위에 통일을 위한 일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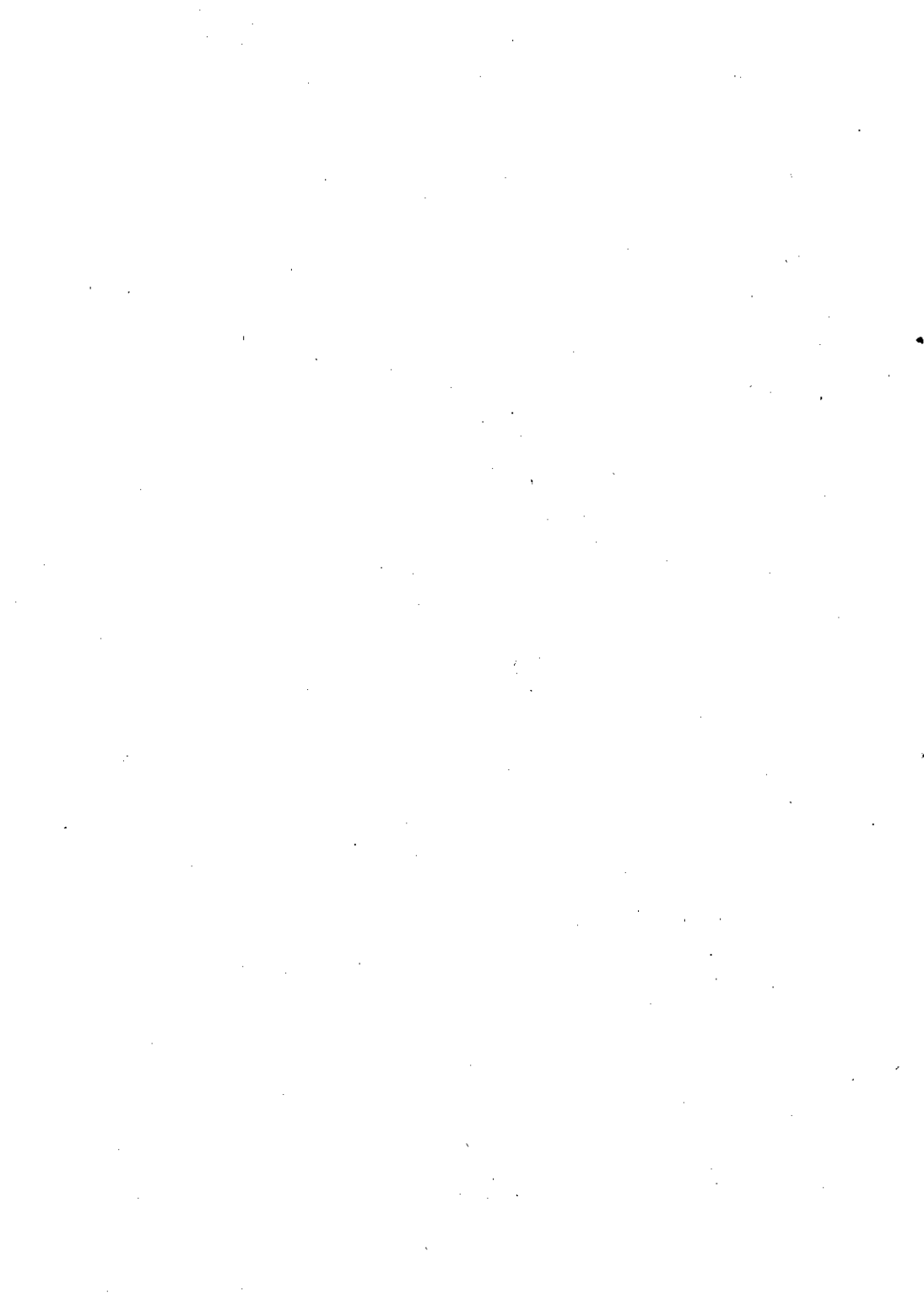
지금 우리 나라는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발전이 잠시라도 멈추어서는 안됩니다. 이 발전은 통일에 길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매일 국민교육헌장을 배웁니다. 이 정신을 잘 받들어 열심히 공부한다면 통일의 날도 머지않을 줄로 생각합니다. 노력없이 무엇을 얻을려고 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겠지요.

우리 조상들은 우리의 강토를 지키시기에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잠시도 감사한 마음을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은 너무나 큼니다. 우리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힘을 길러 공산당들의 흉계를 부수고 그들의 침략적인 야욕에 맞서 그것을 이겨내야 합니다.

박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중단없는 노력”이란 말의 뜻을 생각할수록 우리의 가슴속엔 굳은 결심과 희망이 벅칩니다.

나는 지금 국민학교 6학년입니다. 이 조그만 주먹을 불끈 쥐어 봅니다. 이 주먹은 그리 힘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민족 각자가 다 한 마음으로 뭉치다면 그 힘이야말로 엄청나리라 믿습니다. 이 조그만 주먹 속에는 김유신 장군의 용감하신 정신이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강토를 지키는 우리 겨레의 마음을 국토통일의 사업에 통일시켜 끊임없이 노력하는 우리의 앞날에 통일의 영광된 날은 머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중등부 글짓기>

심사평

글짓기는 논문과는 달라 지은 이의 생활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현상 모집이 요구하는 내용을 글짓기로 쓰기란 애당초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 그런지, 본선에 오른 20편 가운데에 그래도 글짓기로 볼 수 있는 것은 단 한 편이요, 소설이 한 편, 나머지는 거의가 논문이요, 논문에 가까운 것이었다. 엄격히 보아 주제의 성질로 따지면 소설이나 논문은 마땅히 제외되어야 옳는데, 그런 것이 대부분이고 보면 인색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내용은 한결같이 우리의 칠락사를 시대적으로 고찰한 다음 사변을 도발한 북괴의 잔학상과 북한에의 참상을 비판하는 데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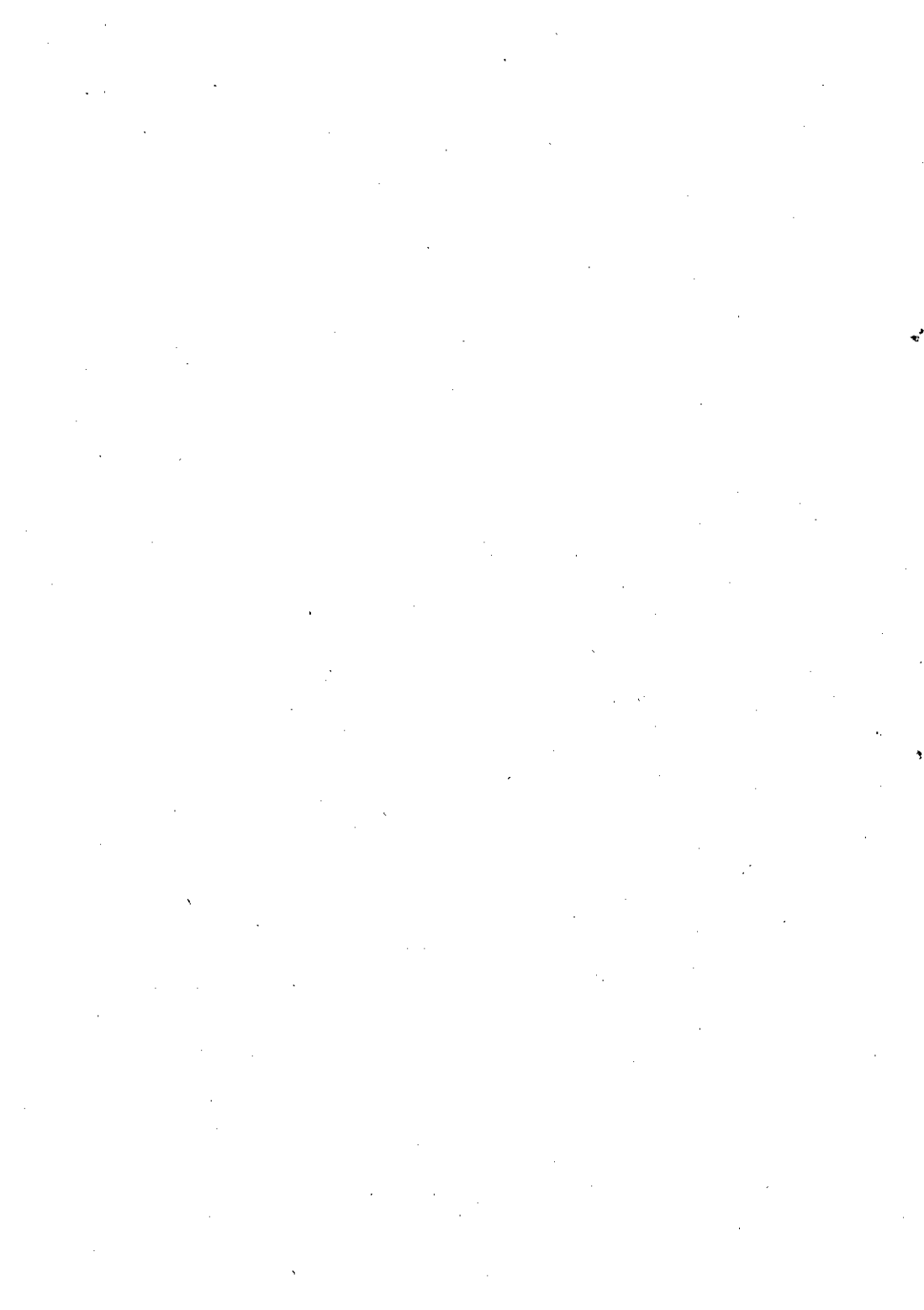
그런 중에서 그래도 글짓기에 가깝고, 요구한 내용을 조금이라도 반영한 것으로 뽑기로 했다. 1등으로 차지한 <경희와 태극기>(강선민)는 월남해 온 경희네를 측은히 여기고 너무도 어린 행동이지만, 산에 간김에 공비를 잡으려 한 것과 경희와 함께 태극기를 만들어 이북으로 띄워 보내기로 한 생각등이 통일을 염원하는 간절한 자세라고 보아진다.

1등으로 뽑은 <국토 통일과 민족 중흥>(장영주)은 통일에 대해 깊은 생각과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온 국민이 사치와 낭비를 물리쳐야 한다는 비판과 다짐을 이도정연하게 전개 하였다.

<승공은 민주 통일의 길>(유용진)은 공산주의를 비판하고 경제와 국방력을 대비한 후에, 승공으로 통일할 것을 설득력 있게 외쳤다.

<스승이 된 오빠>(장 춘지)는 애국이 무엇인가 하는 의문을 오빠에게 물어 비로서 시원이 알게 되는 생활 과정을 약간 조각스런 듯한 흡은 있으나 별 무리 없이 나타냈다.

3등으로 뽑은 다섯 편은 자유 수호의 역사적 고찰과 공산주의 비판, 국민 총 단결, 경제개발, 국력 배양 등으로 웅변조 연설조로 주장하여 뒤로 돌릴 수 밖에 없었다.



경희와 태극기

강 선 민

(송의여중 2-4)

2월말이 되었습니다. 우수, 경칩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곧 돌아옵니다.

요사이의 제법 봄의 입김이 대지를 누릅니다. 애들은 즐거워 떠들어대며 봄을 이야기합니다. 수업 시간이 끝난 후 쉬는 시간입니다. 그렇게도 말광량이었던 나는 지금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아니, 그냥 앉아 있는게 아니라,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나의 친구 경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의 가름한 얼굴은 슬픔에 젖어 있었고, 그의 눈은 눈물이 금방 쏟아져 나올 것만 같습니다. 그를 쳐다 보고 있는 나도 전연되듯 슬퍼집니다. 경희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고 그의 슬픔을 내가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경희와 나는 종례가 끝난 후 같이 걸었습니다. 우리들은 서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장충단 공원 앞에 이르렀습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군 고구마 장사를 하는 경희 어머니가 계신 앞까지 왔습니다. 언제나 힘이 없는 그분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집은 약수등이기 때문에 나는 늘 그 앞을 지납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그분이 불쌍하게 생각됩니다. 철이 들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정말 안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 × ×

지금부터 20년전 1·4후퇴 때 평남 진남포에서 단란한 생활을 하던 경희 어머니는 두 아들의 손을 잡고 먼저 내려간 남편의 뒤를 따라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많은 인파와 피난민 대열 속에서 그분은 두 아들을 삼팔선 넘기 전에 잃어버렸습니다. 물어보았자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그후 평화가 왔습니다. 그렇게도 바라던 자유이전만 경희 어머니에게는 슬픔만이 가슴을 메웠습니다. 휴전 이후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경희를 낳고 1년이 되었을 때입니다. 경희 아버지께서는 이복에 남아 강제노동에 시달리며 살아갈 두 아들, 경희의 오빠를 못잊어 매일 슬픔에 잠겨있다가 먼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갓난 아이인 경희를 안고 경희 어머니는 오늘날까지 갖은 고생을 하며 살아 왔습니다. 그 동안 경희는 이만큼 자란 것입니다. 지금은 자기 어머니의 비탄을 이해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녀의 명랑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머니의 슬픔속에 빠져 들어가 자꾸 어머니를 닮아갑니다. 이젠 어른이 되어서 의젓하고 다정해 지셨을 두 오빠들이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그리운 고향에 가고 싶은 마음도 경희 어머니의 마음을 항상 슬프게 하는

요소입니다. 가난한 군고구마 장사를 하면서도 경희를 중학교에 보내고 있는 그분의 의지는 강합니다. 그렇지만 고향과 아들을 원하는 마음은 항상 피로움에 젖어 있고, 어머니를 따르는 경희도 언제나 어머니처럼 외로워져 있습니다. 금년 겨울 한 필화 언니와 그의 오빠 한 필성씨가 20년만에 자기의 친동생을 만나기 위해 삼쁘로에 갔을 때, 모든 신문은 이것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이때 경희 어머니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득었습니다. 금방 자기 일이나 된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도 그리던 상면을 못했을 때, 그분의 얼굴은 실망과 비참으로 저그러 들었습니다.

그후 그분은 항상 북쪽 하늘을 향하여 두 손 모아 기도를 올립니다. 목메도록 통일을 외치고 기원합니다. 미친 듯이 통일을 바라는 그분의 모습은 처량합니다.

그리고 한가한 시간에는 대동강 푸른물 이야기를 합니다. 연광정, 을밀대, 부벽루 등의 평양 명소를 자랑할 때는, 그분의 얼굴은 만족한 미소로 가득합니다. 경희는 어머니의 심정을 이제 훤히 알게 되었습니다. 어서 빨리 고향에 가고 싶었습니다. 통일을 열망하게 되었습니다. 나도 경희와 같은 심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위해서 노력하자고 약속했습니다.

통일은 경희나 경희 어머니를 위해서 필요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북에서 독제의 쇠사슬 밑에서 고생하는 같은 동포들에게 자유의 깃발을 부여 해주는 뜻에서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나라는 경제 발전과 산업 부흥이 성취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어서 잘사는 나라가 되어서 공산주의 치하에서 신음하는 동포가 저절로 자유 대만에 흡수되는 날이 와야겠습니다. 그날

남북통일이 이룩되는 날, 우리 국민은 얼마나 기쁨에 들뜨겠습니까?

× × ×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아침부터 나는 서둘러서 경희와 함께 교회에 갔습니다. 평화스런 분위기 속에서 예배를 보았습니다. 찬송가도 오늘따라 열심히 불렀습니다. 우리들의 노래소리가 이북에까지 메아리 치도록 힘주어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북 동포들을 생각했습니다. 종교의 자유마저 잃어버린 채 학대 당하고 있는 이북 동포들, 얼마나 가슴아픈 일입니까? 지금 어느 하늘아래선가 경희의 오빠들도 독제의 마수에서 신음하고 있겠지요. 기도드리는 사이 나는 옆눈으로 경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기도드리는 그의 모습은 정말 거룩하였습니다. 나는 어서어서 남북통일이 되어 경희 모녀를 이북땅 그들이 그리워하는 고향에 보내어 가족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내 마음은 하늘을 나는 것같이 가벼워 질 것입니다. 예배가 끝나자 우리는 같이 걸어서 경희 어머니가 계신 장충단 공원 앞까지 왔습니다. 오면서 경희는 나에게 어젯밤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꿈에서는 통일이 되고 백두산, 묘향산, 구월산 등에 태극기가 날리더랍니다. 압록강, 두만강 물 위에서는 애국가 소리가 드높고 평양 중심가 거리 한복판에 김 일성의 초상화가 수없이 쌓여 불에 타고 있더랍니다. 그 옆에서는 꿈에도 그리던 오빠와 자기와 어머니가 서로 껴안고 기쁨 울고 있더랍니다. 소녀가 얼마나 통일을 염원했으면 이러한 꿈을 꾸었겠습니까?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저의 가슴에도 통일을 그리는 마음이 폭포수처럼 질어 왔습니다.

어느덧 우리의 걸음은 장충단 숲속까지 닿았습니다. 갑자기 국

가와 민족의 장래를 파괴하는 간첩을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똑같이 들었습니다. 산속에는 혹시 수상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열심히 산을 뒤졌습니다. 오직 조그마한 소녀의 힘이나마 조국에 바쳐야 한다는 일념으로 한 시간 이상을 돌아다녔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허탕을 쳤습니다. 우리는 마주 보고 오랫동안 시원스럽게 웃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면서 우리들 각자의 가슴 속에는 통일을 위한 어떤 결의가 따로따로 준비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경희 어머니를 모시고 다른 때보다 일찍 경희네 집에 돌아왔습니다. 우리들은 경희네 집에서 가장 소중히 보관되어 있는 태극기를 꺼냈습니다. 내일은 삼일절입니다. 우리들은 태극기를 고이 피서 방 한가운데에 펼쳐 놓았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자세로 무릎을 꿇고, 뺨들려 앉았습니다.

고개를 숙었습니다. 대한 독립만세와 남북 통일 만세를 가슴깊이 외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떠한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난경을 무릅쓰고 조국과 통일을 위해서 이로운 일이라면 우리 어린 여자들의 힘일망정 힘껏 보태어 보자고 맹세했습니다. 이윽고 태극기를 소중히 접어 상자속 속에 담아 놓았습니다. 이북에서는 태극기를 볼 수 없다는 이야기를 내가 꺼냈습니다. 국가를 상징하는 국기가 하나도 없는 이북땅을 생각했습니다. 이북 동포들의 마음에 애국하는 마음과 자유를 심어 주려면 우선 푸른 창공에 태극기가 휘날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늘에 태극기가 휘날릴 때 동포들의 머리에는 통일을 향한 자유를 위한 의지가 불탈 것입니다. 우리들의 의견은 금방 일치되었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통한 것입니다. 내가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모두 찬성하여 쉽게 결정을 보았습니다. 지금부터 돈을 푼푼이 모아서 태극기를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국기를 수없이 만들어 이북 동포들에게 보내주어

그들의 애국심을 길러주어 보자는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태극기가 이북 방방곡곡에서 기운차게 휘날린다면 이북 동포들의 마음속에는 울연히 통일을 향한 뜻이 커질 것이고, 자유대한의 품에 안기고 싶은 마음이 무섭게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선 처음으로 이러한 운동으로 조국에 봉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경희 어머니의 얼굴에는 또 한번의 미소가 어렸읍니다. 공부하는 틈틈이 태극기를 열심히 만들기로 약속하고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나의 발길은 무척이나 가벼웠읍니다. 내 입에서는 어느 사이엔지 애국가와 통일의 노래가 흘러 나왔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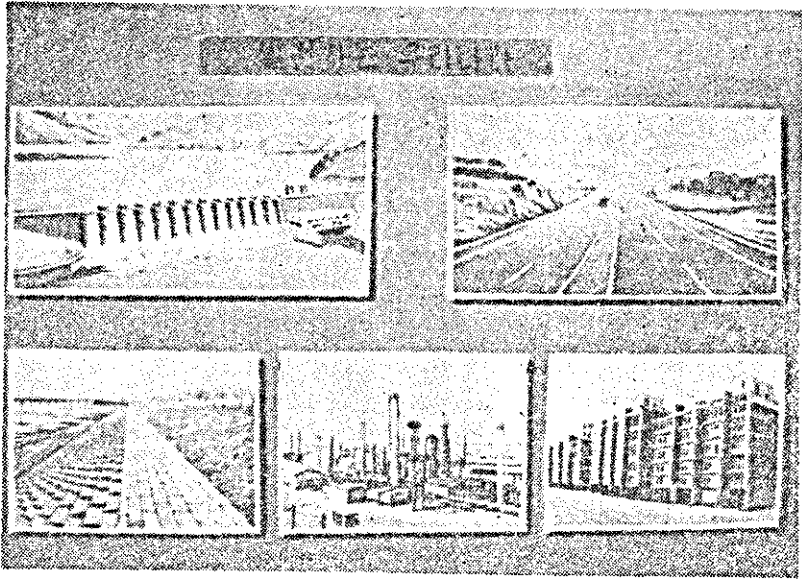
<우수작>

국토통일과 민족중흥

장 영 주

(서울 성암여중 3의 교반)

우리 나라는 지금 국토통일과 민족중흥을 부르짖고 있으며, 조국 근대화를 위해 온 국민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옛 조상들이 알뜰히 닦아 쌓아놓은 찬란한 대한의 문화를, 조금만 더 계속 노력하고 협력해서 더욱 빛나는 문화를 이룩하였다면 조국근대화니, 민족 중흥을 기령게도 애타게 부르짖지 않아도 될 것을 민족 중흥! 네 글자. 이 네 글자와 국토 통일이라는 네 글자와는 결합이 될 것입니다. 민족 중흥이 하루 바빠 이루어지려면 이 좁은 모든 조건이 결핍된 이 땅에서만은 어려울 것입니다. 어서 국토통일이 되어 원만한 조건하에서 온 국민이 피와 땀으로, 기필코 민족 중흥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또 국토통



일이 되려면 민족 중흥이 이루어져야만 되겠습니다. 아름답고 넓은 땅에서, 빈틈같이 실속이 없다면 오히려 지금의 이 지경이 더 나을는지 모릅니다. 슬기로운 보금자리에서, 손잡고 일어나온 세계의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조상들이 다 못이루고 가신 뜻을 우리들이 완성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피를 흘리며 옛날들이 지킨 우리 강산, 조국을 더욱 보람차게 할 것입니다.

지금 세계 여러 나라는 놀랄도록 발전하였으며, 오늘도 쉬지않고 자라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가 이를 악물고 조국의 근대화를 이루어 놓았을 시기에는 벌써, 저 선진국들은 지금보다 더욱 더 성장하고 발전하였을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며,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 1만큼 노력하면 우리들은 그것의 2배 3배까지도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나라는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놀랄만

큼 눈부신 발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현상은 기적이 아니라
 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얼마나 많은, 알찬 노력이 깃들여 있겠
 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발달하며 전진하고 있는 때에 ‘다 됐다’
 생각하고 보고만 있다면 정말 큰일인 것입니다. 더욱 더 채찍
 을 가하여 이 조국강산을 빛내고 나아가서는, 세계 자유와 평화
 를 위해 이바지 해야겠습니다. 북괴들은 이 시간에도 전쟁 준비
 에 눈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국민들이야 어찌 되던 상관없다는듯
 이 야만적인 행동을 하고 있으며, 남한까지도 붉은 마수의 손길
 을 뻗히고 있습니다. 이 악독한, 전쟁밖에 모르는 공산주의 악당
 들을 쳐부수고, 그 밑에서 모진 고생을 하며 신음하는 불쌍한 우
 리 동포들을 구해야만 합니다. 어서어서 우리 나라 국민이 결합하
 여 민족 중흥을 이룩하고, 기필코 국토 통일을 해야만 하겠습니
 다. 일부 시민들은 앞으로 장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현재만...’
 ‘나중이야 어떻게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서양 문물에만 젖어
 유행에 빠져 있는 것을 직접 보고 있습니다. 좋은 점은 역시 거
 을 삼아 본받아야 하겠지만 쓸데없는 사치는 버려야겠습니다. 그
 런 유행과 사치는 선진국의 흉내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도 잘 살
 고 부강하게 되면 그런 시절이 올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인 저 미국은 어떻게 기틀을 세웠나를 생
 각하게 됩니다. 비록 역사는 짧지만, 반만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
 는 우리 나라보다 말할 것도 없이 문화 수준도 높고, 또, 세계 최
 교의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정말 부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니다. 부러워 구경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 나라 국민의 좋은 국민성 많이라도 알차게 본 받아야
 하겠습니다. 또, 세계 굴지의 부강한 나라 영국의 예를 보아도,
 세계 대전이 끝나고 나서 온 거리가 쑥밭이 되고 공장 시설과 모

든 기계 문화 시설이 다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국가와 온 국민이 한 덩어리가 되어 불행과 가난을 극복해 나아가고 그러한 처지에서도 다른 나라로 물품을 수출하며 건설하여 지금은 미국 못지 않은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아름답고 순진하고, 소박하며 검소한 또, 끈질긴 무궁화의 전통을 기둥삼아 하루 바삐 국토통일을 이룩하고 줄기 찬 노력으로 민족중흥을 이루어야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일하여 나아가야겠습니다.

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시골의 배우지 못한 사람이면 누구나가 정부 방침에 협력하여 배우고, 또 서로 깨우쳐서 문화 수준을 향상시켜 나아가야겠습니다. 요사이 학생들이 크립을 짜서 '농촌 계몽'을 많이 갑니다. 이러한 현상은 정말로 흐뭇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 목표는 '국민 모두가 다같이 배우고 무식을 일깨워 지식을 높이고, 생활에 도움이 되게 하자!'하는 신념일 것입니다.

우리 북한 동포들은 일에 시달려 제대로 공부할 시간의 여유가 없을 처지일 것입니다. 같은 동포로서 몸속에서 끓어 오르는 분노의 핏줄기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처참한 북한의 현실입니다. 불쌍한 우리 동포의 뭍까지 다 공부하여, 이리베 같은 불은 우리들을 우리 국토에서, 아니 이 지구상에서 몰아 우리의 소원인 통일을 해야겠습니다. 국토통일이 된다면 그 날은 우리 민족에 있어서 가장 기쁜 날이요, 목이 터져라고 만세를 부를 날일 것입니다. 헤어졌던 친지들과 가족들이 만나보아 기쁨의 눈물을 방방곡곡에서 흘릴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뿌듯합니다.

그리고 보면, 국토 통일이 될 날도 머지않았습니다. 국토 통일이 되는 날까지 우리들은 숙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숙제란 남의 것도 아니요, 남을 위한 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요. 우리 나라 국민, 또 나라를 위해서 꼭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 과제가 바로 '민족중흥' 바로 이것입니다.

그 날이 오기까지 통일을 기원하며 힘차게, 줄기차게 일하며 전진, 또 전진을 해야만 합니다. 옛 성인의 말씀에 '일할 수 있는 사람과 일하는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나라 사람이면 누구나 다 행복한 것입니다.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이 나 혼자만을 위한 일이 아니고, 나라를, 민족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더욱 행복하고 보람찬 것입니다. 그러면 열심히 일만 한다고 우리의 과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생활을 보다 검소하게 하고 절약하며, 우리에게 필요없는 사치품은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열심히 일한 대가의 결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경제적으로는 해결이 되었다고 해도 문화적으로 발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 여러나라에서 훌륭한 문화를 수입하며, 우리 나라의 새로운 문화도 수출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문화를 이룩하려면, 모방 아닌 창조만이 뒤를 따라야 합니다. 오직 창조만을 하여 몇몇이 세계 우방 국가에 내놓을 수 있고 또, 우리들 자신이 즐기고 보호해야만 합니다. 국토통일이 되고, 우리들 스스로가 민족 중흥을 이루어 놓게 된다면,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져 우리 나라는 눈부시게 발전할 것입니다.

우리 나라가 잘살게 되면 세계를 위해 또 일해야 하겠습니다. 어서 우리 국민이 세계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나라의 기틀이 잡혀야 함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언젠가는 이루어질 국토 통일과 점차 이루어지고 있는 민족 중흥의 과업을 눈앞에 두고 줄기차게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앞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전 국민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찬란한 민족 문화가 이룩될 희망찬 앞날을 바라보며 전진 또, 전진해야

겠습니다.

<우수작>

승공은 민주통일의 길

유 용 진

(강원 춘천중 2-5)

우리의 평화통일 방안은 북괴가 말하는 거짓 평화통일 방안이 아닌 참된 자유민주 통일을 말하는 것으로, 진정한 민주 정치에 의하여 통일을 성취하는 것이다. 또한 국력을 배양하고 국위를 선양하며 공산 괴뢰의 붉은 침략을 막아야 하며, 세계자유 민주우방국과 같이 평화를 이룩하고 인류의 행복을 증진 시켜야 한다.

무릇 어떤 싸움이건, 그 싸움에서 이기려면 상대방보다 실력이 우수하여야 된다. 공산당과의 싸움에서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우리는 정치, 경제, 국방, 문화, 사회생활등 어느 면에서나 북한 괴뢰와 비교가 안될 만큼 월등한 실력을 길러내어야 한다. 우리에게는 이같이 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 것이다. 문제는 그 조건들을 어떻게 살리느냐에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인류 발전의 역사가 성취한 가장 합리적이며 이상적인 훌륭한 정치 제도이다. 그러기에 오늘 공산주의자들은 가소롭게도 입으로는 민주주의를 열심히 내세우고 민주주의를 가장하려 한다. 그러나, 공산 독재를 원칙으로 하는 공산주의가 민주주의의 적이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 이러한 입으로만 떠드는 가짜 민주주의는 우리의 진짜 민주주의와 싸움을 한다면 우리의 진짜 민주주의가 이길 것은 뻔한 일이다.

하나의 사회가 각 분야에서 최고로 발전하려면 개개인이 그들의 분야에서 자기의 능력과 소질을 발휘하여 그것이 합쳐졌을 때 커다란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소질을 개발하는 것과 공산주의에서 하는, 많은 것만을 좋아하는 강제적 노동, 이 두 가지 문제만을 놓고 보더라도 최후에 가서는 어느쪽이 이길 것인가 하는 것은 뚜렷하다. 또 어느 사회가 참되고 올바르게 국민을 위한 사회인가 하는 것도 뚜렷한 일이다.

우리는 어떻게 이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를 얼마나 훌륭히 발전시켜, 3천만 민족 모두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잘살게 되느냐, 그리고 국민 각자가 다만 주어진 민주주의를 즐기는 데 만족하지 않고, 온 국민이 각각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키는데, 공동 책임을 느끼고, 이에 기여하느냐에 우리 나라의 장래는 달려있는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 국민 스스로가 깨닫는 정도는 날로 높아 가고 있으니 우리의 앞길은 실로 양양할 것이다.

한편 북한에서는 김 일성 일당의 독재와 횡포가 날로 심해가서 곤궁에 빠진 주민의 질식 상태가 극한에 임박해 가고 있다. 근래에 와서 월남 귀순자나 남파 간첩이 자수하는 것은 그 때문인 것이다.

현재 북한 경제를 볼 것 같으면 공산괴뢰들은 인간을 소나 말과 같이 혹사하고, 그 피와 땀으로써 경제, 건설을 서두르지만, 그것이 얼마나 허무하다는 것은, 이미 공산사회 건설 약 반세기의 역사를 가진 소련의 본보기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소련은 슬금슬금 자본주의로 돌아가는 길을 모색하고 있는 형편이다. 공산주의 경제제도의 근본적으로 잘못 된 점은 모든 경제권을 공산당이 독점한 후, 인간의 본성이요, 본능이라 할 수 있는 사유욕을 완전 무시하는 데 있다. 모든 경제권을 공산당

이 특점하여 개인으로서는 사업도 할 수 없게 하고, 모든 국민을 공산당 하나의 기업의 노예, 노동자로 부려먹으며, 무제한 수탈을 계속하고 있다. 이렇 강제적 제도하에서 사람에게 생산 의욕이 날리가 없다. 그래서, 공산 북한에서는 처음에 멋모르고 강제 동원된 소위 천리마 노동자들에 의하여 어느 정도 성과를 올렸지만, 1961년부터 시작한 소위 7개년 경제 계획은 시작 초 부터 미달이 계속되어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다. 이제는 북한 동포들이 죽도록 일해야 가난만 더할 뿐, 또 힘도 지친 것이다. 경제 계획이 이 따위로 추진되어 나가니 국민 생활은 더욱 비참해 갈 뿐이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는 과연 어떠한가? 우리 나라 경제가 자리를 잡기까지에는 한때, 혼란기를 겪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국민 각자가 자기의 창의와 능력을 최고로 발휘할 수 있는 자유 민주주의의 경제 제도에 입각하고, 동시에 경제 계획의 좋은 점을 섭취하여 제 1차 경제개발 계획을 성공적으로 완수했고, 이어 제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현재 실시 중에 있다. 국민들은 이러한 경제 건설이 얼마나 절실한 국가적 과업이며 동시에 자기 자신을 잘 살게 하는 방도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부지런히 일하고 아껴서 저축하며, 각기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증산, 수출, 건설에 전력을 다하여 남에게 뒤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특히 2차 경제개발 계획기간 중에는 많은 것을 건설했다. 그 예를 약간 들면 ‘경부 고속도로’, ‘호남 고속도로’, ‘4대강 유역 종합개발’ 등등 많은 것이 추진 중에 있다.

대한민국과 북한 괴뢰의 경제적 능력이 얼마나 차이가 생겼는지 이 몇가지의 것으로도 알 수 있다.

우리 나라의 한국 비료 공장은 연간 생산능력 33만 톤인데, 이

공장의 건설기간은 겨우 1년 걸렸다. 그런데, 북한 피뢰는, 홍남 비료 공장 내부에 연간 5만톤의 비료 공장을 신설하는데 3년 반이란 기간을 소비했다.

북한 피뢰가 만든 화물선 중 가장 큰 것이 3천톤인데 비해 우리나라의 조선공사에서는 이미 북괴가 만들기 전에 4천톤짜리 화물선을 만들었다. 또 우리나라의 제2 영월화력 발전소는 10만k/w인데, 이것은 4년만에 걸쳐 건설된 것이다. 북괴는 평양 화력발전소를 우리 나라와 같은 전력인데도 이 발전소를 신설하는데, 6년이 걸렸다는 것이다.

경제 계획 추진에 있어, 우리 대한 민국은 북괴와 같이 국민을 부러먹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잘 살게 하면서 훌륭히 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 경제는 요즈음 눈부시게 발전해서 우방국가들로부터 경탄과 찬사를 받고 있다. 한국 경제는 이미 북한의 강제적인 경제를 훨씬 앞지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더욱 발전하려면 중단없이 전진하여야 한다. 이것도 반공, 아니 승공의 길이다.

지금 우리 나라의 국방은 6·25사변의 쓰라린 경험에서 교훈을 얻어 날로 국방력을 강화하기에 힘쓰고, 더욱기 미국의 지원으로 국군의 장비를 현대화 하고 있다.

이제, 우리 국군은 세계 4위의 육군을 보유한지 오래며, 휴전선을 철통같이 방위하면서도 타국 베트남의 공산침략 저지에 우리 국군 용사들을 파견하여, 그 용맹을 세계에 떨치고 있다. 이것은 김 일성 일당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였으며, 그들의 철없는 무력 침략 야망을 꺾었을 것이다.

1968년 1월 21일 북한 피뢰의 무장 공비 대량 남파에 자극을 받은 우리 나라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무장공비로부

터 마을, 직장을 스스로의 손으로 지키기 위해 향토 예비군을 조직했다. 일하며 싸우는 향토 예비군, 이것도 또 한번 김 일성의 가슴을 서늘케 했다. 이와 같이 국방으로 보아도 우리는 복피를 앞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작오를 해야 한다. 우리는 이제 공산주의의 본성이 어떤 것이며, 그가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인가를 충분히 알았으며, 공산주의가 우리의 적일 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의 적이라는 것도 분명히 알았다. 또한 우리는 북한 공산괴뢰가 한국적화 즉, 공산화를 위해 갖가지의 흉계를 꾸며 온 것도 똑똑히 알게 되었다.

우리는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는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가일층 굳건히 하고 멸공을 위한 정신 무장을 강화하여 공산당의 어떠한 선전이나 획책에 대해서도 이를 분쇄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우리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민주주의, 자유, 평등 원칙에 위배되는 일을 하지 않아야 자유 민주주의 제도를 더욱 다져 공산 침략의 틈을 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경제 건설에 총매진하여 조국근대화 작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며, 국가의 공업화를 서둘러 수출을 증대하고 국민 소득을 높여 더욱 높은 번영을 이룩해야 한다.

우리는 피수 김 일성의 제 2의 6.25를, 원치 않는다. 그러므로 국방력을 강화하고 적의 무력 남침에 만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뭉쳐야 한다. 공산주의를 압도하고, 민족 통일을 이루하며 조국을 발전 시켜야겠다는 엄숙한 민족 과제에 있어서는 어느누구도 이론이 있을 수 없다. 더우기 말로만 평화통일을 운운하며 남한 적화를 노리는 김 일성 도배들의 어떤 획책에도 동요됨이 없이 민주적 평화 통일의 길로 매진해야 할 것이다.

조국 통일은 우리 민족의 지상목표이지만 별공 없는 통일은 있을 수 없으며, 민족의 안정과 번영을 기약할 수 없다. 이제 우리는 주어진 민주주의를 즐기는데 만족하여, 단일한 생활을 꿈꾸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북녘 땅에서 김 일성 일당들의 온갖 탄압과 착취 속에 헐벗고 굶주리면서도 자유대한을 그리워하는 북한 동포들을 생각할 때, 어찌 별공 통일의 길을 재촉하지 않겠는가?

<우 수 작>

스승이 된 오빠

장 춘 지

(전북 금구중 1-3)

향토 예비군 창설 기념일을 맞이하여, 향토 예비군 아저씨들이 건강한 몸으로 씩씩하게 훈련 받는 모습을 보고 나는 우리 나라의 자랑거리라고 생각했다.

새삼, 나는 나 자신도 모르게 나에게도 자랑할 만한 점이 무엇이 있는가를 찾아보게 되었다. 그러나 내가 나의 장점을 찾으려고 하니 있을 듯 없을 듯 얼른 생각 나지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일을 잠시 쉬고 있는 오빠에게 나의 자랑할 점이 어떤 점이 있는가를 지적해 보라고 부탁하였다. 그랬더니 오빠는,

“춘지 너의 자랑할 점은 없고 너희들이 자랑할 점은 있지”

하며, 내가 쉽게 이해하지 못할 말을 하였다.

나는 답답한 마음으로, 내가 이해 할 수 있도록 쉬운 말로 설명해 달라고 했다. 오빠는 빙그레 웃으며,

“지금 너희 중학생들은 개인의 자랑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중학생 전체로서의 자랑을 찾는 일도 개인의 자랑을 찾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일이야”

라고 하였다. 이어서 오빠는 우리들이 자랑할 점이라면, 세계적인 반공 국가에서 자유롭게 공부하며, 평화롭게 살 수 있다는 점이라고 하였다.

나는 한참 동안을 생각해 보고 난 후에야 오빠의 말을 이해 할 수가 있었다.

나는 내가 자유로이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반공 민주 국가의 덕분이라는 것을 늦게서야 깨닫게 된 것이 부끄러웠다.

나는 앞으로 더욱 열심히 공부해야겠다고 마음먹고 국가 특히, 우리 국군 아저씨와 향토 예비군 그리고, 공무원 아저씨들에 대하여 감사함을 가슴 깊이 느꼈다.

나는 며칠이 지난 뒤, 오빠에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애국이 무엇이며, 벽보판 표어에서 본 국토통일원이 무슨 일을 하는 기관 이냐고 물어 보았다.

오빠는 우리 교육 수준에 알맞게 다시 말해, 내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려니 매우 어렵다는 듯이 한참만에야 겨우 말해 주었다.

“애국이라는 것은 듣기보다 어겨운 것이 아니라, 누구나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야. 즉, 우리 각자가 맡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끝마치면 되는 거야. 예를 들면, 길가에 버려진 태극기를 주워 깨끗이 세탁해 놓는 일, 학생들이 공부할 열심히 하고, 공중도덕과 예의를 잘 지키어 사회를 명랑하게 조성하는 일, 씩씩하며 건강한 사람이 되고, 거스름 돈을 낭비하지 않고 아껴 써서 저축하는 일등, 이 모든 것이 적으나마 애국하는 길이고 공산 침략을 막는 길이지”

나는 오빠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단 한 가지 저축을 하는 것이 어째서 애국이 되는 것인지를 알 수가 없었다. 나는 멍텅구리 소리를 들을 각오로, 어째서 저축하는 일이 애국되는 길이나고 미안한 생각으로 물어 보았다. 그런데 예상의료 멍텅구리 대신 잘 들어 보아라는 말을 하고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저축을 하면 저축된 돈을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그냥 쌓아 두는 것이 아니라, 특정 기관의 책임아래 크고 작은 여러 사업에 투자 되는 거야. 그럼 이 투자된 돈으로 공장이 설립되고 공장이 설립 되면 이 공장에서 상품이 생산돼지, 이 상품을 외국에 수출하면 외화를 벌어들여 우리 나라가 부강해지는 거야. 한편 저축된 돈을 찾을 때 목돈이 되어 저축한 사람에게 돌아 오거든, 물론 이자까지 붙어서 말이야. 이렇게 되면, 결국은 내가 우리 나라를 부강하게 한 한 사람이 되는거야.

또 과급적으로 공장에 취직되는 사람이 있어 실업자를 구제하는 길도 되고”

나는 정말 그렇겠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거렸다. 나는 학교의 전 과목 평균 90점 맞은 것 보다 기쁜 마음으로, 국토 통일원의 존립 목적을 또 물어 보았다. 오빠는 오늘따라 웬 일이냐는 눈치로 나를 쳐다 보았다. 나는 오빠가 일에 바쁜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알고 싶은 마음에서 미안한 생각도 뿌리치고 다시 물어 본 것이다. 오빠는 내가 공부하려는 마음이 매견스러웠던지, 알기 쉽게 가르쳐 주려고, 잠시 땀을 놓고 생각한 뒤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무지의 까마귀 떼에도 그들을 다스리는 우두머리가 있는 법이야. 하물며, 최고 고등 동물인 우리 인간에게 지도자가 없어서야 되겠니? 직접 말하면 우리 국민 개개의 주관적인 통일 관념을 한 곳으로 모아 갈고 닦고 연구하여 하루 빨리 우리 나라가 통일

될 수 있도록 하나의 뚜렷한 통일 방법을 제시해 주는 중앙의 지도 기관이 바로 이 국토 통일원이며 국토 통일원의 존립 목적이야, 너희들은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무난해”

오빠는 말이 떨어지자 바쁘게 싱긋 웃으며 일어났다. 나는 일어서는 오빠의 옷소매를 잡고 다시 앉을 것을 권했다.

오빠는 어이 없다는 표정으로 다시 마루에 앉았다.

나는 또 다시 국가에 해가 되는 것이 우리 주변에서 어떤 것이 있는냐고 물었다. 극성스런 나의 행동에 오빠도 이전 아주 나의 물음에 무엇이냐 이야기해 주려는 듯이, 뺨이를 터발 저쪽으로 내던지고 편안한 자세로 나의 옆에 바짝 다가 앉았다.

나는 처음 질문한 때 보다도 더 가벼운 마음으로 오빠의 말을 들을 수가 있었다.

오빠는 국가에 해가 되는 일, 이가 되는 일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할 텐데 하고, 책망하는 어조로 질문에 대답했다.

“요즈음 우리 주위에는 국가에 해가 되는 일이 번번이 일어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외국 상품만을 좋아하고 국산품을 멸시하는 태도, 간첩이 친척이다 하여 그들의 활동을 도와 주는 사람 등을 들 수 있지. 굳이 더 예를 든다면 공공기관을 파괴하는 사람, 남의 재산을 훔치는 사람, 이유없이 국가를 비방하고 헐뜯는 사람 군대를 기피하는 사람, 등이 있지”

이때, 들에 계시던 어머니가 오셨다. 엄마는 일을 하지 않거나하고 마주 앉아 이야기하는 오빠를 보시고, 이상하신 듯, 의아한 표정을 지으셨다. 오빠는 엄마 보기가 송구했던지 얼른 터발으로 뛰어가 버렸다.

나는 갑자기 애국자가 된 기분이었고 전과목 모든 공부를 다 끝마친 느낌이 들었다.

나는 우리 마을에 살고 있는 굽우들과 같이 오빠의 모든 설명을 듣지 못해서 아쉬운 생각까지 들었다.

아차! 그런데, 나는 한 가지 질문 못한 것이 생각났다. 그전 다름이 아닌 향토 예비군 창설 목적 말이다.

이때 딱, 소리에 깜짝 놀라 터밭쪽을 바라보니, 오빠가 끊어진 팽이 자루를 들고 있었다. 엄마는 일하기 싫은 데, 잘 되었구나 하시며 웃으셨다. 나는 기회는 이때다 하고, 터밭 오빠옆으로 뛰어가 향토 예비군 창설 목적을 물었다. 오빠는 팽이 자루를 고치면서 설명해 주었다.

“북한에도 남자는 만 18~46세까지, 여자는 만 18~30세까지로 구성된 소위 노농 적위대라는 것이 있지, 이에 비해 우리 향토예비군은 제대를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구성되는데, 하는 일과 목적을 한 마디로 요약해서 말하면 내 교장은 내 손으로 맡아 지키어 안전하게 내 주민들이 잘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주목적이지”

아이고! 갑작스런 오빠의 비명소리에 나는 깜짝 놀랐다. 오빠가 나의 질문대답에 정신이 팔려 못을 박다 그만, 망치로 자기의 손을 때려 손톱 하나가 검붉게 멍이들어 버린 것이다. 나는 곧 약을 발라 주었지만, 여간 미안하지가 않았다. 다행히 오빠가 화를 내지 않아 나는 미안한 감을 덜 가질 수가 있었다.

나는 지금까지 모르고 있던 많은 공부를 한 기쁜 마음으로, 스승이 된 오빠의 저녁 상을 보기 위해 앞치마를 입었다.

<우수작>

국토통일

이 재 출
(서울 삼선중 2-7)

반 만년의 장구한 역사, 찬란한 문화, 그리고 단군 조상의 피를 이어받은 우리 나라는 세계사에 드문 단일민족인 것입니다. 그리고 옛부터 평화와 자유를 사랑했던 자랑스런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평화를 사랑했기에 남의 나라를 침범치 아니했고, 자유를 사랑했기에 수천년 전 우리 조상들은 한사군 설치에 대항하여 죽음으로써 물리쳤던 것입니다. 이렇듯 자유를 지키기 위해 고귀한 피를 흘린 일은 역사상 많이 있습니다. 삼국 시대의 고구려도 이 한 예에 속합니다. 수양제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략했을 때, 바람 앞의 등불 같던 고구려는 자유를 짓밟히고 수나라의 속국이 될까 두려워 온 국민이 침착하게 합심 단결하여, 있는 힘을 다하여 싸웠던 것입니다. 이 결과 울지문덕 장군은 소수의 병력으로 100만이라는 적의 대군을 하루 아침에 청천강 물에 빠져 죽게 하였으니, 이것이 그 유명한 살수 대첩인 것입니다.

또, 50여년 전의 기미 3·1운동도 일제에 자유를 억압 당하자 '자유'라는 한 가지 목적으로 온 국민이 떨기한 역사에 길이 빛날 사건인 것입니다. 자유를 억제 하기는 힘듭니다. 설사 억제했다 하더라도 오래 지탱치는 못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북한 동포들도 공산당에 속은걸 후회하며, 언젠가는 꼭 자유를 찾기 위해 공산당에 투쟁할 것입니다.

저는 북한 동포에 호소하고 싶습니다. 빨리 자유의 진가를 알라고 말합니다. 매립된 상태에 놓여있는 우리 나라는 자유 진영인 남한과 공산진영인 북한이 있습니다. 한 국토에 두 나라가 있을 수

없는데, 우리 나라는 강대국끼리의 대립으로 말미암아 분단되고 말았습니다. 분단된 국토를 통일시키려면 무엇보다도 정신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뒷 받침해 주는 것, 즉 경제력, 국방력 등이 복귀를 능가해야 우리의 숙원인 통일이 달성될 것입니다. 복귀는 최근에 와서는 대량으로 무장공비를 남파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들을 공포로 몰아넣기 위해 즉, 민심교란을 목적으로 별의별 짓을 다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21사태 때의 공비들은 버스에 수류탄을 던지고 죄없는 청운 중학생인 김형기군을 죽이는가 하면, 강원도로 남파된 공비는 이승복군이 “공산당이 싫어요”란 말을 했다는 이유로 입을 찢어 죽인 사건들, 특히 이승복 사건에서 우리 나라 학생들의 승공정신이 얼마나 강한지를 저는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북괴는 지금 130만의 노동 적위대와 40만의 정식군인이 있는 힘을 다해 전쟁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250만의 향토예비군과 60만의 정규군이 일심동체가 되어 훈련을 철저히 받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통일에의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향토 예비군의 활약은 울진 삼척지구에 무장공비가 침투했을 때, 특히 군경 이상의 큰 전과를 올렸던 것입니다.

북괴는 전쟁준비를 끝내고 제2의 6·25를 일으키려 한다 합니다. 6·25를 경험하신 어른들은 잘 아시겠지만, 20여년 전 김일성이 하 공산당원들은 틈만을 노리다 일요일 새벽에 대부분의 군인이 의출하고 또 잠든 틈을 타서 불의의 공격을 가했왔던 것입니다. 장비도 변변찮던 국군은 얼마 싸워 보지도 못한 채 눈물을 머금고 후퇴만을 거듭했었습니다. 우리는 6·25때와 같이 적에게 틈을 주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6·25도 결국은 틈을 줌으로써 침략을 당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이때의 참극은 제눈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어른들의 말씀과 책, 사진 등을 통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이러한 것들을 듣고 볼 때마다 다른 사람들도 그렇겠지만 저도 역시 분노에 치를 떨었던 것입니다. 이제 언젠가는 복괴가 또다시 남침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렇다고 공포에 떨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침착하게 복괴와 싸워 이겨야만 우리를 위해서도, 나아가서는 자손들을 위해서도 옳을 것입니다. 이제 위와 같이 되려면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정신력, 국방력, 경제력 등이 복괴를 능가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되기 위한 실천을 해야 하겠습니다. 정신적으로 한테 뭉쳐야 하며 우리들은 뭉쳐야 됩니다. 그리고 '일면 국방, 일면 건설'을 실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신적인 무장만 한다면 제 아무리 강한 복괴, 아니 어느 나라가 침략해와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국방력으로 볼 때, 우리 나라는 60만의 대군과 창단된지 5년도 채 못되는 250만의 향토 예비군이 남한 전역 어느 곳에든 있습니다. 그러나, 수만 많으면 무엇합니까? 그에 따르는 장비가 좋아야 되고 많아야 하겠습니다.

복괴는 6·25이후로 모든 생산되는 물건을 무기와 바꿔 팔았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더라도 복괴의 장비가 어떻다는 것을 여러분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되려면 저축·군면·성실의 3대 목표를 실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옛부터 내려오는 나쁜 풍습 즉, 사치, 낭비, 허례 허식을 완전히 버려야만 하겠습니다. 군래에 와서는 저축하는 사람이 부족하고 "가정 의례 준칙"이 발표되면서부터 군면하고 성실한 사람이 더 많아짐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아직도 잠

에서 깨나지 못한 국민이 반 이상되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여자
 들이 그러하다 하겠습니다. 소위 배웠다는 여자들도 형식적으로
 만 실질적으로는 반대 방향으로 나가니 한심하다 아니 할 수 없습
 니다. 예를들어 길거리를 걸어 다니노라면 미니, 미다, 맥시니 해
 서 옷차림도 다양하게 해서 입고 다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외화를 벌어야 할 처지에서 화장품, 비누 같은 것까지도 미제나
 일제 같은 외제를 비싼 값으로 주고 사면서도 좋아하니, 이걸보더
 라도 사치와 낭비, 그리고 사대주의 사상과 비싸면 무조건 좋아
 하는 씩어빠진 정신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 독
 일과 같이 부유한 나라인 동시에 평안한 나라도 기렇지 않은데,
 하물며 가난한 나라인 동시에 평안치도 못한 우리 나라 여자들은
 어찌면 이럴 겨를이 있을까 하고 의심할 지경입니다. 이스라엘에
 서는 여자들까지도 총을 메고 싸움을 한다는데, 그렇지는 못할망
 정 왜 사치와 낭비, 그리고 허례 허식을 합니까? 옛날 한국여성
 들의 일은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박대통령 각하의 저서 가운데
 ‘국가와 혁명과 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가운데 독일의 부
 흥은 결코 기적만이 아니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독
 일 국민들은 전쟁에 진후 모두 합심하여 성냥 한 개비도 헛되어
 쓰지 않고, 쌀 한 톨도 아껴 먹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독일
 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독일 국민들은 날 때부터 근면·성실했
 고, 우리 나라 국민들은 날 때부터 사치와 낭비를 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 모두가 국민의 노력의 대가라 할
 수 있겠습니다. 독일의 국민들은 사치와 낭비를 모르는 국민입
 니다. 우리 국민들도 독일 국민들과 같이 돼야 하겠습니다. 그래
 서 후세의 국민들에게 낭비와 사치란 것을 모르도록 해야 하겠습
 니다.

국토 통일이 언제 이뤄질지 모르는 막연한 단어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뤄지겠지라는 확신을 온 국민이 가지고 있을 줄 압니다. 통일이 빨리 이뤄지느냐, 늦게 이뤄지느냐는 온 국민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통일 조국을 후손에 물려 주려면 우리는 중단없는 전진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단 없는 건설을 기하여 온 국민의 숙원인 남북통일의 바탕이 되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 수 작>

국토통일을 위한 우리의 각오

조 향 숙

(경남 경일여중 2-)

어느덧 우리 나라도 해방이 된 지 반세기의 반이 흘러갔다.

유구한 역사와 반만년의 전통을 지닌 백의민족을 자랑하던 시대가 지나고 일제의 36년 간의 압축시대 즉, 착취시대가 있었다. 민족의 씻지 못할 큰 오점을 남겨놓은 것이다.

잔인 무도한 일본 경찰 앞에서 민족의 주권을 찾기 위해 자기의 숭고한 목숨을 희생한 선열들에게 무엇보다 먼저 가슴을 여미며 경건한 마음으로 명복을 빌어야 하겠다. 독립운동 당시는 누구하나 이 조그마한 한 반도가 반으로 나누어지게 되리라고 상상이라도 해본 사람이 있겠는가?

물론 세계의 정세에 대하여는 미·소 양국의 합의 즉, 알타회담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지만, 이때 만일 한국이 강대하였다면 미·소의 관계가 필요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과는 반대다. 그 당시 아직 소련은 오늘날과 같은 강대한 힘을 갖지 못하고 미

국의 도움을 조금 받아 왔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계의 적화에 야욕을 가진 소련은 조그마한 한국 땅을 삼키려고 눈을 돌렸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일본이 세계 제2차 대전에서 참혹한 패배를 앞두고, 1945년 8월 9일 소련은 일본에 선전 포고를 하고, 만주를 거쳐 북한에 진주하였고, 미국은 9월 초에 인천으로부터 착륙하여 왔다. 이와 같이 두 나라의 한국 진주는 일본의 무장 해제를 위한 것으로서 38도 선은 두 나라 진군 구역의 한계로 결정하고 각각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본래의 38도 선의 성격이 없어지고 정치적으로 그의 성격이 변하여서 38도선을 경계로 각각 군정을 베풀게 되니, 남북은 전혀 다른 두 사상의 지배를 받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오늘날에는 두 세력의 접촉선이 되어 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이 되어 있어, 항상 침략의 야욕을 버리지 못하는 소련이 남침을 노리고 있었던 것이니,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우리 한국민의 의사가 포함되어서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것은 저 미국사람을 탓할 것이 아니요, 또한 소련사람을 탓할 것도 아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민족이 스스로 자각하여야 할 문제이다. 지금도 북괴는 호시탐탐 재남침을 시도하고 있으며 1968년 이래 많은 무장 공비와 간첩을 남파하고 있어 남한의 비약적인 경제개발을 방해하고 국내의 혼란을 기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어려운 시점에 있어서 우리 한국민이 스스로 자각하여 성실한 마음과 근면한 정신으로써 민족의 과업인 국토통일을 위해서 경제개발에 역점을 두어야 하겠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경제개발에 필요한 많은 자금이 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아무리 저리라고는 하지만 누적되어 나가면 경제계에 큰 혼란이 온다는 것 짚은 누구하나 모

르는 사람이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영과 사치에 의해 많은 낭비를 하고 있으니 이 어찌 참다운 국민이라면 보고만 있겠는가?

하루 속히 국민들의 낭비성을 바로 잡아 경제건설에 필요한 자본을 모으기 위하여 저축하는 생활로 변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서는 국민들의 내핍생활에서 오는 꾸준한 저축으로 우리들이 잘 살 수 있는 경제적 안정을 유인하는 자본형성을 우리 손으로 이룩해야 되겠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고도로 소비생활을 하고 있으며, 각 가정에서 불 것 같으면, 값진 의복이나 의제로만 준비된 그릇을 넣어둔 찬장을 볼 수 있다. 거기에는 일년간 한번도 써보지 않은 그릇이 들어 있다는 말이고 보면, 과연 한국민이 이만한 사치를 누릴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앞선다. 날로 이런 사치와 허영에 들며 경제개발에 힘을 쓰지 않으면 이 조그만한 반도가 영원히 국경을 사이에 두고 동쪽끼리 피끓는 투쟁을 엮어 갈 것이니, 국토통일이란 바랄 수도 없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국민 모두가 이러한 사치생활을 버리고 독일과 같이 성냥 1개로 열명의 담배 불을 붙일려고 하는 정신적인 무장이 되어 있어야 하겠다. 2차대전 때 완전히 폐허된 독일과 일본은 지금 세계 경제 성장율이 그 어느 나라에 뒤지지 않는다고 자인하는 것이다. 완전히 패한 독일은 “라인강의 기적”을 보게 되었다. 이러한 것은 모두 국민의 일치 단결과 근면하고 검소한 생활로 국가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결과 오늘과 같은 국가로 변모하게 만든 것이다.

현재 우리 나라도 자유당 시대의 부정부패에서 탈피하여 지금은 제1차 경제개발 계획도 성공리에 끝났고 2차 경제개발 계획도 파종기에 이른 71년도에 이르게 된 것이다.

해마다 격증되는 인구 증가와 실업자가 속출되고 있는 이 때에 우리 나라는 보다 더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경제정책을 수립하여 후진국을 탈피하고 선진국의 대열에 어깨를 나란히 하도록 국가부흥에 힘써 경제적으로 국력을 배양하며 다원화의 외교정책을 시책하여 경제적으로 복귀의 진출을 막아 세계 무대에서 고립을 하도록 해야 하겠다. 세계는 격동하고 있다.

「이즘」과 「이대올로지」를 초월한 때 무역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어제를 외면한 기회주의적인 다원화 외교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국제 정세에 비추어 세계속의 한국상을 그리면서 우리는 오늘과 내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시시각각으로 변모하는 국내외의 움직임에 둔감해서는 아니 되겠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선언한 “아시아 내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시아인이 해결하라”는 말은 곧 신고립주의를 지향하려는 것 같다. 이에 가장 영향이 미치는 나라가 역시 월남과 한국이다. 지금 월남에서는 미군이 철수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전방에 있는 미군 대신 한국군으로 대체되었다. 이에 대비하여 한국에서 시급히 요구되는 것은 무기의 현대화 등일 것이다.

우리 민족은 같은 언어와 풍속을 가지고 하나의 정치, 경제체제하에 살아왔으며 어떠한 지역적 경제도 존재하지 않는 반도에서 살아왔다. 그러므로 우리 강토가 휴전선에 의하여 양단될 역사적 근거는 전연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6년 동안 쓰라린 일제의 탄압하에 신음하고 있다가 일본의 항복으로 해방되자 불의의 국경아닌 국경이 들어서 민족의 비극을 낳았다. 이에 우리 애국 동포는 미·소 공동위원회에 기대를 걸기도 했으나, 38도선은 날로 굳어지게 됐으며 심지어는 6·25동란이라는 민족의 비극까지 연출하게 되었다. 현정 우리의 염원은 국토통일인 것이

며, 또 통일만이 우리의 목표인 것이다.

이와 같이 휴전선은 우리 민족의 원한의 선이요,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 주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우리는 민족후손의 영예와 번영을 위해서 이 인위적이며, 연합국에 의하여 생긴, 즉 타율적으로 된 이선을 하루속히 없애야만 할 것이다. 언젠가는 이루어질 국토통일을 기대 하면서 줄기찬 노력으로서 역사를 창조하여 영광된 통일 조국의 앞 날을 내다 보며, 근면하고 국민 개개인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해서 인류 사회로 발전해 나가야 되겠다. 이와같이 먼 후일의 기쁨을 생각하며 나날이 생활해가는 곳에서 반공 정신을 더욱 드높여야겠다.

현재 배우는 입장에서 있는 학생은 신입전선에서 많은 유능한 인재를 요구하고 있는 이때에 배움은 바로 조국에 공헌할 수 있는 길을 위한 관문이요, 과정인 것이다.

“기필코 우리는 돌파해야 하다!”

“꾸준한 노력앞엔 가능만이 있다.”

라는 신앙을 가지고 노력을 경주하여 우리의 빠져린 동족 대립을 후세에 까지 전하지 않기 위해서 영광된 통일 조국을 물려 주어야겠다.

또, 북한 마수들에게 시달리고 있는 북한 동포를 하루 빨리 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은 펜으로, 광부는 팽이로, 선생은 분팔로, 국군은 총으로, 내일의 밝은 조국의 통일을 바라보며 자기의 맡은 임무를 충실히 하여야 한다.

<우 수 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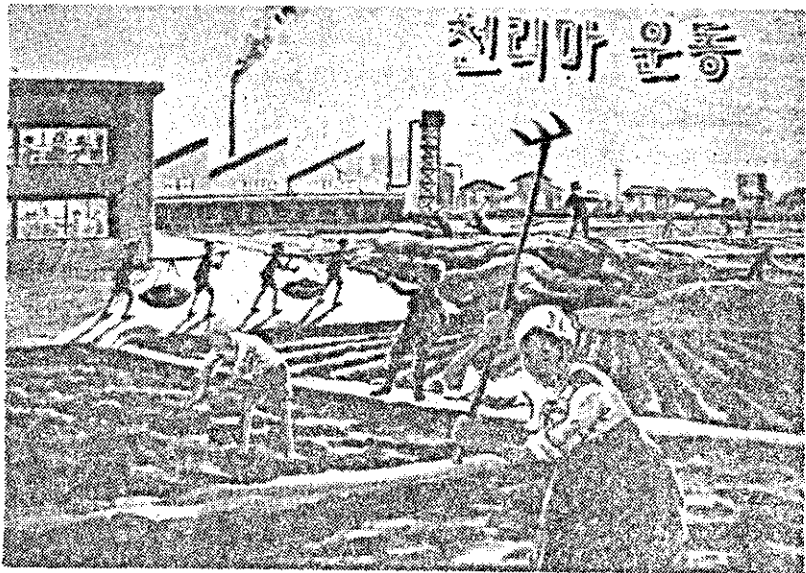
민족통일의 필요성

이 민 순

(전남 금천중 3-2)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한 핏줄, 한 문화를 지니고 이어온 단일 민족이다. 우리 민족은 아름답고 기름진 삼천리 강토에서 공통된 언어, 습관, 공통된 문화, 정신을 가지고 공동 이해로 얽히어 단란하게 살아 왔다.

그리하여 일제의 악독한 수탈, 탄압하에서도 우리 삼천만 계통은 한 덩어리로 뭉치어 민족의 해방을 위하여 꾸준히 싸워왔다.



3·1운동 때와 같은 민족적 단결은 다른 나라의 민족 해방투쟁 사상에도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8·15해방과 동시에 우리 국토가 외세에 의하여 남북으로 양단된 것은 우리 민족 비극의 발단이였다.

더우기 그 양단된 우리 조국 북녘 땅에 공산 제국주의 소련군이 들어오게 된 것은 더욱 커다란 불행이였다. 북한을 강점한 공산주의자들의 침략정책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는 국토가 양단된 위에 사상적으로까지 양단되였다.

바로 이 때문에 우리 민족은 세계 다른 민족들이 별로 겪어 보지 못한 최대의 민족 비극을 겪게 된 것이다. 이러한 민족 분렬은 지금 우리 민족의 모든 불행과 고난과 비극의 화근인 것이다.

이 민족 분렬로부터 오는 우리 겨레의 불행과 고통과 비극이 얼마나 큰 것인가?

우리 나라는 아직도 남북으로 분렬되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최고 이상이며 염원이기도 한 통일된 민주국가를 이룩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물론 우리 대한 민국은 국제적으로도 승인된 민주공화국이다.

그러나, 아직도 자기 영토인 북한까지를 통일한 완전한 통일 독립 국가를 이룩하지는 못하였다.

그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떳떳한 자격을 갖춘 회원 국가로서 유엔에 정식 가입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세계 120여 개국이 유엔에 가입하여 세계 문제를 처리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과 같은 정식 회원으로서 이들 국제 대열에 어깨를 나란히하며 자리를 같이할 수 없다는 것은 자주 독립 국가로서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다.

지금 휴전선 넘어 공산 침략자들을 대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전

쟁의 불씨를 안고 있으며, 불안이 이 땅 위에 감돌고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김 일성 일당은 호시탐탐 제2의 6·25사변을 베풀고 있다.

그러나, 우리 대한 민국으로서 언제 침략을 당해도 일격에 그들을 격멸할 수 있도록 항시 국방력을 강화하고 유지하는데 막대한 금력을 투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만일 우리에게 공산 침략의 위협과 전쟁의 불안이 없었던들 막대한 국방력의 많은 부분을 조국의 근대화와 국민의 복리 향상에 사용하도록 하여, 이미 세계가 부러워 할 복지국가로 발전하였을 것을 생각하면,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지금 남·북 분단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도 불구자가 되고 있다: 우리 국토는 그리 넓다고는 할 수 없으나, 지하 자원이 풍부하고 기름진 농토, 옥토로서 이것을 전국적 시야에서 잘 개발하면 남부럽지 않게 잘살 수 있는 풍요한 낙원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38선이 가로막혀 그 길이 전혀 막혀서 그로부터 받는 타격은 막심한 것이다.

우리 대한 민국은 그 타격을 가능한 한 막으면서 자립 경제 건설에 전력을 하고 있으나, 하늘이 베풀어 준 경제적 혜택을 전국적 범위에서 통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면할 길이 없다. 일제 때부터 있었던 풍부한 압력강 수력발전소의 전력만 하더라도 해방 직후 전력부족으로 곤란을 받은 남한에 보내던 것을 하룻밤 사이에 단전하고는 엉뚱하게도 증공에다 공짜로 제공을 하는 형편인 것이다.

그리고 군수공업 증강을 목적으로 생역지의 증공업 정책을 내세워 가지고, 북한 주민들은 굶주림과 헐벗음으로 신음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수많은 북한 동포들이 잠곡쉬인 식량 배급으로 세끼의 죽도 못 먹고, 업동 실행에도 누더기 옷을 걸치고 추위와 배고픔에 떨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지금 남한에서는 쓰고 남은 공업 제품을 해외에까지 수출하면서도 이것을 북한 동포들과 나누어 쓸 수 없는 딱한 현실 속에 있는 것이다. 이 얼마나 안타깝고 기막힌 현실인가. 북괴 주민들을 '천리마'라는 말로 만들어 하루 10여 시간의 혹사로 착취를 하고 있을 뿐이다. 그것은 인생이 아니요, 삶이 아니다.

그것은 울타리 없는 감옥속의 생활이 아니고 무엇인가! 만기 없는 중세기적 지옥살이! 지금 북한에서는 1천 여만 우리 동포들이 고통과 절망 속에서, 이 비참한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을 빨리 구출하는 것은 같은 겨레로서의 성스러운 의무요, 권리인 것이다.

그런데, 그들을 구출하는 길은 민주 통일의 길 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 민족 통일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절실한 지상 과제이며, 얼마나 성스러운 민족 과업인가를 알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의 크고 작은 활동은 종국적으로 이 민족 통일 성업에 이바지되어야 하며, 그것에 결부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우 수 작>

승공으로 통일하자

구 소 회
(충북 진천중 3학년)

나날이 복지 국가로 발전되어 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은 1970

년대의 약진을 계기로 전보다 더욱 더 힘차게 전진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국 70년대에는 민족 중흥을 이룩할 도약의 시기, 그리고 민족의 숙원인 조국의 통일을 이룩하여, 내 동포 그리고, 내 민족이 즐겁고 재미나게 함께 어울려서 살 수 있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좀더 신뢰하고, 국가에 헌신하고, 향토 방위에 봉사하고, 일심 전력을 다해서 간첩 침투의 퇴로를 봉쇄하여, 6.25와 같은 비극이 우리에게 다시는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까. 나 자신 나아가서는 우리 국민의 국토방위 정신과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나타내야 하겠습니까.

현재, 북괴는 우리 민족 하나 하나가 분열하고 사회가 혼란 되기를 노리고, 그러한 가증스러운 수작을 부리고 있는가 하면, 한편 그들에게는 우리 250만 향토 예비군과 같은 소위 말하는 노농 적위대가 130만이나 무장하고 있다지만, 우리 향토 예비군에게는 대적할 수 없는 미약한 존재라고 생각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소홀한 국방력을 낳게 되는 동기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획기적 발전의 터전을, 갖은 악랄한 수단과 방법으로 우리의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전체 한반도를 공산화하려고 괴수 김 일성 도당들의 만행은 날이 갈수록 더욱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산 세계의 내부에서도 대립과 투쟁이 심해져서 다시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북괴가 여러가지 일을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고 우리는 방심하고 공산주의가 스스로 멸망하기만 기다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권을 잡고 있는 독재자들은 그들의

지위가 불안할수록 더욱 야수적인 억압을 강행하고, 침략을 책동할 것이므로 우리는 여기에 대한 경제와 대공 투쟁에 가일층 박차를 가해야 하겠습니다.

그러자면, 먼저 공산주의의 본질과 그 내막을 정확히 알고, 우리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굳혀야 하겠습니다.

맹목적인 반공이나 감정적인 투쟁만으로는 공산주의를 완전히 타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압도적으로 우세하게 통일을 하기에는 우리의 노력과 투지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더욱 굳건히 하고, 이 나라에 알맞는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국민으로서의 모든 성스러운 의무와 책임을 앞장서서 다하도록 힘쓰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젊은 청년들은 국방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모두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은 세삼 말할 나위도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미국을 비롯한 여러 우방국들과의 우호관계를 더욱 더 폭넓게 유지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해야 할 것이며, 유엔의 지지를 더욱 확고히 그리고, 더욱 더 폭넓게 확보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의 중요한 임무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민족적 단결의 공고화입니다. 우리 나라는 민주주의 사회이므로 여러가지 문제에 대하여 여러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공산주의를 압승하고 민족 통일을 이룩

하며, 이 조국을 발전시켜야겠다는 엄숙한 민족 과제에 있어서는 더욱 확고히 이를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우리 국민의 중요한 임무에 있어서 우리는 국토를 통일하고 국론에 전 민족이 굳게 굳게 단합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북한 동포들도 우리를 더욱 의지하게 되고 국제적 지지도 더욱 확고해 질 것입니다.

‘단결은 힘이다!’

만약 우리가 정말로 민족적 단결만 훌륭히 이룩한다면 우리는 못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민족 총단결력과 그것이 배양한 실력에 의하여 우리는 자연적으로 민주통일의 길이 열리도록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북한에서의 공산 학정은 물론 경제는 날로 퇴락해 가고, 국민 생활은 날로 비참해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곤경 속에 빠진 북한 동포들이 남한에서는 모든 국민이 더욱 자유롭게 더욱 더 부유하게 잘 살아 가고, 국가는 더욱 훌륭히 발전하고 국위는 날로 선양되어 가고 있으며, 민족적 단결이 반석같이 굳어가고 있는 것이 발견될 때, 용기와 힘을 얻을 것이며, 우리에게 호응하여 김 일성 괴뢰도당을 타도하려고 북한 동포들은 필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민족적 총단결로 북괴를 압도할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실력을 기른다면 우리는 총 선거 방법에 의하건, 또는 북한 동포의 의거 쫓기에 의하건, 혹은 괴뢰에게 강요될지 모르는 무력전에 의하건, 기타 어떠한 방법에 의하건 우리는 반드시 북괴를 물리치고 우리가 염원하는 민주주의 통일을 이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당면한 오늘의 과제는 일면으로 국방, 또는 일면으로는

건설, 경제 자립을 과감히 추진하여 성공할 수 있는 물질적 기반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며, 일면에는 복귀가 신봉하고 있는 이른바 바탕 전략 전술은, 물론 그들의 실태를 낱낱이 파악하여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신적 자세를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그날, 그날을 승공통일의 그날을 하루 빨리 앞당기기 위하여 우리 다 같이 슬기롭게 일어서서 즐기치게 싸워 나아가야 하겠읍니다.

<우 수 작>

국토통일의 길

신 혜 희

(경기 영종중 1-1)

우리는 5천년 역사의 배달의 자손으로 이 땅에 태어났읍니다. 우리의 시조인 단군 할아버지께서 대동강 유역에 고조선이란 나라를 세우셔서 오늘날까지 우리의 조상은 대대로 이땅에 샘 솟는 물을 마시며, 반만년의 역사를 이어 피땀으로 가꾸어 온 이 땅은, 조상님들의 사랑과 고유문화의 자취가 남아 있습니다. 이 평화스러운 땅을 지키시드라고 얼마나 피나는 노력이 필요했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그들의 피가 사무쳐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 국민이 사랑하고 지켜 가야 할 땅임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한때,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어, 왜놈들이 이 대한민국 땅에서 주인 노릇을 할 때, 지독한 압박 밑에 우리 국민은 얼마나 기막힌 슬픔과 가슴 아픈 고통을 참아 가며 살아야 했던가요. 3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동포들이 일제의 총칼 앞에 무

참하게 학살당하고 짓밟혔습니까?”

삶의 터전을 잃고, 자유를 억압당하고, 권리를 빼앗겼고 심지어는 우리의 말과 성까지도 빼앗겼으며, 징병, 징용제도를 실시하여, 온 나라 젊은이란 젊은이는 탄광으로 끌려 나가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지난날을 생각하면 할수록 울분이 머리끝까지 치밀어 두 주먹을 힘껏 쥐어봅니다. 그러나 삼천리 금수강산을 덮었던 짓궂은 먹구름도 활짝 개고 자유의 빛이 온 누리를 비치게 되었던 날, 우리는 그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우리의 이 금수강산을 찾고자 하신 애국 선열들의 분투와 노력에 의해, 우리는 역사와 전통을 가진 민족으로서 당당히 해방을 맞이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밝은 태양을 보게 된 우리 삼천만 동포들은 새 나라 건설의 꿈에 가슴이 부풀었던 것입니다. 가슴을 활짝 펴고 거리를 활보하는 삼천만 동포, 서로들 감격의 눈물을 흘리었고, 집집마다 즐거운 웃음소리가 들리었고, 곳곳마다 태극기를 들고,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는 소리가 그칠 줄 몰랐다고 하니 얼마나 기뻐기에 그러했겠습니까? 문패를 우리의 것으로 바꿔 달고, 우리의 말과 성을 되찾고, 부모형제들은 손에 손을 맞잡고 춤이라도 출 듯 날뛰는 모습들이 눈앞에 보이는 듯 합니다. 나라를 잃어 버렸던 백성이기에 우리는 독립의 귀중함과, 자유의 고마움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죠.

지난날을 뒤우치고, 찾아오는 내일의 생활에 충실하며, 목숨을 바쳐 찾은 나라, 이 강산을 수호하려는 마음이 삼천만 우리 동포의 가슴을 팍 채웠습니다.

그러나 어찌 뜻하였겠습니까? 우리 온 국민이 해방된 감격으로 들끓는 사이에 다른 나라에 의해 우리 나라는 38선이라는 선

으로 양단되었습니다. 이때 우리 온 국민의 가슴에는 원망과 저주와 실망의 빛이 한꺼번에 밀어 닥쳤습니다. 복수의 두 주먹이 불끈 쥐어진 채 남북이 가로막혀 버렸습니다.

지금 민족이 해방된 지도 어언 25년이란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만, 38선은 여전히 가로놓여 있으며, 25년이란 긴 세월 속에 우리는 사랑하는 부모 형제, 가까운 친척, 다정한 벗 들의 소식조차 모르는 채 서로 살아야 하니,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기막힌 사연입니까? 기름진 옥토, 수놓은 듯한 금수강산, 이 얼마나 남의 나라에 자랑거리가 되는 이 땅을 짓밟아 놓으려는 북한의 괴수 김 일성을 생각할 때, 아무리 나이 어린 소녀의 심정일지라도 단숨에 한 칼로 그 괴한을 넘어뜨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가 갈리는 괴한들, 무엇 때문에 이 조그만 나라가 양단되어야 했을까요? 왜 이 평화스런 땅 위에, 우리 겨레가 한결같이 나라의 발전에 힘을 기울이고 있을 때, 조국을 등지고, 나라를 어지럽히는 공산주의자들은 마침내 6.25사변까지 일으켜, 삼천리 금수강산을 붉은 피로 물들이고, 잿더미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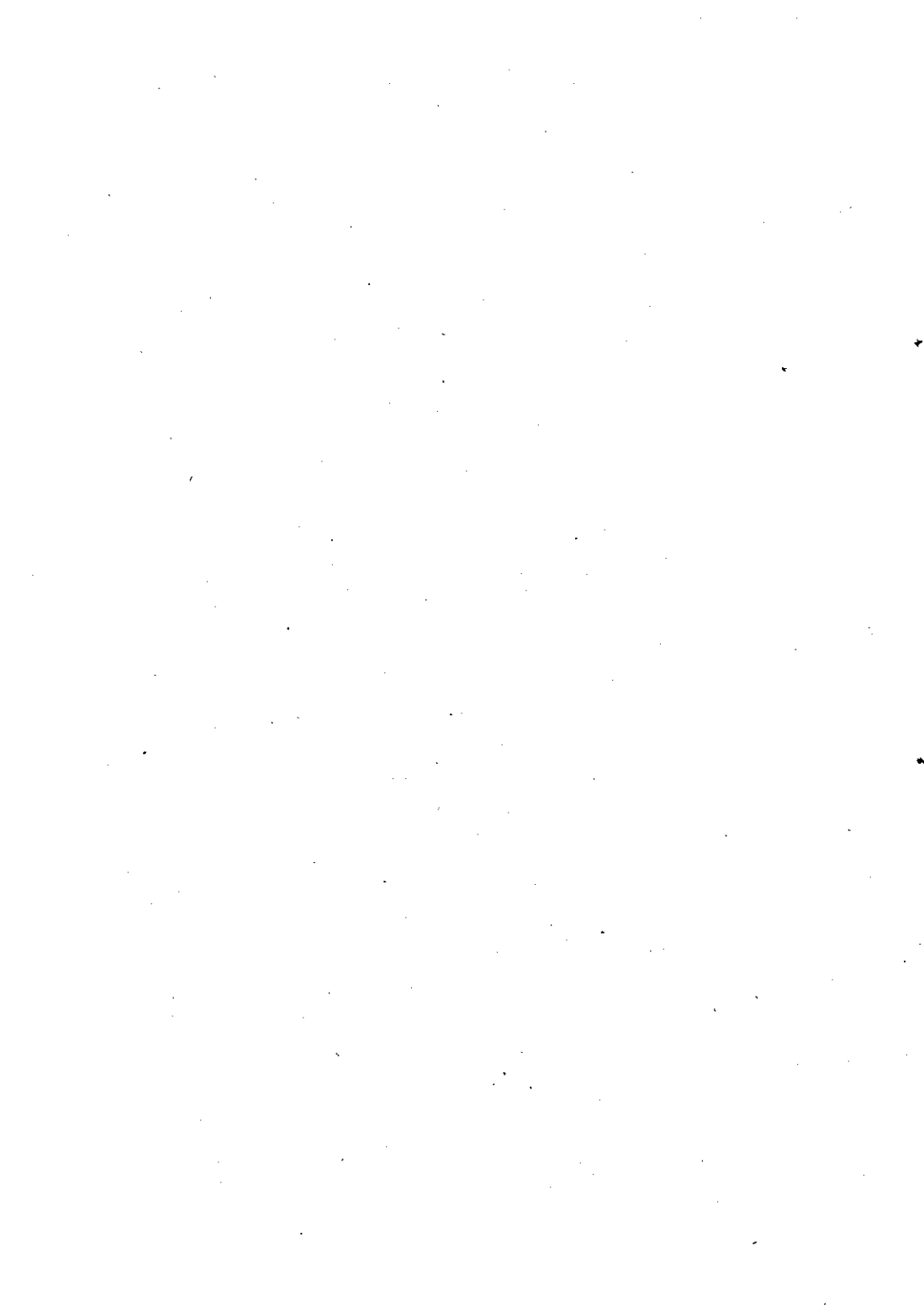
그들은 휴전 후에도 여전히 많은 간첩과 무장공비를 남파시켜,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있는 우리 나라를, 집어 삼키려는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또 김 일성은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붉은 사상으로 물들이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살고 있는 이 조그마한 영종섬에 까지도 간첩이 발을 들여놓을 줄이야 꿈엔들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이렇게 잔인무도한 남과 간첩들은 죽는 순간까지도 자수를 하지 않고, 대항하며 김 일성을 찾는 악독한자들, 이것을 볼 때, 김 일성 북한 괴뢰가 얼마나 잔인무도한지를, 악마인가를 알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북한괴뢰는, 북한 주민을 말이나 소처럼 부려먹고, 곳곳마다 전

쟁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허무한가는 이미 공산 반세기의 역사를 가진 소련의 실례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련은 슬금슬금 자본주의로 복귀하는 길을 모색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우리는 이 침략자의 정체를 똑바로 알아야겠습니다.

이 무서운 독사뱀들의 정체를 온 국민 모두가 힘을 합하여 두 눈을 똑 바로 뜨고, 지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세계 어느 곳을 가도 볼 수 없는 기름진 땅이나, 푸른 하늘, 사철따라 옷 바꿈을 하듯 변화하는 아름다운 우리 나라의 강산을 그 어느 나라에게도 짓밟혀서는 안 됩니다. 저 호시탐탐 노리는 북한괴뢰를 하루바삐 소탕하여, 백두산 높은 봉에 태극기를 휘날리는 날이 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온 국민이 단결 합심하여, 우리 나라의 경제를 급속히 발전시키어, 나아가서는 우리의 손으로 북한 동포들을 해방하는 자유민주 통일의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국토 통일을 위하여 전 국민이 굳게 단결하여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북한 동포들도 우리를 더욱 더 의지하게 되고, 국제적 지지도 더욱 확고해질 것입니다. 마을마다, 직장마다, 어느 곳에도 조직된 향토 예비군 아저씨들은 일하면서 싸우시는 능률한 기세로 향토를 지키고 계시며, 이는 우리 나라 전방과 후방을 국민의 총력으로 지켜간다는 믿음직한 태세가 확립되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 모든 학생들도 학업에 열중하는 한편, 국방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열심히 교련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또 여학생이라고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여학생들도 모두가 남학생 못지 않게 교련을 하여 뒷 받침이 되어야겠습니다. 이 얼마나 믿음직한 일입니까? 우리 나라 온 국민은, 승공 통일을 이룩하기 위

하여서는 피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폭넓게 우방의 협조를 획득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공산당을 물리치고, 우리가 염원하는 승공 통일을 이룩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승공 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서, 국민들은 모두가 다같이 슬기롭게, 일하고 즐기치게 전진하는 대한민국을 건설합니다. 저는 결코 통일이란 두 글자를 잊지 않고, 그것을 이룩하기 위하여, 열심히 공부하는 여학생이 될 것입니다.



<고등부 글짓기>

◇ 심 사 평 ◇

글짓기에 나타난 통일에 대한 생각들이 이미 국책으로 주장된 내용으로 너무 굳혀져 있었다. 이렇게 되면 내용이 러하여 지고 글에 약동감이 없게 된다.

학생들에게 이와같은 글짓기를 모집한 것은 기성세대의 화석화 되기 쉬운 생각 같은데서 해방된 젊은이들의 풍부한 상상력을 개발하기 위해서이다.

이번 모집된 글을 보면 학생들의 특권인 상상력을 마음껏 펼치지 못했다. 상상력의 풍부한 글이라하여서 가공적인 세계를 그리라는 뜻이 아니다. 논리적인 글을 쓰더라도 상상력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문제를 어느 국면을 놓고 대결하지 않고 수박 겉핥기 식으로 다루었다. 통일에의 의지나 통일기반 조성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될 수 있는대로 자기 생활에 가까운데서 찾아내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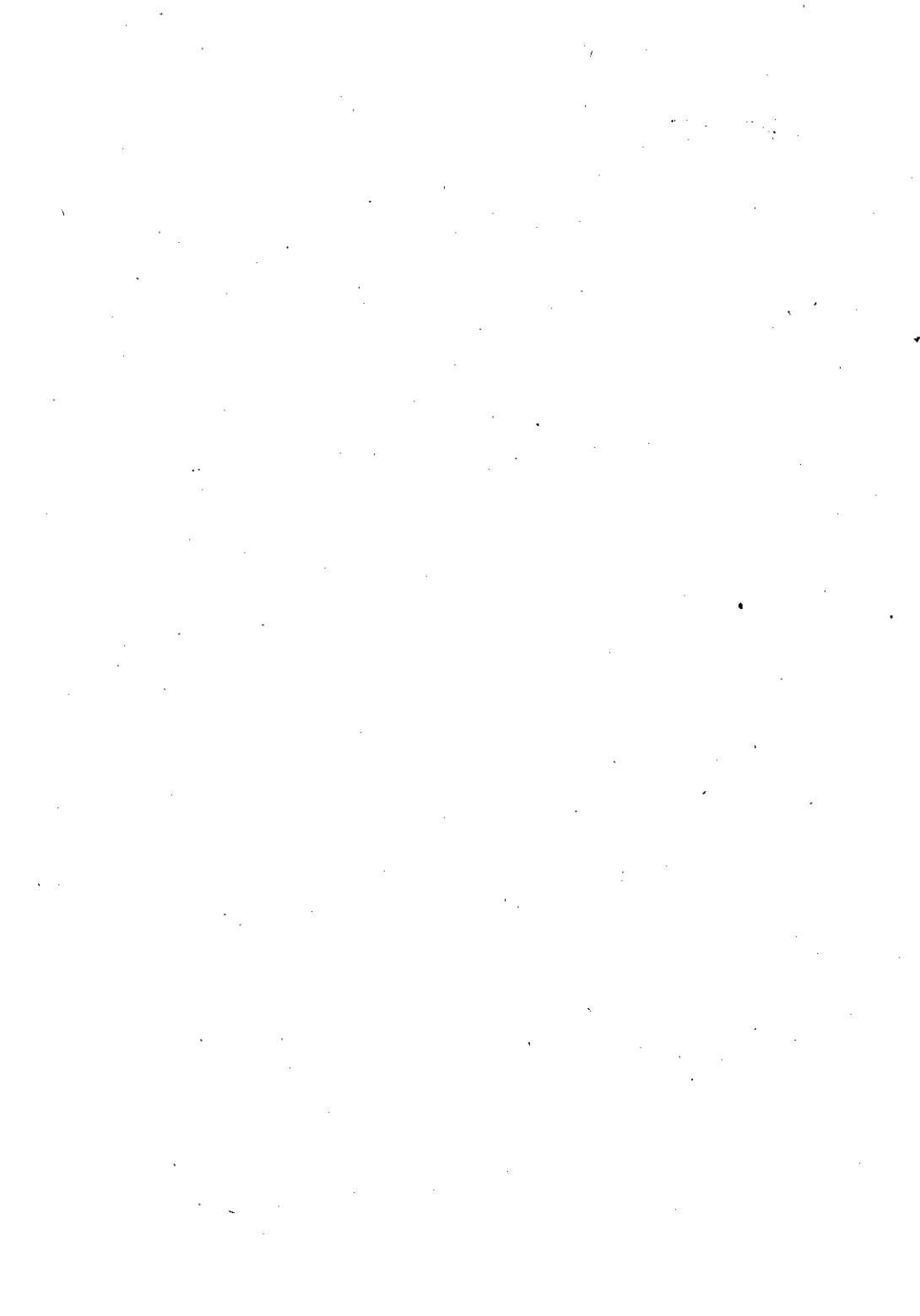
최우수상(강 신중)의 글은 통일 문제를 흔히들 정치, 경제, 안보문제만으로 다루는데 정신적, 또는 사상적면에서 신민족주의를 주장 하면서 민족문화 창조의 주장은 통일을 긴 안목에서 볼 자세이다.

우수상의 (양 미경)은 일상적인 생활속에서 남북통일에의 의지를 자연스레 추출하였다. 그러나 통일을 위한 자기의 생활 방향이 뚜렷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

박 응이군의 글은 문장이 좋았으며 조용이 남북분단의 비극을 비쳐냈다.

박 영동군의 글은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훈련이 되어있다. 문장력도 갖추어져 있다.

김 요 섭



<최우수작>

통일을 위한 민족의식 고취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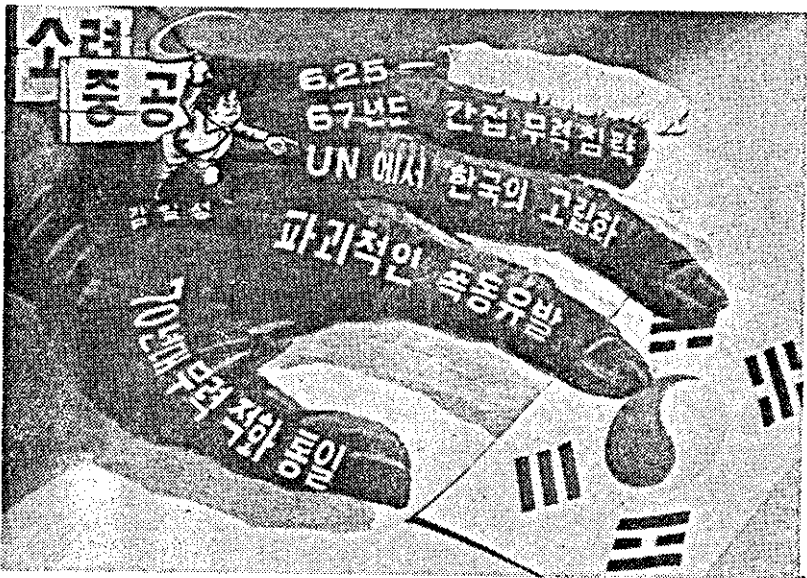
강 신 준

(경남 마산교 3-)

근대에서 현대로 들어 오면서 세계는 민족단위 중심으로 변해 갔다. 그리하여 민족단위별의 정치, 경제, 문화권이 형성되어 갔으나, 일부 민족에게는 보편성이 상실되고 도리어 분단이라는 엄청난 비극이 안겨졌으니 현실에서의 분단국가들의 참담한 상태가 그것이다.

즉, 한국의 일본군 무장해제 분담이라는 명분으로, 독일의 전후 점령관리라는 이유로, 월남의 휴전이라는 이름의 분단이다.

그러나 처음 연합국의 군사적 목적만을 위해서 필요했던 분단



선이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정치적 분단선으로 탈바꿈되고, 그들 국가간의 이해대립선으로 굳어져 갔음은 현금의 상황에서는 자명한 사실이다.

어쨌든 이렇게 이해대립선으로 굳어져 버린 분단선이 이제와서 쉽사리 분단국가 자체의 노력만으로 도려 되기는 어려운 문제다.

따라서 통일문제의 논란 때는 국제적 여건이란 것이 우선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다. 또 역시 그에 부차적으로도 문제로 국내적 여건이 중요시되어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현실적 국면에서 한국의 통일문제를 고찰해 볼 때 오늘의 한국의 분단을 둘러싼 국제정세란 그렇게 희망적 요소가 있는 것만은 아니다.

어느 분단국가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말이긴 하지만, 그를 둘러싼 국제간의 이해가 일치될 때 국제적 여건으로서의 통일의 가능성은 더욱 쉬울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을 둘러싼 미, 중, 소의 대립에서 그 이해선의 일치를 찾는다는 것은 무척이나 가능성이 희박하며 그 이해의 일치라는 것이 각국의 정세에 따라서 가변적인 것이므로, 이 자리에서의 논란이나, 단정은 무척이나 곤란성을 띠고 있다. 따라서 필자로서는 국내적 문제에 중점적으로 착안하여 통일을 위해 국내적 여건에 요구되는 내부적 상황들에 대해 고찰하기로 한다.

또 국제적 여건에 맞추어져야 할 정치, 경제적인 분야는 필자는 여기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여기서는 다만 내부적 상황에 대한 고찰이란 문화적 범주에 축소하고 있음을 언급해 두는 바이다. 그리고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분단된 당시의 상황이 민족단위의 중심 활동권을 형성하고 있었으므로 필자는 이점에도 착안하기로 한다.

<2>

최근에 와서 특히 민족이란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있다.

민족문화, 민족시인, 민족주의, 민족주체성, 민족중흥등을 들 수 있다.

이는 최근에 와서 신생국가를 중심으로 한 「네오·네쇼널리즘」, 즉 신민족주의에 그 영향입은 바가 크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민족 자주성과 주체성의 강조에 의한 스스로의 힘의 배양에 그 목표를 두고 있다고 하겠다.

오늘의 한국은 이러한 민족주의가 커다란 정신적 지주로 들어서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면 이러한 민족주의는 어째서 대두되었는가? 신생 독립국가들이 강대국들의 이해한계의 틈바구니에서 빠져 나올려는 의도가 크게 작용했지만 강대국 또한 자국의 비등한 여튼때문에 복잡한 국제적 분쟁에서 손을 때려는 정책때문에 약소국은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각성도 크게 작용한 것이다.

그런데 이와같은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구체적 방법론은 노명식교수가 지적한 바가 가장 적합할 것 같다.

즉, 대 강대국정책은 「민족적 자아」의 투철한 자각위에서 국가 이익을 추구하는 하나의 방편으로서의 강대국가와의 관계가 불가피 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여기서 특히 유의할 점이 강대국의존 뒤에 따르기 쉬운 사상적 「자기상실」이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도 노명식 교수가 지적했듯이, 오늘의 한국을 둘러싼 강대국이란, 미, 중, 소, 일의 4국으로 이 4국은 서로의 견제로 말미암아 어느 한나라도 집중적 영향력을 발동할 수는 없기 때문에 독자적 구체성은 별 영향을 입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 주체의식이란 그 주체가 한국민족 자신이므로 자기의식의 고수를 망각해서는 결코 아니되는 것이다.

여기서 그 모든 행동의 사상적 기초가 민족적 주체의식이어야 함을 재천명해 두는 바이다.

특히 민족적 주체의식은 국제적 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독자적 거취를 분명히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신민족주의와 18C말~19C초의 민족주의가 구별되는 차이점이 바로 이것이다.

이와같은 방법론에 의해 민족의 부를 축적하여 경제적 자립을 꾀함과 동시에 민족자본의 확립을 위해 사상적 교육에 의한 민족의식의 고취는 그것 자체가 바로 통일의 정신적 기반이 되는 것이다. 또한 이 정신적 기반이야말로 통일의 국내적 여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찰해 볼 때, 다시 이에 대한 구체적 방법론의 모색이 요구된다.

이에 상응되는 방법론이 바로 민족문학의 육성이 있어야 함을 제안한다.

그리하여 이 민족문학으로 민족적 특성의 확립과 민족의식의 고취에 역점을 둠으로써 정신적, 국내의 통일여건은 마련되는 것이다.

<3>

우리 민족이 분단의 슬픔을 안은 것은 바로 그 당시의 시대적 환경의 산물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분단의 사실 자체는 하나의 시간성, 역사성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그 해석이 가능한 것이다.

이제 다시 현실적인 면에서 그 분단선의 소재를 고찰해 볼 때 역사성, 시간성의 문제를 도외시킬 수는 결코 없다.

여기에서 항상 어느 시대이고 간에 역사가 역사를 보는 눈은 되도록 공평한 입장을 취하려 한다는 보편적 인식을 허두에 내걸고 20C에 들어서고 있는 지금,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있는 토인비의 역사관중에서 만 역사관들과의 보편성만을 될 수록 위주로 살펴 나가면서 현대의 역사성을 고찰, 통일문제에 있어서 현대의 역사가 요구하는 상황을 분석해 보려고 한다.

오늘에 있어서의 역사관, 즉 현대의 역사관은 전부가 현대를 위기로 보고 있다.

토인비는 그의 역사관속에서 서구문명은 이제 흥망의 기로에서 시련을 받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서구문명은 위기에 처해 있지만, 그것은 결정적으로 멸망의 길을 걸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이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역사의 주체가 인간 자신임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토인비는 역사의 가능성을 인간이 쥐고 있다는 점에서의 결론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어쨌던 서양의 모든 역사관은 현대의 서구문명은 위기에 처해있음을 수긍하고 있으며 또한 그 위기에 처해 있음이란 바로 쇠퇴의 의미임을 다 같이 긍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런 위기에서의 극복의 방법론으로 그들 역사가들은 어떤 방법론을 제시하는가?

위와 같은 역사의 사실에 대해 만 역사관들은 전부 역사의 필연성으로 긍정하고 있는 데 반해서 토인비의 역사관만은 이를 강하게 부정하며 그 방법론을 자신있게 제시해 놓았다.

물론 이 방법론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합리성은 가지고 있다.

토인비는 서구문명의 「자기 구제」를 세계교회를 통한 것으로 본다.

즉 분산, 대립, 투쟁하는 인간들의 총화는 평화적인 세계교회란 정신문화를 통해서인 것이다.

그는 여기서 서구문명이 얼마나 정신면에 박약했는가를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방법론의 합리성은 이곳에 있다.

헤겔의 역사관이나 슈팽글러의 역사관이나 전부 다 그 역사학적 고찰면이 물질면보다 정신면에 그 비중이 컸었다.

물론 이의 근본적 이유는 위기를 규정짓다 보니 스스로 발견된 자신들 서구문명의 정신적 박약을 은폐시키기 위함이었다. 어쨌든, 이런 정신적 방법론에서의 역사관에 의하면 역사의 다음 단계는 필연적으로 정신면에 의한 극복책으로 계승될 것이 틀림없다.

이렇게 토인비가 어느 정도 객관적 고찰에 성공했다고 볼 때 그의 방법론은 현실적 가능성을 다분히 띠게 된다.

그런 면에서 오늘날 위기를 조장시킨 사상적 최대의 요인인, 그리고 우리 민족의 분단을 초대케한 이데올로기의 양극화의 해소는 필연적으로 정신적 사랑의 자세를 요구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데올로기를 초월한 사랑이란 생각할 수도 없지만 자유 민주주의의 장점인 인도적인 입장에서 출발에 대하여 북괴 김일성 자신도 분단의 고통을 더 이상 탄압과 착취로 일관 할 것이 아니라 민족적 염원에 부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민족에게 요구되는 정신적 사랑의 자세란 어떤 것일까?

물론 그것은 토인비가 말하듯이 세계교회적 사랑과는 약간의 거리가 있는 것임에 틀림없다. 어디까지나 사랑의 대상과 상황이 민족이란 특수 범주에만으로 국한되니까 말이다.

우리 민족에게 필요한 최하의 것은 그렇게 원대한 세계 교회적 사랑도 좋지만 좀더 폭넓은 의미에서 민족의 사랑심, 민족의 장대한 요구에 의한 민족적 사명감인 것이다.

아가페적 사랑도 좋지만, 그 이전의 내 형제의 혈연의식이 더 중요한 것이다. 이제 다시 이 사랑의 의미에 민족적 사상의 투과를 허용하여 혈연의식의 조장, 그리고 이런 동포애의 한없는 발양을 촉진하여 민족적 비원을 해결하고 분단의 고통을 덜어 줄 수 있는 통일의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당연한 역사에의 호응일 줄 안다.

<4>

이상에서 필자는 민족 주체의식에 착안하여 그에 상응하는 민족문학의 육성에 의한 민족의식의 고취에 의한 방법론을 제시해 보았다.

종래 통일에 관한 글들이 대개 정치적 여건에 착안한 글이 많았다. 따라서 현실적 문제에 치중한 것 또한 대부분이었다.

물론 통일은 민족의 최대의 숙원인 바 현실적으로 가능한 한에서는 급박한 시일을 원하므로 실현성많은 현실적 문제에 집착한 것이 하나도 이상할 것은 없다.

그러나 대개가 정신적 면에서의 고찰이 너무 희박하였으며, 통일을 위한 우리의 대비태세에 대한 방안이 빈약했음은 사실이다.

이에 필자가 제시한 방안은 정신적 방안으로 구현성이나 시간성에서 보편성을 도외시한 면이 없지 않으나 오늘의 국제정세의 추세로 유추하건대 이데올로기의 양극화나 강대국들의 이해일차 문제는 급박한 시일내에 갑자기 성취될 것이 아니므로 약간 장기적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나 정신적면에서 우리의 대비 대책의

시도가 사실상 결실한 현실의 요구인 것이다.

그리고 민족의식의 고취가 우선 통일문제의 내부적 촉진제임은 두말할 여지가 없으며 그에 따른 민족문학의 육성방안은 정말 중요한 문제임을 다시 한번 강조해 둔다.

진정 통일의 문제는 무엇보다 시급한 거족적 임무이며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내에 달성되기 위해서 민족적 자각이 다시 한번 강조되어야 할 줄 믿으며,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진정으로 민족의 주체역량의 배양으로 우리가 원하는 승공 민주 통일에의 촉진이 민족의 정신을 일깨우는 문학·문화·예술등의 총 동원 태세를 촉구한다.

<우 수 작>

아버지의 소원

양 미 경

(경기소사농공고, 농2)

그러니까 지난 여름이었다. 서울에 사시는 아버지의 친구분들이 집엘 놀러 오셨다. 물론 시골에 있는 우리집에 피서삼아 오셨으리다. 뒷들의 옥수수며, 찌먹는 호박, 교구마등에 술상을 차려 놓고 하신다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다 같은 고향 이야기였다. 물론 아버지의 고향 친구들인 까닭도 있었겠지만 커다란 옥수수며 사과 나무 또 주렁주렁 열린 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야기의 줄거리가 되었으리라 나는 생각된다. 옆에서 듣고있던 나는 점점 흥미를 느껴지기 시작한 것은 그분들이 고향 어릴 때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속옷만을 입고 가재를 잡던 이야기며, 눈 나릴 때의 산토끼 사냥, 꿩을 잡던 이야기며, 뱀을 잡아먹던 이야기 모든 것들이 나의 흥미를 돋구었고 시골에 살면서도 아직 잘 적응치 못하고 있던 자신에게 한없는 상상의 날개를 펼 수 있게 해주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그분들의 표정은 모두 하나 같았고, 또 모두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다. 이야기중의 하나는 이러한 것도 있었다. 튀고하니 그 사람들 중 한 사람은 북한에서 정말 굉장한 지주의 아들이 었나 보다. 물론 그는 갖은 박해와 고통을 받았고 결국에는 남하를 해야만 했었다. 그가 어머니를 따라 남하한지 이미 몇십년 그는 적당히 출세를 할 수 있었고 어머니를 편히 모실 수 있으리라 생각 되던 때, 어머니는 아들의 손에 낡은 땅문서를 쥐어 주며 돌아 가셨다 한다. 아들도 모르게 몇십년 그래도 그녀는 한가닥 희망을 보며 살아왔고 그토록 통일의 외침을 속삭이며 살아 왔지만, 결국은 이대로 죽고 만다는 말도 했다고 한다. 그리고 통일이 되면 고향의 아버님 무덤에 찾아가서 꼭 별초를 해야 한다며 부탁하시고 돌아 가셨다 한다. 나는 그녀가 품속에 감싸고 기다렸을 통일에 대해 어렴풋나 나람대로의 생각이 있어 서글픈 심정이 되기도 했다.

물론 누구든지 어느정도의 슬픔이 없으리 없었다. 다 그들 나름의 이야기였고 모두 다 흥미있는 이야기였지만 결론은 모두 한 초점에 집중이 되었다.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악랄한 통일의 절규였다. 지금은 모두 저명인사들이 되었지만 그들은 하나같이 고향을 그리워 했고 농부의 자식이었던 어린시절을 다시금 얘기하며, 소박하던 고향풍경들을 그리워 하며 돌아가고 싶어했다. 난 그 얘기들을 들으며 그들의 고향이라는 양덕을 그려 볼수 있었고 정말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실감할수 있었다. 특히 아까 그 이야

기를 하시던 분의 눈에 글썽거리던 눈물을 볼 수 있었고, 그랬기에 좀더 실감이 났는지도 모르겠다. 특히 고향에 대한 이야기라곤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던 아버지께서 얘기를 하시는데 더우기 나는 놀랐다. 난 그 때 처음으로 아버지 고향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고 또 굉장히 놀랐다. 그날 저녁 유쾌한 심정으로 모두 돌아가신 뒤 아버지는 죽 불쾌해 하셨다. 아무 말씀도 없으셨고 표정은 연상 무표정이었다. 다른 때에도 별로 말씀이 없으시던 터라 별로 관심이 없었다. 그날밤 나는 잠꼬대 소리에 잠이 깨었다. 아버지께서는 다음과 같은 뜻으로 계속 잠꼬대를 하시는 것이었다. “나는 이제 육신은 틀렸으니 죽어서 혼만이라도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나는 약간 서운한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지금의 생활에 불안이 돼서 떠나신다고 하시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생활에 극히 만족하시며 자식을 키우는 보람에 사시는 아버지께서 그러시지 않으시리라고 난 확신한다. 일어나 앉아서 담배를 피우시는 아버지의 모습은 흡사 혼이 떠나버린 육신 같았다.

나는 약간 무서웠다. 식구들이 모두 일어나 있었으나 모두 조용히 있었다. 물론 어머니께서도 아버지를 부르실만큼 큰 용기는 없으셨던 것이다. 한참후 아버지께서는 모두다 자라고 하시며 그대로 앉아 계시는 것이었다. 물론 다시 잠들 사람도 없었거나와 잠이 달아난지 이미 오래였다. 또 한참만에 아버지께서는 고향집에 대해서 얘기를 해 줄테니 잘 들으라고 하시며 얘기를 시작하셨다. 동생들이 좋아하는 꼴을 보고 나는 그래도 난 좀 철이 들었다고 느꼈다. 이래 시작된 아버지의 말씀은 끝일줄을 몰랐다. 이를테면 우리집은 본래가 천도교였으며 할아버지는 3·1운동을 이끌어 나가신 선봉자였고, 개화문명에 제일 앞장을 섰으며, 그모

님은 어떡했었다고 나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그려 보았다. 허연수 옆의 점잖은 학자 타입임이 틀림 없다고 펜스때 확신 지었다.

이야기가 거의 끝날 무렵에선 날이 새고 있었고, 일어날 시간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대로 기상이 되어 버렸다.

그날부터 아버지의 모습은 애처로우리만치 안타가웠다. 며칠후 성적표가 나왔을 때 우리들은 자랑스럽게 아버지 앞에 내어 놓았다. 그때야 아버지의 미소를 보았고, 너희들을 위해 산다는 아버지의 말씀이 다시 한번 흘러 나왔다. 그 때부터 우리는 아버지를 기쁘게 헤드리기 위해서 많이 애썼다. 그후 아버지는 그전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그전의 일은 이미 지나간 일이 되어 버렸다.

이렇듯 지나간 일이 돼버렸지만 지금도 간혹 생각이 나곤 하는 것은 요즘의 어지러운 세상탓도 있으리라 며칠전에 주어본 뼈라에는 벌써 데모사건이 실려 있는듯이 보였다. 물론 나는 요즘 돌아가는 선거전이니 데모니 하는 것이 깊은 관심은 없다. 하지만 외면할 수 만도 없는 처지니 만큼 고개를 돌릴 수 만도 없는 일인 것이다. 그러나 또 심각하게 생각해도 소용없는 일일 것 같다. 외면할 수도 직면할 수도 없는 현실이고 보면 자신은 그저 직분에 충실하면 되리라 생각이 된다. 아버지 친구분의 어머니처럼 통일을 바라며 조용히 삶을 이은 것처럼 나도 그 침묵을 닮아야 할 것 같다. 물론 내가 침묵을 깨뜨려 본래야 별 소용이 없겠기에 말이다 또 그리고 난 어떠한 방식으로 통일이 성취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승공 민주통일을 꼭 이루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 할 수 없다. 저번의 박정희 대통령님의 평화통일안이며, 선의의 경쟁의 성립될지 아니면 무기만이 통일의 근본책이 될지, 이것은 오직 북괴가 정말로 평화통일을 원하는지의 여하에 달렸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 선조님들의 넋을 어이 달래야 할 것인가? 우리 아버

지가 이대로 통일의 외침을 거절 당한채 묵묵히 그대로 있어야 할 것인가?

또다시 지난일처럼 그런일이 되풀이 되어선 안된다. 것처럼 혼만이라도 고향에 돌아가고 싶다는 절규를 김일성이는 듣고 있을까? 물론 들었더라도 꺼떡없을 줄은 알지만 그래도 한번쯤은 생각해 보는것도 이제 통일의 외침이 알뜰한 입가에서 감돌고 그나 이 말라 가려는 순간 순간에서 우리는 민족 중흥을 타고 났다는 의무감에서라도 우리는 기어이 통일을 이루어야 하겠다.

멀리 북녘 하늘을 바라보며 한숨짓는 풍경이 없도록 너나 나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힘을 써야 하겠다.

<우수작>

다시 태극깃발을

박 응 이

(북포문태고 3-3)

토요일 오후면 난 거의 습관처럼 이웃에 있는 대추 할아버지의 집에 놀러가곤 했다. 그 할아버지의 얼굴이 대추처럼 생기고, 또 빨강대서 대추 할아버지가 아니라, 그 집 마당에 커다란 대추나무가 한 그루 있기 때문인데 해마다 대추가 익을 때가 되면 그집대문 밖엔 동네 조무래기들이 잔뜩 모여 서성거리기가 일수였고, 그럴라치면 이 인심 좋은 할아버지는 꼬마들에게 대추를 나누어 주고는 그들의 좋아라하는 모습들을 빙그레 웃음 띤 얼굴로 지켜보는 것이었다.

내가 이 할아버지와 친하게 된 건 국민학교 5학년 때였다. 그 당시 그집 앞엔 꽤 넓은 빈터가 있어서 항상 동네 꼬마들의 놀이터가 되어왔었는데 나도 곧잘 단짠 식이와 함께 그곳에서 공놀이

를 즐겼었다. 그런데 어느날 우연히도 내가 던진 공이 너무 높아 올라가 담장을 넘어 대추나무에 맞고 마당으로 떨어져 버렸다. 마침 대문이 조금 열려져 있었는지라 식이가 살금살금 들어가서 공을 주워가지고 나왔는데 놀랍게도 그는 호주머니에서 대추를 한 움큼 꺼내 보이며 싱긋 웃는 것이 아닌가. 알고보니 공을 주우려 갔을 때 대추 몇개가 공에 맞아 떨어져 있는 걸 보고, 피를 부려서 일부러 다시 공을 던져 대추를 떨어뜨려서 주워가지고 온 것이었다.

그 뒤로 우리는 가끔 대문이 열려 있을 때면 그러한 서툰 연극을 했고, 어떤 때는 안에서 들리는 할아버지의 기침소리에 깜짝 놀라 후닥닥 뛰어 나온 적도 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우리의 연극은 마침내 탄로가 나고야 말았다. 호랑이도 꼬리가 길면 잡힌다는 말이 들어맞았구나 싶었다. 그러니까 대청 마루쪽을 훌깃 훌깃 살피며 대추를 줍던 우리는 매마침 “거기 누구냐?”하면서 문을 벌컥 열고 밖을 내다본 할아버지에게 그만 들키고 만 것이었다. 우리 얼굴이 빨개져서 호주머니에 막넣으려 하던 대추를 힘없이 손에 쥐고 엉거주춤 서있을 수 밖에 없었다. 나쁜 짓을 하다 들켰다는 불안감과 수치심에 작은 가슴은 팔딱거리고 자연스럽게 술술 나올 것 같던 변명도 목구멍 안에서만 맴돌 뿐이었다. 아무튼 그때 한바탕 할아버지의 호통이 터져 나올줄 알았던 우리는 뜻밖에도 빙글 빙글 웃으시며 다가온 할아버지에게 손목을 잡혀 방문을 들어서자마자, 또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으니, 방 아랫목 바둑판 앞에 바로 아버지가 앉아 계셨기 때문이었다. 아버지께서 계면쩍은 듯이 우리를 가볍게 나무라셨고, 할아버지는 그저 곱곶 웃으시면서 우리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다. 그리고 한참 후 식이와 나는 호주머니 속에 가득 들어있는 할머니께서 주신 대추를

만지작 거리면서 아버지와 함께 그 집을 나왔다. 오는 길에 아버지께선 얼마 전 기원에서 그 할아버지를 아시게 됐다고 하셨다.

그 후 난 자주 이 할아버지덕엘 놀러갔고 할아버지께서 톱툰이 가르쳐주신 바둑에 취미도 붙이게 되었다.

할머니와 단 두분이 사시는 할아버지는 나이가 70이 가까왔지만 아직도 젊은 사람 못지 않게 정정했고, 시골에 있는 꽤 많은 논밭은 소작을 주어 생활은 넉넉한 편이었는데, 그동안 소작을 맡아오던 사람들에게 머지 않아 토지를 싣 값으로 팔고, 그 돈을 은행에 예금해 두고 그 이자로 생활해 나가겠다고 하셨다. 또 슬하엔 2남매를 두셨었는데, 딸은 오래전 E여대를 나와 주미대사관에 근무하는 남자와 결혼해서 지금은 미국에서 살고 있으며, 매달 꼬박 꼬박 소식을 알려온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부모의 극력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년시절에 좌익운동을 했는데 6.25때 행방불명이 됐다고 하시면서, “망할 자식이지… 애비애미 속도 모르던 놈…죽지나 않고 살아있는지 몰라…”하고 중얼거리며 벽에 걸려 있는 아들인 듯 싶은 청년 사진을 멍한 눈길로 바라보시는 것이었다. 딸년에 단 하나 의지하고 살아온 아들이 행방불명이 되고 영영 소식이 없어 안타깝고 외롭기 짝이 없지만 그래도 한달에 한번씩이나마 보내오는 딸년의 편지나 사진들로 크나큰 위로를 받으신다고도 하셨다. 어쨌든 난 이 외로운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귀염을 받았고, 해마다 설날 아침이면 아버지와 함께 세배를 드리러 가곤 했다.

× × ×

얼마전 토요일 오후였다. 어느 때처럼 대추할아버지덕 대문을 들어서선 나는 할아버지의 하얀 고무신 옆에 뽀얀뽀얀 윤이 나는 구두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누굴까?) 아버지의 구두는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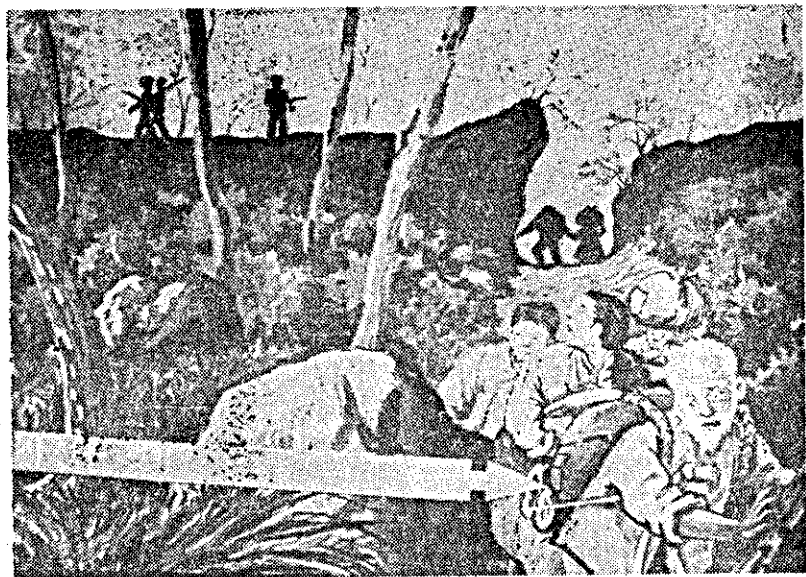
니었다. 추수 때마다 시골에서 올라오던 농부의 신발갈지도 않았다. 처음 온 손님일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들어갈까 말까 하고 망설이다 낯선 손님 때문에 들어갈 마음이 내키지 않아 발길을 돌려 버렸다. 그런데 이번 토요일 할아버지댁에 놀러간 나는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전번 토요일의 그 구두의 입자가 바로 6.25때 실종됐던 아들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그놈 달로는 처음엔 좌익운동을 했었지만 뒤엔 차차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마음이 변했다더구나, 그런데 6.25가 터져 입장이 난처해 지자 일본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어느 교도 실업가를 만나 그분의 도움으로 취직이 됐었고, 지금은 조그만 회사까지 가지고 있다지 않나...아, 글썄, 그놈이 여태 그렇게 멀쩡하게 살아 있었으면서도 이렇다할 소식 한번 전하지 않았다니...” 웃는 듯 우는 듯한 할아버지의 표정 속에 마치 죽었던 아들이 살아서 돌아오기라도 한 듯 벅찬 감격의 빛이 역력했다.

집에 돌아온 나는 아버지께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 드렸다. 아버지께선 자못 놀랍다는 눈길로 나를 한참동안 쳐다보시더니 내 이야기가 끝나자 양미간을 살짝 찌뿌린 아버지의 표정에 문득 옅은 의혹의 빛이 스쳐가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내 방으로 돌아오자 나는 곰곰 생각해 봤다. 무엇인가 어렴풋이 느껴지는게 있었다. — 좌익운동, 밀항, 10년..., 무엇보다도 좌익분자였다는 것이 꺼림칙했다. 일본으로 밀항했다는 것도, 10년 간이나 소식 한번 없었다는 것도 이상했다. (그렇다면 혹시...?) 별안간 나는 무서운 생각을 떨어버리려는 듯이 벌떡 일어나 카텐을 걷고, 창문을 열었다. 구름 한점 없는 파아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멍한 눈길을 하늘로 보내며, 내 상상은 다시 엉뚱하게 비약하고 있었다. (6.25때 월북을 했다하자. 거기에서 공산당 간부 노릇이나

하다가 밀봉교육을 받고 간첩으로 남파된 게 아닐까? 그것을 위장하기 위해 일본으로 밀항했다고 꾸미고, 또 상당한 금액의 (공작금) 사용에 대한 구실은 회사 사장쯤 됐다는 말로 끝을 맺어야 했을 것이다) (대추할아버지의 아들이 간첩...) 나는 온 몸을 조이는 두려움과 불안감에 떨면서, 제발 이것이 단지 내 부질없는 공상으로 그치길 바랐다. 만약 불행하게도 내 상상이 들어맞는다면 대추할아버지는 어떻게 될까 생각하니, 아까의 생각들을 애써 부정하려 했지만 그럴수록 그것들은 더욱 엄연한 사실처럼 내 뇌리 속을 파고 드는 것이 었다. 이렇듯 불안하고 초조한 검은 의혹의 구름에 싸인 채로 나는 몇날을 보냈다.

× × ×

“뉴우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7시 중앙정보부 발표에 의하면 일본과 부산을 거점으로 한 북괴 간첩단 일당 23명을 모조리 검거했다고 합니다. ...” 어느날 아침 라디오를 듣고 있던 난 깜짝 놀랐다. 며칠 전의 그 꺼림칙한 생각들이 어지럽게 내 머리 속을 맴 돌았다. 나는 또 무거운 불안과 초조 속으로 빠져 들어갔다. 웬지 대추할아버지의 아들이 분명히 간첩일 것이라는 생각은 점점 뚜렷해 졌기 때문이다. 불쌍한 대추할아버지의 고통으로 이그러진 얼굴이 클로즈업되어 왔다. 아나운서의 말은 계속 흘러나왔다. “그런데 자수한 간첩 ×××는 좌익분자로 6.25당시 월북하여 공산당 간부로 활약하다가 최근 밀봉교육을 받고, 재일교포 실업가로 가장, 한달전 국내에 침투하여 활동하다가 그의 노부모가 살고 있는 ○○시의 집에 돌아와 ○○시 공작책 ×××와의 접선을 기다리던 중 남한의 눈부신 발전상과 희망과 기쁨에 넘친 국민들의 생활 상태를 보고, 자기가 북괴의 허위선전에 감쪽같이 속아온 것을 깨닫고 자수를 결심, 지난 ○월 ○○일에 자유를 찾



아 자수함으로써 그 일당들을 검거하였는데, 그는 북한에 그의 처와 어린 삼 남매를 두고 왔으며...” 주먹을 꼭 쥐고 라디오에 귀를 기울이고 있던 나는 한바탕 휘몰아친 태풍이 검은 구름을 말끔히 걷어가 버린 것처럼 깊은 안도의 숨을 내쉬며 창문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 × ×

아버지와 내가 대추할아버지댁에 갔을 땐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아직 가시지 않은 놀라움과 흥분의 빛이 뚜렷했고, 할머니는 가끔 눈물을 흘리시는 것이었다. 아들은 부산으로 반공강연을 하러 갔다고 한다. 어제는 바로 우리 시에서 강연을 했었다. 어제의 그는 절규로써 자유를 애타게 그리며 노예상태에서 어두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북한 동포들의 구출을 호소했으며, 자유를 찾은 그

의 벽찬 감격과 국민들의 따뜻한 환영에 대한 감사를 그는 뜨거운 눈물로써 표현했었다.

(...이제 저는 옛날의 제가 아닙니다. 이제야 비로소 참다운 삶을 부여받고 태어난 것입니다. ...)

(...지금 이 순간 저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악독한 공산치하에서 신음하고 있는 험벗고 굶주린 수많은 동포와 불쌍한 저의 아내, 그리고 어린 것들 생각입니다. 인간으로서의 자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박탈당한 그들을 구출하는 길은 오직 단하나, 그것은 조속한 승공통일임을 절감합니다. 저는 이제 내피와 땀을 다 바쳐 승공통일의 대열에 앞장설 것을 맹세합니다...)

난 아직도 귀에 쟁쟁한 그의 목소리를 되살리며 이제야말로 대추할아버지덕엔 행복이 찾아왔구나 싶었다. 그러나 역시 그가 말한 대로 북한에서 시달릴 며느리와 보고픈 귀여운 손자들 걱정때문에 또한번 가슴아파 해야 할 그들을 생각하노라면 그저 안타깝기만 하다.

(북에 두고온 가족은 어떻게 될까? 절대로 무사할 수가 없을 거다. 그들도 여기서 함께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무거운 발길을 옮기며 나는 흰 구름이 두둥실 떠가는 파아란 북녘하늘을 쳐다봤다. 얼마나 슬한 동포들이 공산치하에서 시달리며 승공통일의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 대추할아버지덕에 무엇하나 빠진 것 없는 진정한 행복이 찾아올 날은 그 언제일까?

승공 민주 통일을 위한 노력의 생활화

박 영 동

(경부 협성상교 1-7)

이미 우리는 대한민국의 민주통일 방안에 정당함과 공산피뢰의 그 부당함을 알고있다. 우리의 국토통일은 우리의 가장 큰 과제이면서도 이것이 실현되지 못한 원인이 공산피뢰의 흥제와 교란 정책에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숙원이 손쉽게 이루어지지않을 현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생각해야겠다. 그것은 바로 승공의 태세와 우리의 모든면에 실력을 배양하여 공산주의를 압도함으로써 민주통일의 길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무릇 어떤 싸움이전 그 싸움에서 이기려면 상대방보다 실력이 우세하여야 한다. 공산당과의 싸움에서는 더욱 그러한 것이다. 우리는 정치·경제·군사·문화·사회생활등 어느면에서나 공산 북한과 비교가 안될만큼 월등한 실력을 배양하여야 할것이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조건이 충분히 있는 것이다. 문제는 그 조건들을 어떻게 잘 살리느냐에 있는 것이다. 몇가지 설명을 하여보면 첫째, 민주주의는 발전을 쌓은 역사가 성취한 가장 합리적이며 이상적인 훌륭한 정치제도이다. 그러기에 오늘의 공산주의자 조차가 가소롭게도 입으로는 민주주의라는 것을 열심히 내세우며 민주주의를 가장하려 든다. 그러나 독재를 원칙으로 하는 공산주의가 민주주의의 적이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 이러한 가짜 민주주의를 내세우고 나오는 공산주의가 우리의 진짜 민주주의와의 싸움에서 진짜 민주주의가 이긴다는 것은 자평한 일이다. 문제는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얼마나 훌륭히 발전시켜서 국민 모두가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며 잘살게 되느냐, 그리고 국민 각자가 다만 주어진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키는데 공동 책임을 느끼고 이에 기여하느냐에 우리나라의 장래는 달려있는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들의 자각의도는 날로 높아가고 있으니 우리의 전도는 실로 양양하다 할 것이다.

한편 공산북한에서는 독재자의 독재와 횡포는 날로 심해 가서 도탄에 빠진 주민의 질식상태는 극한에 도달하여 가고 있다. 요즘에 와서 월남 귀순자가 부쩍 늘는 것은 그 일면을 말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은 인민을 소와 말과 같이 혹사하고 그 피와 땀으로써 경제건설을 서둘지만 그것이 얼마나 허무하다는 것은 이미 공산사회를 건설한 반세기의 역사를 가진 소련의 실례에서 여실이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소련은 슬금슬금 경제제도의 개혁을 단행하고 있는 형편이다. 공산주의 경제제도의 근본적 모순은 모든 경제권을 공산당이 독점한 후 인간의 본성이요 본능이라고 할 수 있는 사유욕을 완전히 무시하는데 있다. 모든 경제권을 공산당이 독점하여 개인으로써는 어떠한 사사로운 생업도 할 수 없게 하고 모든 국민을 공산 독점기업의 노예 노동자로 부러덕으며 무제한 수탈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제도하에서 사람에게 생활 의욕이 날 리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공산북한에서는 처음으로 멋모르고 강제 동원된 소위 천리마 노동자들에 의하여 어느 정도의 성과를 올렸지만 1961년부터 시작한 소위 7개년 경제계획은 시작한 첫해부터 계획 미달이 연속하여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다. 이제는 북한 주민들이 죽도록 일해야 가난만 더해갈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또 소위 힘도 지쳐버린 것이다. 경제 계획이 이 모양이니 주민생활은 더욱 비참해 갈 뿐인 것이다.

이와 달리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는 어떠한가? 신생국가의 상례로서 우리나라 경제가 자리를 잡기까지 한 때 혼란기를 겪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 본성에 기초를 두고 자기 능력껏 활동하고 발전하는 자유 민주주의 경제제도에 입각하고서 계획경제의 좋은 점을 섭취하여 제1차 5개년 경제계획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였고, 계속 1967년부터는 조국 근대화대를 실현하기 위한 방대한 제2차 5개년 계획에 착수하게 되었다. 국민들은 이러한 경제 건설이 얼마나 절실한 국가적 과업이며 동시에 자기 자신을 잘살게 하는 방도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부지런히 일하고 물자를 아껴서 절약하고 저축하며 자기 자기맡은 분야에서 증산에, 건설에, 수출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계획 수행에 있어서도 한국은 공산 북한같이 국민을 희생시켜서 강행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잘살게 하면서 훌륭히 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 경제는 근년에 눈부시게 번영 발전하여 우방 국가들로부터 경탄과 찬사를 받고 있는 것이다. 한국 경제는 이미 북한노예경제를 훨씬 앞지르고 있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계획 경제와 배합된 우리의 자유 민주주의 경제제도의 장점을 잘살리어 나간다면 우리는 늦어도 1971년대에는 자유 민주주의의 소우원도우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굳힐 것이다.

다음 군사면에 있어서는 6.25사변의 쓰라린 경험에서 교훈을 얻은 우리 나라는 날로 국방력을 강화하기에 힘쓰고 더욱이 미국의 지원으로 국군 장비의 근대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제 우리 국군은 세계 제4위의 육군을 보유할지 오래며, 휴전선을 철통같이 방비하면서도 베트남의 공산 침략 저지에 우리 국군 용사들을 파견하여 그 용맹을 세계에 떨치고 있다. 이것은 김일성 일당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였으며, 그들의 철없는 무력 침략 야망을 위축시

키는데도 도움이 된 것이다. 그 밖에 우리는 북한보다 우월하는 인력과 외적지원을 가지고 있다. 남북한의 인구를 보아도 남한은 3,000만 명이 넘게 되었는데 북한은 1,300만 명에 불과하니 절반도 안되는 셈이다. 또한 국제적 지원세력을 볼 때 우리의 배후에는 세계 최강대국이요, 민주주의 기수인 미국이 있어서 우리 나라를 혈명거우로 도와주고 있음을 물론, 모든 자유민주 우방들이 우리 나라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유엔이 우리편에서 있다. 이 얼마나 믿음직한 일인가! 이에 비하여 북괴 뒤에는 소련, 중공이 있지만 근래에 중·소 분쟁속에서 북괴에 대한 지원이 적극적으로 못되며, 또 그럴 힘도 없는 형편에 놓여있다. 무엇보다도 북괴는 유엔을 적대시하고 있으니 국제적으로는 완전히 고립되어 있어서 이 방면에서도 그들은 우리에게 비할바가 못된다. 이상 몇가지를 보아서도 우리측은 북괴보다 월등히 많은 승리의 조건으로서의 우월점들을 가지고 있으며, 또 이제 그것을 잘 살려나가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압도적으로 우세하게 승공을 하기에 우리는 아직도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더욱 굳건히 하고 민주주의와 자유평등 원칙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이 나라에 알맞는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통일 이후에도 중요한 것이므로 우리는 조국의 근대화를 촉진하는 경제 건설에 더욱 정진하여 공업화에 박차를 가하고 수출을 증대하고 국민소득을 더욱 높여 번영을 가져와야 할 것이다.

이런 것은 어느 특정한 사람만이 하는 일이 아니다.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국민으로서의 모든 성스러운 의무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앞장서서 자기의 능력껏 진력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특히 우리 젊은이들은 국방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모두가 신

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또한 우리는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과의 우호관계를 더욱 긴밀히 할 것이며, 유엔의 지지를 더욱 확고히, 그리고 더욱 폭 넓게 획득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조국 통일은 우리 민족에게 이렇듯 절실한 지상 과업이기 때문에 우리 남북 5천만 전체 동포는 그것을 열망하고 고대하고 있는 것이며 우리의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인 대한민국 정부는 그 민족 총의를 집약하여 통일의 실현을 위하여 20년을 하루같이 꾸준히 노력하여 왔으며,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 사실은 한국 통일은 우리 한민족의 염원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계의 안전과 인류의 평화 행복을 바라는 모든 자유민주국가들의 공통적인 소망이기도 하였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 문제에 특수한 책임을 지니게 된 미국과 또 세계 평화 달성 기구로 조직된 유엔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한국문제 해결에 힘을 기울이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1948년 유엔에서 한국문제를 토의하고 유엔 감시하에 남북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 한국정부를 수립하도록 결의한 것은 한국 통일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적절하고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었던 것이다.

만일 이 때 공산측이 억지 고집으로 이 정당한 통일안을 반대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나라는 벌써 근 20년전에 훌륭히 통일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때부터 벌써 공산 통일이 아니면 어떠한 통일도 하지 않겠다는 흉심을 품은 공산측은 이 유엔 결의안을 반대하였으므로 유엔의 새로운 조치에 의거하여 자유 선거가 가능한 38선 이남에서만 총선거를 실시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몇몇이 수립된 것이다.

그후 유엔에서 한국을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는 승인을 하였고, 계속 대내 대외적 위신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는 수립될 때부터 공산당 강점하의 북한이 대한민국 품안으로 수복될 것을 기대하면서 선거가 실시되지 못한 북한지역 대표를 위하여 국회안에 100석의 의석을 비워놓는 문호개방의 야당을 헌법상으로도까지 베풀었던 것이다. 그러나 김일성 일당은 대한민국 국회로 들어오는 대신에 단길에 남한까지를 공산 통일하려고 6.25 무력 남침을 감행하여 이 나라의 통일의 길을 더욱 요원한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래도 통일은 안타까이 갈망하는 전 민족의 총의와 통일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루 빨리 실현시켜야겠다는 민족적 과제를 고려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만의 선거 주장을 철회하고 유엔 감시하에 인구 비례에 의한 남북 총선거를 즉각 실시하자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우리로서는 이 이상은 더 할 수 없는 최대한의 양보인 것이다. 이것은 오늘에 있어 가장 실현성 있고 합리적이며 적절한 방안인 것이다.

그러기에 이 방안은 국제적으로도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다. 1966년의 유엔 제21차 총회에서라도 이 방안은 공산측의 갖은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67대19표로 압도적 찬동을 얻었다.

남북 총선거를 실시하자는 그 방안에 대하여는 심지어 공산측도 정면으로 반대를 하지 못하고 말로는 찬동한다. 그러나 그들은 첫째로 유엔 감시를 반대하고 어떠한 외국의 간섭도 없이 순자주적으로 라는 허울좋은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누구가 외국의 간섭을 좋아하고 자주적인 것을 마다하랴! 그러나 거기에는 그들의 흉계가 숨어있는 것이다. 공산당이란 선거에서나 그밖에 어떤 일에서도 사기, 날치기, 비밀공작, 파괴공작, 폭력 등 합법, 비합법의 갖은 수단 방법을 다하는 자들이다.

바로 그런 것을 타산하는 그들이기에 공산당은 제3자의 선거감시를 거부하는 것이다. 그러나 바로 그런 사실을 잘 알기에 우리는 공정한 선거 감시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만일 남북 총선거에 감시자를 구한다면 누가 가장 공정하고 적절한 감시위원이 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오늘날 세계에서 공산제국까지를 포함한 최대의 국제 기구이며 가장 권위있고 공정한 세계 평화 수호기구가 조직된 유엔 이상의 기구가 있을 수 없다. 북괴측이 주장하는 소위 중립국이란 6.25 당시 참전하지 않은 국가를 말하며, 따라서 소련도 중립국이라고 보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산측이 한국 총선거에 유엔 감시를 반대하는 것은 공정한 감시하의 선거에서는 자기네가 참패할 것을 잘 알기 때문인 것이다. 이 역지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그뿐이 아니다. 김일성 일당은 또 인구비례에 의한 대의원 선출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즉 인구야 어떻든 남북의 대의원 수를 각각 통수로 하자는 것이다.

3,000만의 남한과 1,300만의 북한이 어떻게 대의원 수를 같이 할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절대로 안될 말이다. 유엔 감시하의 인구 비례에 의한 남북총선거 이것은 오늘에 있어서도 가장 실현성 있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통일방안이다. 그러기에 우리 정부는 꾸준히 이 방안을 주장하며 그 실현을 위하여 다년간 줄기차게 노력하여 왔으며 앞으로 더욱 노력할 것이다. 세계 여론도 유엔 정신에 부합되는 이 방안에 찬동하고 있으며 정의와 세계평화를 바라는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이 방안을 지지하며 그 실현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고 있는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방안의 정당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내외 정세와 조건에 커다란 변동이 없는 한 오로지 이 방안

에 의한 통일의 실현을 위하여 민족의 모든 힘을 합하고, 각자의 있는 힘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한가지 있다. 그것은 민족적 단결을 한층 더 공고히 하는 일이다. 우리 나라는 민주주의 사회이므로 여러가지 문제에 대하여 여러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공산주의를 압승하고 민족통일을 이룩하며 이 조국을 더욱 발전시켜야겠다는 엄숙한 민족 과제 앞에서는 이론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 한 가지 점에서 우리는 국론을 통일하고 그 국론에 전민족이 굳게 굳게 단합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국론 통일에 의한 국민의 총화가 이보다 절실한것은 없다. 그렇게 하여야만 북한 동포들도 우리를 더욱 의지하게 되고 국제적 지지도 더욱 확고해 질 것이다. 단결은 힘이다. 만일 우리가 정말로 민족적 단결만 훌륭히 이룩한다면 우리는 못할 일이 없다. 민족의 총단결력과 그것이 배양한 실력에 의하여 우리는 자연적으로 민주통일의 길이 열리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 북한에서의 공산학정은 날로 심해가고 있으며 경제는 퇴락해 가고, 인민생활은 더욱 더 비참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곤경에 시달리는 북한 동포들이, 남한에서는 모든 국민이 더욱 자유롭고, 더욱 부유하게 잘살아 가고, 국가는 훌륭히 발전하고, 국위는 날로 선양되어 가고 있으며, 민족적 단결이 반석같이 굳어가고 있는 것을 알게 될 때, 용기와 신념을 갖게 될 것이며, 우리에게 호응하여 김일성 일당 타도에 궤기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민족적 총단결로 공산당을 압도 할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실력을 기른다면 우리는 총선거 방법에 의하건, 또는 북한 동포의 의거 궤기에 의하건, 기타 어떠한 방법에 의하던 간에

우리는 반드시 공산당을 물리치고 우리가 염원하는 민주주의 통일
 일을 이룩하게 될 것이다. 그날 승공통일의 그 날을 하루빨리 앞
 당기기 위하여 우리는 모두 다 같이 슬기롭게 일어서서 줄기차게
 나아가야 하겠다.

통일을 위해 우리가 할 일

과 정 순
 (경북 울산여상고 3)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염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민족의
 영원한 통일일 것이다. 그것은 비단 나만의 염원이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의 절실한 염원이요, 숙원인 것이다. 우리는 혈통을 같이
 하고, 언어 문화를 같이하는 단일민족으로써 조상들이 물려준 기
 림지고 아름다운 강토에서 오랜 민족생활을 하여온 것이다. 그리
 고 우리는 유일한 단일민족임을 자랑하여 왔다. 그러나 오늘날의
 정세는 어떠한가? 단합하여 살아오던 그 옛날의 생활상은 까마
 득히 물어버린 채 서로 헐뜯고 싸워야만 하며 치열한 혈전 4만세
 기가 지난 오늘날에도 복괴는 또 한번 이 강토를 피로 물들이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을 볼 때 실로 비통한 마음을 아
 니 가질 수 없는 것이다. <이보>족과 <하우사>족의 대립에서
 발달한 <비아프라>의 현실이 세기에 걸친 인류사상 최악의 불
 행이고 비극이라고들 한다. 그러나 비아프라의 비극을 우리들의
 현실과 비교할 때, 비아프라의 그들은 민족간의 권익을 내세운 실
 리전이라는 데서 상이한 점이 있을 것이다. 민족의 권익다툼이
 아닌 우리의 현실을 가리켜 오늘날의 인류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

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결코 비아프라의 비극이 금세기 최악의 불행이라고 단정지을 수 만은 없는 민족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국토분단 25년동안 동족간에 총부리를 겨누며 피를 흘리고 남북을 가로질른 38선 이북, 그곳에서 간악한 북괴무리에게 신음당하고 있는 선량한 우리 동포를 생각할 때 정말 비통한 마음을 아니 가질 수 없는 것이다. 더구나 우리의 이 비극은 우리 민족의 자주적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2차 세계대전을 끝맺으려던 전승 열강연합국 스스로가 만들어낸 부자연, 불합리한 비극이라는 데 더욱 분한 마음이 드는 것이다. 어쨌던 우리는 한반도를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가져야 한다는 불합리한 모순을 하루속히 제거해야만 한다. 그리고 민족적으로 단합해야만 한다. 일각이라도 빨리 철의장막을 거두어 버리고 싶다. 비록 알프스의 절경을 못볼지라도 우리의 조상이 물려 준 이 강토의 수려한 절경만은 속속들이 구경하고 싶다— 백두산의 천지를, 대동강가에 우뚝 섰다는 모란봉을, 그리고 금강산 일만이천봉을…… 이렇게 아름다운 강토에 살면서도 구태여 외국을 찾아야 하고, 그토록 충분한 자원을 갖고서도 외국의 것을 수입해야만 하는 우리들이야말로 실로 얼마나 불행한가. 앞서도 말한 바와 같이 우리의 이러한 불행을 제거 하려면 하루속히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우리의 지상과업인 이 통일을 이루려면 끊임없는 의지와 노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6.25와 같이 동족의 가슴에 총부리를 겨누는 그런 무력적 방법은 갈망하지 않는다. 박대통령의 8.15선언에 의한 바와 같이 우리는 어디까지나 평화적 방법으로 이 국토를 단합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박대통령의 8.15선언과 같이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 꾸준히 그들을 설득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이런 영광스런 방법으로 통일을 이룰 때, 우

리는 더욱 자랑스러운 민족으로써 세계를 살아갈 수 있으리라 굳게 믿어진다. 그러면 이러한 평화적 통일의 목적 달성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내 나름대로 이야기 하려 한다.

첫째,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민주주의가 공산주의 보다 우세해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특히 정신적으로나 능력면에서도 우세해야 참다운 승공이 가능한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만연하고 있는 부정부패 사회악의 악순환을 단절하고 국민정의가 이 부정부패를 추방할 수 있는 정신적 자세 확립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런 데서만 북괴 치하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 동포를 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민주주의를 잘 운영하고 실천해야 한다. 지난 25년동안 인간성을 기만 역행하고 인간을 한낱 기계의 노예로 밖에 여기지 않는 야수적 방법으로 지배체제를 유지해온 공산치하에서 살아온 우리 1천여 백만의 동족에게 인간성을 회복시켜 줄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자유, 민주주의하에 살고 있는 우리의 책임이며 과업인 것이다. 국내에 있어서 어떤 형태로든 민족을 분열시키는 행위는 뿌리뽑아야 한다. 국토통일을 대비하여 그새 전혀 다른 형태로 살아온 또 다른 인간들을 융화하고 소화하여, 한 민족으로 다시 환원시킬 수 있도록 지금 부터 우리가 단일 민족이 되는 행동, 사상과 삶이 있어야 하겠다.

둘째로 우리는 우리의 경제를 자립시켜야 할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인민을 소나 말과 같이 혹사하고, 그 피와 땀으로 경제 건설을 서두르지만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헛된 일이라는 것은 이미 공산사회건설 근 반세기의 역사를 가진 소련의 실례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반대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펴 볼 때 신생국가의 상례로써 우리 나라 경제가 자리를 잡기까

지 한 때 혼란기를 겪은 것도 사실이지만 어디까지나 인간 본성에 기초를 두고 창의와 능력을 최고로 발휘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경제제도에 입각하고 동시에 계획경제의 좋은 점을 섭취하여 제1차 5개년 경제계획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였고, 계속 1967년부터는 조국근대화를 현실화 하기 위한 방대한 제2차 5개년 계획에 착수하게 되었다. 국민들은 이러한 경제건설이 얼마나 절실한 국가적 과업이며, 동시에 자기자신을 잘살 수 있게 하는 방도인가를 잘 알기 때문에 부지런히 일하고 아껴서 저축하며, 각기 맡은 분야에서 증산, 수출, 건설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의 지상 과업인 평화적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립경제의 기반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

지금 우리는 이 자립경제 달성의 대열에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그 결과로 우리의 고장 울산이 고도화된 공업도시로 변모한 것이다. 청청하던 장생포 앞바다 맑은 물에 시꺼먼 기름기가 밀려옴과 동시에 거대한 유조선이 들어서고 휘발유 한 방울까지도 수입에 의존하던 모든 유류는 국내 총족에 모자람이 없게 되었으며 입해 곳곳마다 거대한 공장이 들어서고, 하늘 높은 것을 모르고 공장굴뚝은 위로만 치솟아 가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자립과 경제성장의 심볼인 경부 고속도로가 개통되었음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경제비약을 남한에만 그치지 말고 북녘의 산악지대까지 우뚝우뚝 세워야 하며, 힘차게 뻗은 고속도로의 줄기도 백두산과 압록강까지 뻗게 해야만 할 것이다. 국제무대에서 힘을 견주고, <유엔>의 광장에서 실력을 견주고, 우호 국가간의 폭넓은 견지에서 힘을 겨루어 이기고, 이것을 통일의 발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었을 때 통일은 우리의 것이며, 어두운 북녘땅에서 괴뢰집단에 신음하는 우리의 동포를 희생없이

모두 구출해 낼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루한 후진국의 굴레를 벗고 전진해 왔으며, 낙후한 비애를 제거하기 위해 <해머>의 고동소리를 높이 들고 있는 것이다. 통일에 앞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중진국으로 올려놓은 국가를 70년대가 다가기전에 상위중진국으로 올려놓을 것이다. 또 선진제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세계부강>의 한국을 심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내 조국을 만들기 위해 혈투고 파괴하는 사심을 버리고, 오로지 너와 내가 없는 혼연일체의 단결만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국가의 경제를 좀먹는 밀무역등은 삼가야 할 필수조건인 것이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취해야 할 자세며 태도다. 언제나 선진의 나라에서 찾아 볼 수 있는 풍요한 마음 가짐을 갖고 빛나는 전진의 대열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국민모두가 이러한 정신무장을 갖추고 있을 때 통일은 더욱 가까운 날에 성취 할 수 있으며 손쉽게 우리의 숙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세제는 자주 국방력의 강화를 들 수 있다. 한 반도는 어느 누구의 땅도 아닌 바로 우리들의 국토다. 그러니만큼 우리의 힘을 다하여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군사면에 있어서는 6.25사변의 쓰라린 통고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은 우리는 날로 국방력을 강화하기에 힘쓰고 있다. 이제 우리 국군은 세계 제4위의 육군을 보유한지 오래며, 휴전선을 철통같이 방위 하면서도 베트남의 공산침략저지에 우리 국군 용사들을 파견하여, 그 용맹을 세계에 떨치고 있다. 이것은 그들의 어리석은 무력침략 야망을 위축 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무장공비로 부터의 피해를 막기 위해 향토예비군을 조직하였다. 이는 전방과 후방을 국민의 총력으로 지켜간다는 믿음직한 태세가 서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 밖에, 우리는 북한에 우월하는 인력

과 외적지원을 가지고 있다. 모든 자유 민주주의 우방들이 우리나라를 적극 지원하며, 무엇보다도 유엔이 우리 편에 있다. 그러나만큼 이 방면에서도 복귀는 우리에게 비할 바가 못된다. 특히 우리의 젊은이들은 이러한 긍지를 지니고 신성한 군사적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은 새삼 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다. 그리고, 미군철수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것을 극구 만류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 강토는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우리의 신성한 땅이니 만큼 이 땅을 지키는 의무를 타에 맡기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의 국력이 이까지 강화 되었으니만큼 우리는 그들이 물러간다 하여 조금도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우리는 남의 손을 빌리지 않고도 넉넉히 우리의 강토를 지킬 수 있다는 강한 긍지를 가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군사력의 강화 및 국군의 현대화를 위해 한층 더 뒷받침 해 줄 것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

올바른 민주주의 정신에 입각한 국민정신과 자립경제를 위한 검소한 생활 그리고 강력한 국방력을 위한 정신무장이 모두가 3위 일체로 되어 움직일 때 우리는 우리의 숙원인 국토통일을 하루라도 빨리 이룩할 수 있는 위대한 힘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는 바이다.

승공 통일의 길

한 상 남

(충북 제천여고 3학년)

「봄이 되니 진달래도

꽃망울을 맺는데

굳게 닫힌 휴전선아

너도 꽃을 피우지 않으련?

진홍의 장미가 아니라도 좋으니

연록색 잎이라도 피어서

민족의 설음을 달래어 다오」

군인 시절을 휴전선 근처의 최전방에서 보내셨다는 담임 선생님의 낙서장에서 발견한 시의 귀절이다.

휴전선아 꽃을 피워라 무성히 잎을 피우고 꽃을 피워서 험벗고 굶주린 북녘 동포에게도, 이 새봄의 환한 양광같은 자유를 맛보게 하여라.

성장한 봄의 여신이 춤추는 은누리에 우리의 다져진 힘과 정신으로 이룩된 찬란한 문명이 꽃피어 있으니; 민족의 대동맥으로 뻗어나간 고속도로와, 하늘을 찌르는 높은 벨딩과 우람차게 돌아가는 공장의 기계소리와, 삼천리 방방곡곡에 울리는 전설의 메아리여.

한때 뻘뻘스럽게도 제놈의 환갑 잔치를 서울에 와서 해 먹겠노라고 큰소리치던 김 일성이의 환갑날이, 어느날 어느시인지 모르지만, 이제 우리는 대망의 71년대를 맞아 지난 어느 때보다도 굳건한 정신무장과 새로운 각오아래 민족 중흥의 거룩한 성업을 이루는 승공통일의 길로 매진하고 있다.

과거, 일제 36년의 빠져린 수난의 역사속에서도 맥맥히 이어온 한 핏줄 한 문화에 국토 양단이라는 무도한 처사는 손바닥만한 나라에 민족의 갈림을 조작하는 슬픔을 만들어 냈으니, 단일 민족임을 자랑하고 삼천리 금수강산을 내몸같이 아끼는 우리들에게 조국이 허리를 잘리운채, 20여년의 참으로 오랜 세월이 흘러가고도 오늘도 녹슨 철조망 근처에선 흑의 그림자가 삐죽 삐죽 정체를

들어내고 있지 않은가?

20여년전 평화스런 마을에 불을 지르고 죄없는 백성을 끌고간 악마..., 겨레의 가슴에 총부리를 안기는 동족상쟁의 처참한 비극을 낳게했던 그날의 원수 김 일성은 아직도 속죄하기는 커녕 적화통일이라는 허무 맹랑한 망상아래 전쟁 준비에 광분하고 있는 것이다.

하루 아침에 미국을 다녀오고 하루 아침에 달 나라를 다녀온다는 좋은 세상에 왜 우리는 단 한 발자욱이든 갈 수 있는 금강산과 모란봉을 다녀올 수 없이 반공 반공만을 외치며 부모 형제가 갈라져 피땀한 원한을 품은채 살아야만 하는가?

우리집 꼬마가 이제 국민학교 2학년이 되었다.

“누나. 북한나라에도 국기가 있어?”

북한나라라니... 느닷없는 꼬마 동생의 질문에 나는 짜르르 전율같은 아픔을 느꼈다.

왜 자라나는 어린 새싹의 가슴에도 우리의 가혹한 숙명의 비애를 심어주지 않으면 아니되며 천진 난만하게 자라야 할 꼬마들이 피빛 분노에 떨도록 만들어야 하는가를 생각할 때 만고 역적 김일성이에 대한 크나큰 분노가 가슴깊이 용솟음쳐 오른다.

흐르는 강물이 역류할 수 없듯이 역사는 결코 거꾸로 흐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단언한다.

놈들이 아무리 잔악 무도하고 인간의 탈을 쓴 이리떼라 할지라도 우리의 위대한 정의의 전진앞에는 놈들의 단말마적인 발악은 오래지 않아 영원한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지고야 말 것임을.....

오늘도 북녘 동포의 피를 빨아먹지 못해 몸부림 치며 천 4백여만의 온 북녘 동포를 갖은 악랄한 수법으로 혹사 탄압해 인간 생

지옥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었으며 연전의 1.21 사태 이래 지금까지 쉬지않고 계속되는 만행은 서슴없이 양민을 학살하고 비행기를 납북하는가 하면 심지어 반짝이는 어린 눈동자까지 무차별 앓아갔으니 친인 공로할 놈들의 이 만행위에 어찌 하늘의 채찍이 없겠으며 “칼로 흥한자는 칼로 망한다”는 역사의 사실이 어떻게 이를 외면하겠는가?

가만히 심장에 손을대고 우리의 전신을 굽아치는 뜨거운 피속에 맥맥히 뛰고 있는 애국 선열의 만세소리를 들어보자. 그 옛날 왜적의 침입을 막기에 몸을 바치신 성웅이 충무공의 병사호국의 정신이며, 조국 광복의 밑거름으로 쓰러져가신 안중근·이준열사를 비롯해 수 많은 유명 무명의 애국 지사들의 독립 만세 정신이며, 철저한 희생정신과 동포애의 발휘로 국민을 위해 몸바치신 강재구 소령이래, 전 명세 기장에 이르기 까지 얼마나 많은 선열과 형제가 조국을 위한 뜨거운 애국심 앞에 숨져 갔는가.

“내일 죽어도 오늘은 사과 나무를 심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항상 투철한 정신무장과 굳건한 각오아래 말은 바 임무에 충실하는 생활을 영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수년전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은 그의 취임사에서 “국가가 국민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묻기에 앞서, 국민이 국가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스스로 물어보라”고 외친말이 있드시 이제 우리 나라야 말로 의인을 부르는 때요, 우리의 자발적인 애국심이 그 어느 때 보다도 강력히 요청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다.

자기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자 펜을 집어 던지고 조국에 돌아가 조국을 위해 싸우고 조국의 싸움터에서 몸바칠 굳건한 각오와 정신이 세워져 있던 대학생들이나, 부녀자와 여학생

이 앞치마에다 탄약을 나르고 탄약이 떨어지자 너도 나도 돌맹이를, 심지어는 병깨진 조각들을 피가 맺히도록 싸움터에 날라댔다는 저작은 이스라엘 국민들의 투철한 애국심은 남의 나라 이야기가 되어서는 아니되며 가벼운 감탄으로 흘러버릴 수 있는 얘기가 되어서는 안된다.

그들의 단결심과 차들같이 굳은 애국심을 본받아 우리는 우리의 국토 통일을 위하여 전 민족이 단결하고 슬기롭게 일어서야 할 것이다.

단결은 힘이다.

우리는 어떠한 사태나 위치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분란과 동요가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치고 협조해야 할 것이다.

온 민족이 승공의 이념으로 하나같이 뭉치고 단합하고 즐기차



게 전진해 나갈 때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벽이 무엇이겠으며, 우리가 이루어내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중단없는 전진의 해,

이 얼마나 절실한 우리의 구호인가?

우리는 뭉치고 그래서 전진해야 한다. 중단없이 전진하고 또 전진해서 우리의 사명 즉 민족 증흥의 위대한 성업을 이루는 그 날까지 너도 나도 피와 땀을 아끼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 나라가 훌륭히 발전하고 국위는 날로 선양되어 가고 있으니 우리의 역사 이래 참으로 지금같이 약진 한국의 모습을 세계에 들어낸 적도 없었으며 이러한 교도의 문명 발달로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고 세계 여러 나라와 발맞추어 전진해 나가는 때도 없었던 것 같다.

이는 오로지 자각하여 일깨워진 국민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이루어낸 또 하나의 창조이니 이제 우리는 우리의 역사적 사명인 민주통일을 기필코 이루어 길이 우리들의 후손에게 부끄럼 없는 빛나는 조상이 될 수 있어야 하겠다.

신라의 삼국통일의 원동력은 화랑도 정신에서 나왔다고 하지만 우리의 민주 통일의 원동력은 온 국민의 지표요, 나아갈 길인 국민 교육 현장에 입각한 애국 애족의 정신이어야 할 것이다.

북한나라의 국기가 어떻게 생겼느냐는 우리집 꼬마가 나만한 위치에 서고 더 나아가 우리 부모님의 위치에 섰을 때, 만약 그때까지 국토통일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그때에는 이미 우리 국민들이 북녘동포에 대한 동족애니 동포애란 것은 차차 자취를 감추어가고 민족 분단의 뼈저린 아픔조차 실감할 줄도 모르게 될테니 생각하면 아찔한 노릇이다.

우리는 더 이상 통일의 문제를 지체해서는 안된다.

통일은 우리 온 민족의 어깨에 짊어진 긴박하고 성스런 과업인 것이다.

분열된 민족은 반드시 다시 만나야 한다.

부모와 자식이, 남편과 아내가 다시 만나듯 그렇게 반가이 만나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더욱 귀중한 것은 우리가 국토를 통일하되 그것은 이리 떼같은 공산 괴뢰 정권을 뿌리채 뽑아 이땅에서 말살 시키는 승공 통일이어야 하며 태극기 아래 민주주의 체제 밑에 북녘 동포를 해방시키고 유엔 헌장에 입각한 남북한 종선거의 평화통일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확신한다.

여기 저기 하늘을 향한 공장의 굴뚝 연기가 치솟고, 막강한 우리의 국력 배양으로서 자립경제와 자주국방의 상승일로를 거듭할 때, 온 민족의 숙원인 국토 통일의 기쁨은 기필코 오고야 말리라는 것을.

가 로 수

손 종 칠

(충남 대전 보문고 1학년)

차창으로 내다 보이는 건너편 도로의 도로변에는 가로수의 행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군대의 행렬처럼 끝없이 이어지는 가로수에는 참으로 씩씩한 기쁨이 엿 보입니다.

파아란 하늘에는 구름 몇 조각이 자자분히 널려 있고 한창 익어가는 벼 이삭들이 금물결을 이루고 있는 오후의 들녘은 권태롭

기 보다는 더없이 평화로워 보입니다. 계속되는 가로수 푸른 나무들의 머리위에는 파아란 하늘의 푸름이, 가로수 그늘 아래를 서성이노라면 은은한 노래소리가 흘러 나오는 듯한 착각이 곧잘 들곤 합니다.

무슨 버릇인양 여름이던 겨울이던 방학이 되면 빠짐없이 외갓댁에 가는 내외갓집 여행은 사실 나를 끔찍하리만치 사랑해 주시던 외할머니의 그리움 때문에 시작되었지만 이미 외할머니께서 갑작스리 운명하신 뒤, 지난 몇년 동안은 차라리 내가 사는 도시에서는 도저히 맛볼 수 없는 농촌의 평화로움에도 있지만 실은 이 끝없이 나의 여정을 베타주는 가로수의 정다움에 그 이유가 있다고 나는 스스로 내 마을을 헤아려 봅니다. 그때가 아마 외할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한해 전 여름이라고 생각되나만 그때 난 외할머니와 함께 외갓집 뒷산 언덕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외할머니는, 혼자 매미를 잡으러 간다고 뒷산에 올라간 뒤 저녁때가 되도록 돌아 오지 않는 내가 걱정 되어 그 굽은 허리를 가까스로 주체하시며 언덕을 오르시다가 마침 산을 내려오고 있는 나를 발견하시고는 잠시 언덕에 앉아 가쁜 숨을 안정시키던 중이었습니다.

외할머니댁은 산등성이에 이루어진 동네의 맨 위에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에 황혼이 서서히 물러 가고 어스름이 희미하게 내리고 있었지만 큰 느티나무가 장승처럼 버티고 서 있는 동구며, 동구밖 멀리 역으로 나가는 큰 도로까지도 알아 볼 수 있었습니다. 외할머니는 그 무수한 주름이 조밀하게 낀 얼굴을 들어 멀리 동구밖을 응시하고 계셨습니다. 아마도 외할머니는 어떤 수심에 찬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 봅니다. 왜냐하면 외할머니의 얼굴은 일찌기 내가 볼 수 없었던 엄숙하기 보다는 차라리 비장하리만치 굳어져

있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내 손을 꼭 쥐고 있었던 외할머니의 손에서 더 세찬 압박이 가해 왔습니다.

“종구는 저 낱망을 넘어가면서 몇번이구 되돌아 서서 손을 흔들…… 그러드니 그만…….”

외할머니의 목메이는 음성엔 끝내 말을 맺지 못했고 급기야는 여윈 어깨를 들먹이는 호느낌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그때 난 멀리 언덕으로 뻗어나간 큰 길가의 가로수들이 마치 죽음의 대열같은 무서움을 느꼈습니다. 갑자기 어두워진 언덕의 숲과 외할머니의 심한 호느낌 소리에 끝내 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그때의 그 강열한 인상이 어찌면 나로 하여금 이렇게 가로수를 벗하게 해주는지도 모릅니다.

가로수를 따라 언덕길을 넘어 떠나신채 영영 돌아오지 않는 큰형, 원한의 6.25 사변이 일어날 당시 마침 몸이아파 휴양차 외갓집에 와있던 형은 본연히 가족을 찾으러 간다고 하여 만류하는 외가친척들을 뿌리치다 못해 남몰래 외갓집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형님도 정겨운 외할머니 만큼은 속일수 없었는가 봅니다. 눈물로 전송하는 외할머니를 뒤로 하고 어스름진 언덕길을 넘어 떠난 그 후 형은 가족들을 만나지 못했고 끝내는 자신의 마음먹은 대로 학도병으로 입대했다는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간 형은 그후 밤에 기습을 해온 적군과 싸우다가 아까운 목숨을 조국의 흙 위에 바치었던 것입니다.

외갓집을 떠날 때 아마도 형님도 나처럼 이렇게 차창 밖으로 내다 보이는 저 가로수의 행렬을 끝없이 바라다 봤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선 저 가로수 처럼 힘찬 대열에 끼어 불법 남침한 공산 괴뢰군 놈들을 남김없이 전멸시키리라 굳게 굳게 결심했을 것입니다. 끝내는 영영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났어도 형

님의 가슴 속에는 저 푸른 가로수의 힘찬 의지가 넘치고 마치 누런 곡식이 알알이 익어가는 들녘을 지키는 파수병처럼 서있는 가로수와도 같이 조국을 지키겠다는 사명감에 타오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멀리 또는 가까이 길을 따라 이동하면서도 가로수의 행열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는 한 여름의 가로수를 더 없이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겨울의 가로수를 덜 좋아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가로수 하나 하나에는 깊은 사연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추운 겨울날 가로수는 잎사귀며 철새며 이런 정다운 이웃들을 모두 떠나 보낸채 앙상한 가지뿐인 알몸으로 서서 온갖 시련들을 견디어 내야 했을 것입니다. 마지막 힘을 모아 뿌리털 끝으로 신비스런 기능을 다하며 그 추운 겨울 날에도 굳건한 생활을 계속했을 것입니다. 매서운 바람, 영하로 내려가는 무서운 추위에 이런 온갖 무서운 적들과 맞아 무수히 싸웠을 것입니다. 저 한 여름의 푸른 가로수는 그 추운 겨울날 끝까지 싸워서 그 많은 적들을 물리치고 봄날 새잎을 피우고 푸르름을 되찾았을 것입니다. 반드시 이런 이유에서만이 아니라 가로수는 불굴의 투지를 가진 용감한 청년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가로수는 지금도 사무 바람을 헤치며 이빠른 열차에 뒤질세라 따라오고 있으니깐요. 아니 그의 굳은 의지는 아마도 내가 탄 이 열차를 앞지르려고 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저 푸른 모습, 비록 마음씨 나쁜 차들이 뿌리는 먼지를 온몸에 둘러쓰고 있을지라도 건강한 몸을 자랑하며 버티고 있는 가로수의 모습은 정말 내 가슴에 깊은 교훈을 일러줍니다.

제각기 저마다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의 큰 대열을 이룬 저 가

로수의 대열은 비록 모두가 쓰러져 가더라도, 끝까지 진지를 사수했다는 내 형님의 부대처럼 용감한 부대인 것입니다. 어떤 적이 와도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가로수의 굳건한 의지를 내 마음에 가득히 지녀야겠습니다. 정말 내 마음 속에 푸른 가로수를 한 그루 심어야겠습니다. 아직도 끝끝내 따라 오면서 손흔들어 주는 저 푸른 가로수와 똑같은 나무를.....

열차는 산을 넘고 들녘을 가로질러 끝없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로수의 행렬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의 여정은 아직도 멀기만 한데...

승공적 국민의 자세

최 동 민

(전북 이리교 3-2)

60년대의 굵이를 돌아선 세계사의 격류가 거대한 적대 에너지를 한반도에 응결하여 또한번 전화의 피바람을 몰아 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민족의 숙원인 통일이 현실화할 수 있는 계기가 도래한다는 기대 속에 우리는 세계 속의 아시아, 아시아 속의 한국의 좌표를 다시한번 확인하고 그 속에서 민족 진로의 방향을 모색해야 할 운명적인 사명을 느끼며 70년대의 문턱에 들어선지 1년 4개월이 지나는가 보다.

돌이켜보면 오늘날처럼 우리들에게 있어 방첩 및 승공에 대한 범국민적 이념의 정립이 요청되었던 때도 일찌기 없었다. 자유데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8.15. 광복 후 25년이 그대로 공산주의와의 투쟁의 도정이었다고 할 수 있겠고 모든 국책의 방향은 항상 반공이란 기본 자세로 부터 출발하였던 것이지만 특히 우리가 어

느 정도의 경제 안정과 근대화의 지름길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는 최근 수년 사이에 방첩이나 승공의 차원도 현격하게 드높이지 않으면 안될 시기에 처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8.15 당시의 공산주의관이 그냥 “싫다, 나쁘다”하는 것으로 표현 될 수 있었다고 한다면 북괴라는 존재가 구체적인 적으로 등장한 오늘날에는 우리의 북괴관이 싫다, 나쁘다 하는 정도에 머무르지 않고 좀 더 근본 문제로 파고 들어가 어떻게 하면 그 싸움에서 승공할 수 있는가를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납득하지 않으면 안될 현실을 맞이한 것이다.

북괴는 북한 전역에 전쟁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60년대 후반에 이르러 무력 침략의 독아를 여실히 드러냈다.

북괴는 이미 1.21사태를 비롯하여 울진, 삼척, 주문진의 무장공비 침투사건, 흑산도 무장 간첩사건, KAL기 납북사건등 전면적인 도발은 아니라 하더라도 남침 전략의 일단을 노골화시켰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더욱이 70년대를 이룬바 “결정적 시기”라 택하여 무력 통일을 하겠다고 호언하는 오늘날 우리는 더욱 더 심각해지지 않을 수 없다. 지금도 그들은 절호의 시기를 노리며 주야로 칼을 갈고 정신 무장에 광분하고 있을 것인데 어쨌든 우리는 지금 역사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시기에 놓여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는 반공이란 소극적인 단계에서 좀더 적극적인 단계로 들어가서 승공으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반공을 말할 시기는 지났다고 할 만큼 심각해 지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당연하다.

좌우지간 우리는 어떻게든지 그들의 침략을 막아서 분쇄하고 승공 통일을 이룩해야만 할텐데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어떻게 해야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가? 여기서 말하는 어떠한 자세란

승공적 자세를 의미한다.

승공을 하기 위한 자세를 두 가지 면에서 살펴볼 때 하나는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유사시에 그들을 지체없이 분쇄할 수 있는 힘과 역량을 갖추는 물량적인 면이요, 또 하나는 승공 통일을 위한 정신적인 자세이다. 물론 이 두 가지중 어느 것도 등한히 여길 수 없는 중요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여기서 다만 전자의 것을 갖추기 위해서는 후자의 것, 즉 정신적인 올바른 자세가 반드시 함양되어야 하며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승공적인 정신 자세를 갖추는 것이 아닌가 해서 거기에 중점을 두고 피력할까 한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주동하는 것이 인간이요, 정신력은 위대하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 잘 아는 사실이지만 작년 6월에 국립 묘지 현충문의 폭파 기도 사건이 북괴에 의하여 저질러졌었다. 북괴 무장공비의 추격전이 벌어졌었는데 여러가지 웃지 못할 일들이 있었다. 수색전을 전개하던 중 매복 사병이 술을 먹고 난동을 부리는가 하면 무장공비를 잡는다는 한창 긴장 속에 작전을 전개하고 있는 바로 그 지역에 백여명의 사장족, 교위층 인사들이 자가용을 몰고와 공비잡는 것은 아랑곳 없다는 듯이 골프를 치고 있었다. 이 사실은 중대한 일이며 한탄스러운 일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승공 통일을 해야 할 사람들이 세상에 그럴 수가 있단 말인가. 우리에게 만일 승공 통일에의 신념이 없다면 우리는 승공 통일할 자격도 없는 것이다. 승공은 값싸게 제조되는 제조품과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승공을 하기 원하는 우리들에게 승공 통일에의 신념과 의욕이 뒷받침해야 하는 것이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승공을 하고만다는 투지와 용기가 있을 때 민족의 눈망울은 빛날 것이며 전진을 향한 발돋움은 더욱 힘찬 것이다.

홍콩에서 돈 잘쓰는 나라의 순위가 국민소득이 가장 약한 인도네시아가 1위, 한국이 2위라 한다. 거짓말이길 빌지만 이것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다.

우리는 국민소득이 높지 않으면서 왜 이토록 막대한 돈을 치장 내지 소비에 맡겨버리는가. 승공을 해야 할 우리들의 자세가 이래서야 되겠는가. 실로 우리와는 비현실적인 낙천배들이 우리 사회에는 너무 많은 것이 누구도 부인 못하는 사실이다. 우리는 승공을 하기 위해서는 사치와 소비 성향으로 치우친 국민 자세를 구축해야 하고 내핍 생활을 더욱 강화시켜야 하겠다. 우리는 지금 서구의 유행이나 좇고, 걸만 반지르하게 가꾸고, 환락에 젖을 때가 아니다. 손톱이나 길러 다듬고 드라이브나 하며 외제나 찾고 다니는 한가로운 시기가 아니란 말이다. 피맛을 보려고 우글대는 이리떼들 앞전에 있으며,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떨고 있는 우리의 동포가 있단 말이다.

“한국사람은 두 사람만 모이면 당파가 셋이 생긴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우리 민족이 단합심이나 단결력이 없고 분열한다는 말인줄 안다. 우리에게 있어서 커다란 허점은 바로 단결하지 못하는데 있지않나 생각된다. 한때 “뭉치면 살고 헤치면 죽는다”라는 표어가 우리 국민들 입에서 오르내렸지만 이것이야말로 승공을 해야하는 우리에게 적절한 말이 아닌가 한다. 서로 밀고 의지해야 할 인간 사회에서 인간성이 매말라버리고 협조 정신이 결핍된채 나만을 위하고 개인의 이를 취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오늘날의 사회에 있어서 절실히 요청되는 것이다. 단결하지 못한 민족이 흥한 경우는 찾아 볼래야 찾아 볼 수가 없다. 승공을 앞에 둔 우리들은 공통된 운명 의식을 가지고 조직하여 어떠한 복괴의 침략도 모두 참여해서 대결한다면 우리는 승

공을 이루고 말 것이다.

또한 동족의식을 승화시켜야 한다. 우리의 역사속에 나타난 비극들을 볼 때 즉 일본 사람들의 잔인하고 악독한 침략 지배밑에 있을 때 우리의 많은 선열들은 일인들의 돈에 매수된 쓸개빠진 한국사람들에 의해 채적으로, 발길로 두들겨 맞았고 공산당이 들어왔을 때도 동족 끼리의 이해 관계로 인해 무참하게 학살했던 것이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중공의 팽창, 동남아의 허약, 일본의 자국 영리 지상정책 그리고 북괴의 무력 도발행위 등등 불안하고 위협한 정세하에 있어서 이 천부의 자유국가를 수호 발전시켜야 하는 오늘 이때처럼 거래의 사랑 동족 의식이 아쉬운 때도 없다. 언젠가 우리는 세계 어느 공산주의 집단보다도 가장 악랄한 대량 학살을 자행해온 북괴와 총칼을 맞대고 생활을 해야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데 우리 민족이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 단결하고 봉치지 아니하면 커다란 문제가 야기되고야 말 것이다.

나라의 흥망은 결코 적의 총탄만이 좌우하는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그 나라 국민 자세에 있음을 고금의 역사가 명시하는 귀중한 교훈이다.

참다운 승공을 하기 위하여 가장 긴급하면서도 근본되는 과제는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이 다름아닌 우리들의 정신적 자세라고 생각한다. 정신적 자세가 바로 잡히면 모든 것은 그 뒤를 따르게 마련이지만 정신적 자세가 무너진 곳에는 아무 것도 건설되지를 못한다. 마음의 상태가 자립하지 않으면 구멍뚫린 독과 같아서 고귀하고 지상 명령의 과제인 승공 통일도 불가능하다. 강한 정신력을 가진 민족은 모든 것을 소유하게 마련이다.

그러면 기필코 승공을 해야 할텐데 승공을 앞에 둔 우리들은 어떠한 정신 자세를 가져야 하며, 어떤 자세가 승공적 자세인가

를 살펴보면서 결론을 맺을까 한다.

우리는 첫째 투철한 승공 이념의 정립이 뒷받침해서 어떻게든지 승공을 하고야 말겠다는 강한 의욕과 굳건한 의지, 즉 야무지게 다문 입과 불끈 쥔 주먹을 가져야 하겠다. 그리고 똑바로 뜬 또렷한 눈동자를 갖춰야 한다.

둘째는 생활의 현실화에 힘써 우리의 생활을 항상 건전하고 검소하게 해야 하며 사치와 낭비를 배격하고 부지런히 땀흘려 일하며 저축하는 조국 근대화 작업을 지향하는 국민성을 기르고 힘을 축적시켜야 되겠다.

셋째는 우리는 결코 일신의 영달만을 위하여 이기 행위를 계속할 때만은 아니란 것을 깨닫고 그것은 다함께 패망하는 길임을 자각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로 뭉치는 정신적, 이념적 승공 통일에의 신념으로 집중하고 서로 돕고 위로하며 살아가는 오붓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그러면 밝고 명랑한 사회 승공 통일에의 발돋움은 이루어 질 것이고 사회악도 없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승공 통일의 사명을 짊어진 역군으로서의 동족의식 즉 똑같은 운명아래 공통 교민을 가지고 서로 아끼고 이끌어 주는 동포애를 가져야 한다.

범 한국인 주의를 가지고 모두 민족적 작업 현장에 손잡고 참여하여 해결하는 민족의식 또는 주체성을 가지고 세계 어느 나라에 뒤지지 않는 한민족이 되고자 함께 발버둥 치며 사랑해야 하는 일이 승공을 이룩하는 길이다. 이 길이 이 민족이 잘살고 빛을 발하는 동방의 햇불인 한국이 된다. 또한 세계사를 움직이며 이끄는 한국으로서 등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동족의식이 결여될 때 이 민족은 세계의 냉소와 비웃음을 살 것이며 겨레는 흩어지고 말 것이다. 우리는 결코 그럴 수가 없다. 그래서 안되는 일

이다.

우리는 이 자유 국가를 절대로 붉은 마수에게 더럽힐 수 없으며 세계 나라의 웃음 거리가 될 수 없다. 또한 그래서는 아니된다. 한민족은 강한 민족이며 찬란한 나람임을 과시해야 하는 임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다. 전 국민이 튼튼한 승공 이념위에서 굳게 단결해서 강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같은 정신 자세가 바로 승공을 하기 위한 우리의 자세가 아니겠는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선 우리 민족 전체가 자각하고 각성해야 한다. 그러한 자세로 생활하는 국민은 승공을 하고도 남음이 있으리라.

신념과 단결

정 순 욱

(경북 대구 협성상고)

서러운 이 마음 분노에 떠는 이 마음 울분이 북받쳐 오른다 누구를 위하여 이 넓은 대지 저 푸른 하늘이 있느냐?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들은 인간 이상의 대우도 인간 이하의 대우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이 시점에서 세계를 휘둘러 본다면 많은 우리 인류가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있다. 1956년 「자유를 달라 아니면 죽음을 달라」하고 일어섰던 저 유명한 항가리 반공투쟁도 역시 인간 이하의 취급엔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것이다. 허지만 이런 나라도 우리 나라의 고난에 비한다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이처럼 크나큰 투쟁을 치루었던 것은 참으로



놀랄만한 일이다. 그러면 우리 나라는 이 헝가리란 나라보다도 더
 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어떠한 세월을 보내고 있는가 이전 우리가
 생각해볼 문제라 생각된다. 그 어느 나라가 같은 한 민족을 짐승
 취급, 학살등을 일삼는가 지금 내가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이 시
 간에도 무수한 우리 한 민족의 청년들이, 또 부녀자들이 무자비한
 공산오랑캐, 아니 우리 같은 피를 나눈 형제이면서도 제대로 눈
 을 뜨지 못하고 있는 「김 일성」 괴뢰도당의 총탄앞에 쓰러져 가고
 있을 것이다. 이 참상, 이 비극 그 누가 백의민족으로 이름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었나. 누구냐! 그 누구냐 말이다.
 자칭 「김일성」이라는 「김 성주」 이 자가 아니고 그 누구 이겠는가.
 그러나 이 「김 성주」란 자를 처단 못하는 우리들 그 언젠가 우리
 의 분노가 「김 성주」의 머리를 박살내는 날이 있을 것이다……

지금은 머언 북쪽 하늘을 바라보며 눈물과 한숨만 내뿜을 뿐이

지만.....

그런데 이 또 썩어빠진 「김 일성」 아니 「김 성주」란 자가 또 허황한 꿈을 꾸고 70년대 적화통일 이란 허울좋은 명목아래 우리 자유 대만을 침공할 준비에 광분하고 있으니, 이 어찌 통탄할 일이 아닌가.....

「김 성주」야 네 이놈 같은 한 민족의 피를 빨아 너털 웃음과 더불어 마시는 술이 그렇게도 맛이 좋더라 말이나. 이제 네가 들이킨 술을 내뿜으면 큰 강 하나를 이루었을텐데 넌 아직도 술 생각이 간절한 모양이구나 이놈! 「김 성주」야 이제 그 엉뚱한 생각을 그만 버리도록 하여라. 벌써 나이가 회갑이 다되가지고 서는 그 썩어빠진 성격을 고치지 못하다니 과연 넌 철면피한 인간이구나. 이 개만도 못한 인간아..... 이런 긴장 속에 처해있는 우리 자유대한 국민의 실정은 어떠한가. 우리 자유대한의 여성들은 물밑듯이 들어오는 유행의 물결에 넋을 잃고 있지 않는가! 또 우리 젊은 남성들은 어떠한가? 돈만 좀 생겼다 싶으면 술과 도박 생각만 하니 이 어찌 한심한 노릇이 아니라. 20여년 전 공산오랑캐의 불법남침 때 그때의 젊은이들은 어떠 했던가 밀려오는 탱크에 몸을 던져 자기와 적의 탱크와 운명을 같이 했지않은가, 또 그때의 학생들은 어떠했나. 밀려오는 적을 맞아 책대신 총을 들고 우리 국토를 지키기 위해 몸을 나라에 바치지 않았던가. 이제 그 일이, 그 정성이, 그 신념이 지금 이렇게 부강된 대한민국을 수호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 세월을 보내고 있다. 그때의 노병이 또 아쉽게 숨져간 젊은 낙엽들이 지금 우리를 바라본다면 그 심정이 어떠하겠는가..... 그동안 우리들은 70년 1월21일 울진, 삼척 장무공비 침투 때의 일을 잊고 있었지는 않았는지 이제 발랄하게 뛰노는 국민학생이 “공산당은 싫어요”란 한 마디

때문에 무자비한 공산 괴뢰의 들앞에 희생의 재물이 되었던 것을...

이 비인도적인 공산괴뢰 들은 한참 전쟁준비에 광분하고 있다.

이런 판국에 우리들은 이런 무의미한 생활을 영위 해야만 하겠는가. 이제 우리는 내일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하겠다. 그 동안 묵었던 흐리한 생각은 저 멀리로 날려 버리고 한, 손엔 망치, 한 손엔 총을 들고 국가 건설과 국방에 전념을 기울여야 겠다. 자유냐 죽음이나 하는 것은 지금 우리들의 신념 여하에 달린 것이다. 우리의 신념이 굳건하다면 저 새빨간 거짓말만 일삼는 공산 오랑캐들은 우리 자유 대항에 한 발짝도 넘어오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우리의 신념이 흐리해 진다면 공산 오랑캐들은 그 틈을 타 거침없이 쳐들어 올 것이다.....

현재 자유 대항에 살고 있는 우리들 중 지금의 북한실정이 마음에 든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등을 박탈 당하고 생활 하는게 좋다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 누가 이런 생활을 좋아 할까 그러나 이 악마의 손길은 차츰 차츰 우리에게 접근 해오고 있는 것이다. 우리들은 우리에게 따르는 사명감을 머리에 새겨 그 무서운 악마의 손길이 우리 자유 대항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겠다. 인간은 향상과 정의를 갈망하는 것이다. 불의에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며 슬플 때는 눈물을 흘리고 즐거움을 느끼며 행복을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이다. 우리들은 지금의 북한 실정을 바라보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행복하다 할까 아니면 즐거움다고 생각할까, 아닐 것이다. 이 두가지 모두가 아니고 터져 나오는 울분에 치가 떨릴 것이다. 성서에 이런 말이 있다. 「무엇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라는 우리들도 저 무자비하고 비인도적인 공산 오랑캐의 허울좋은 선전에 속아 넘어 가지말고 자기의 한 가지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일심동체」가 되어 자유대한의 번영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그 동안의 우리 나라는 무수한 고난을 겪어왔다. 36년간의 일제치하 거기에서 겨우 빠져 나오자 이제 우리 나라에 열강국이 뻗들어왔다. 그리고 우리 민족간의 동족상쟁 서로 죽이고 죽고하는 갈투 싸움으로 세월을 보내왔다. 그 틈을 탄 북괴 「김 일성」파 괴뢰당들은 불법남침 1950년 6월 25일 새벽 밝아오는 자유대한에 총탄을 내리 퍼부었던 것이다. 그때의 젊은이는 용감 했었다. 맨손으로 적에 대항 했었다. 그리고 이겼던 것이다. 이 땅에서 그 무서운 이리떼를 몰아 냈던 것이다. 허지만 삼팔선 때문에 반탁운동을 벌렸으나 실패했듯이 이번에도 휴전 반대 운동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을 가로막는 휴전선이 쳐지고 말았던 것이다. 그 뒤엔 부정 부패한 정치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일으켜 일어난 4.19 학생의거 또 5.16군사 혁명등으로 우리 나라는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던 중 이제 제3공화국이 수립되어 나라가 북되어가는 이때에 또 다시 공산 오랑캐 들은 불법남침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들은 이 철면피한 인간들 무자비한 공산 오랑캐가 또 쳐들어 올 날을 예상하여 자주국방에 전념 할 것이며 지금 이 시간에 자유대한에 침투하여 국가 기밀에 눈을 밝히고 있는 간첩 색출에 전념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그 언젠가 또 6.25와 같은 참화 그리고 1.21 무장공비 침투때의 무차별 학살처럼 무서운 참상을 겪을지 모르는 일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방탕과 낭비는 저 멀리로 날려버리고 거기에 소모되는 재정과 정열은 우리 나라의 국토건설과 국토방위에 투자하도록 하여야 하겠다. 반드시 그렇게 하면 통일된 나의 조국, 발전하는 나의 조국, 부강된 나의 조국이 될 것이다… 그럼 우리 다같이 저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바라보자 그들은 우리 나라 보다 몇배 큰 국토를 우리보다 몇배 적

은 국민으로 그 나라를 지키고 있지 않는가, 이들은 오직 신념과 단결한 두 가지 만으로 싸움에 임하기 때문인 것이다. 우리들도 이스라엘처럼 어떠한 싸움에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정신 무장화하고 서로가 의지하고 도와주는 협동정신을 길러 단결을 굳게 하여야겠다. 이 신념과 단결, 이것만 100% 완성돼 있다면 그 누구도 감히 우리 자유대항을 넘 볼 수 없으며, 또 그 누구도 우리 자유대항의 국민을 당해 낼 수 없겠는가. 우리는 꿈에서 깨어나야 한다. 그 동안 캐캐묵은 정신일랑 싹없애 버리고 이제 다시 일어서는 것이다. 그리고는 앞을 향해 전진하는 것이다. 뒤돌아보지말자. 멈추지도 말자. 저기 앞에 보이는 행복의 문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그리하여 조감성취의 대과업에 열매를 맺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이 신념과 단결이 굳건하지 못하여 잠깐 쉬어가거나 뒤를 돌아 본다면 그것은 용두사미의 졸작으로 그만 저 공산오랑캐의 무지한 손아귀에 떨어지고 말 것이다. 우리는 절대로 뒤로 돌아보지 말자. 그리고 서로가 의지하고 도와가며 조감성취의 대 과업에 열매를 맺기위해 줄달음을 치자. 그리하여 웃음과 낭만의 나라, 행복의 나라, 자유 대항이란 이름을 세계만방에 떨치도록 하자. 웃음과 낭만의 나라, 듣기만 하여도 몸이 으쓱해지지 않는가, 이런 소릴 들으려면 앞에 말한바와 같이 서로가 도우며 반공, 승공사상에 투철하여 언제 어느 때 침범해올지 모르는 공산 오랑캐의 무리를 그때 그때에 무찔러 버리는 정신무장이 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국방에 전념 한다고 해서 우리 국가 발전에 심혈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건 너무나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만다.

우리는 공산 오랑캐의 무리를 소탕하면서 또 국가발전에 전념하는 것이다. 즉 싸우면서 건설하자 라는 말이다. 그리하여 안으

로는 부강된 나라, 밖으로는 철통같은 국방의 나라로 발전하는 것이다.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숙원인 조국통일이 이루어 지리라 생각된다.....

자— 우리 앞에는 조국통일의 대 사명이 놓여져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제 「너와 나」라는 말은 버리고 「너=나」라는 말을 쓰도록 하자. 그리하여 서로 합심하여 저 멀리서 우리에게 손짓하는 조국통일의 그날을 향해 줄달음쳐 나가자.....

이제 펜을 놓으면서 무자비한 공산 오랑캐의 총칼앞에 이유없이 숨겨간 우리의 선인들, 그 먼 훗날 공산 앞잡이 「김 일성」 아니 「김 성주」의 목을잘라 선인들의 피맺힌 원한을 풀어줄 날 기약하면서 피맺힌 눈물일랑 주먹으로 씻고 국방과 자주건설에 힘찬 박차를 가하자.

정간위심의필 : 26-6-115

민주통일의 길 ② (문예집)

인쇄 1971년 9월 25일

발행 1971년 9월 28일

발행 국토통일원

인쇄 대한공론사

※ 이 책의 내용은 당원의 의사가
아니고 필자 본인의 의견임

